



9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9호

(루계 제 755 호)

◇◇◇◇◇◇◇◇◇◇

차 례

◇◇◇◇◇◇◇◇◇◇

어버이의 한평생	3
층계를 오르며	3
룡남산은 노래한다	4
조국을 노래하네	4
명작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5
별 너는 내 마음	6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7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7
내 조국의 아름다움 노래하고싶구나.....	8
주체문학의 대강	9
충성의 미소	9
옥색고무신	10
나는야 뵈웠어요	22
사연깊은 시계앞에서	23

어머니조국아	23
들쭉따는 처녀들	23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은 사랑과 헌신의 자욱에 대한 역사적 화폭	24
푸른 하늘의 락하산	29
황철의 한해	29
가요 《대홍단삼천리》가 전하는 이야기	30
조선속담	31
영원한 친위전사의 숭고한 영상을 모신 불멸의 화폭	32
아, 봄비	36
내 사는 땅	37
최첨단의 지름길	37
산울림	38
어머니와 하는 말	50
인민의 총복으로	51
가을날 벌에서	52
탄부와 녀인	53
대동강 능수버들이여	64
9 월 2 일	65
시간표	66
푸른 거목	67
잃어버린 심장	77
리익의 《성호악부》에 대하여	78

어 버 이 의 한 평 생

김 석 주

저 멀리 백두산에서 맞은
유년시절을
빨찌산 군마우에서 시작하신
장군님

오늘도 빨찌산식강행군으로
한평생을
전선길 야전차에서 보내시는
장군님

해마다 한해가 시작되는 첫아침
일군들과 나누시는 인사말씀도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합시다
그러시곤 온 한해 강행군 야전차에서 사시고

늘어가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인민을 보시며
혁명은 이런 재미에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폭우를 뚫고 눈보라를 헤치며

머나먼 전선길에서 해와 달을 보내시여라

우리가 할일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없다하시며
곳은 일, 험한 일 찾아하시고
백가지 천가지 변혁을 이룩하시는 아버지

인민이 천년세월 바라면서도
천년세월 꿈꾸면서도 이루지 못한 무릉도원
그 대문을 기어이 열고
그 리상향을 안겨주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이끄시는 장군님

천만고생을 다하시며
한생의 전부를 인민의 복락과 바꾸시는
위대한 헌신의 한평생이여
빨찌산 귀틀집에서 유년시절을 맞으시여
강행군 야전차에서 보내시는 아버지 한평생이여

층 계 를 오 르 며

최 주 원

유서깊은 룡남산언덕에
푸른 추녀 나래편 본교사
나는 웅장한 전자도서관
너의 층계를 오른다

우러르면
해빛을 다 모은듯
황홀한 불빛은 눈에 부신데
한단두단 보석같은 계단은
어서 오르라 이 몸을 떠받들어주나니

돌아보면
교단을 지켜온 수십년세월
걸음걸음 사랑에 받들려
내 새겨온 성장의 자욱은 그 얼마나
아득한 절정우에 찍혀지는것인가

새 조국 건설의 그 나날
이 나라 농민들이 올린 애국미로
우리 수령님 지어주신 본교사
항일의 녀장군 우리 어머니
사랑 가득 교여주신 이 교사

그처럼 력사깊은 교사에

우리 장군님 새기신 불멸의 자욱따라
내 딛고오른 배움의 층계는
백두산3대장군의 은정에 받들려
저 하늘에 닿고도 남으련만

사랑의 수영판에서
억세게 다듬은 나래
세계를 굽어보며 더 한껏 펼치라고
우리 장군님 세워주신 전자도서관

그 모습
한눈에 다 담을수 있어도
층층 뻗어오른 너의 층계는
내 한생 오르고오를 보답의 높이
조선을 안고 세계로 돌진할
최첨단돌파의 튼튼한 도약대

아, 장군님 축복받은 나의 한생
여기서 새 출발의 리정표 세우리라
세기를 날으는 꿈을 안고
강성대국의 미래를 앞당겨올 리상도 높이
여기서 대비약의 큰 자욱 떼리라
전자도서관 사랑의 층계여!

통남산은 노래한다

송 정 우

해빛도 눈부신 9월의 아침
내 통남산마루에 오르니
마음속에 숨엄히 울리어와라
50년전 그날
우리 장군님 다지신 그날의 맹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대를 이어 기어이 완성할
조선을 빛내이리라는
오, 불타는 맹세
어제런듯 울려오는 통남산마루

그날에 벌써
혁명의 최후승리를 내다보신 장군님
그날의 그 맹세 이 땅에 꽃피나지 않았던가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 세워가는
오늘의 이 벅찬 현실이

주체철과 비날론 주체비료의 대경사
땅우엔 오곡백과 설레는 무릉도원
하늘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바다엔 우리의 철갑상어
일터는 일터마다 CNC화의 동음...

정녕 어찌 다 헤아리랴
크고작은 강마다 발전소 일떠서고
바다는 간석지에 자리를 내어주고

행복의 《산울림》메아리가
온 강산에 변을 불러오나니

주체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 곳곳이 이어오신 장군님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을 품에 안아
주체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끄시여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우리 장군님

오, 이야기하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위업이여
중중첩첩 막아서는 난관을 헤치며
어떻게 이 땅우에 오늘의 락원을 펼치셨는가를
진정 어떻게 백두의 명맥을 이어
주체의 조선을 누리에 펼치시였는가를

해빛도 눈부신 9월의 아침
통남산에 선 내 마음 감격에 젖어라
날마다 맞이하는 행복의 새날은
그날 통남산마루에서 다지신
장군님의 불타는 맹세로 빛발쳐오는것 아니냐

아, 50년전 9월 1일
력사의 날과 더불어 통남산은 길이 빛나리라
천만군민의 심장 끝없이 불태우며
통남산의 맹세로 조국은 끝없이 번영하리라

가 사

조국을 노래하네

리 영 철

선군으로 지켜준 하늘
한없이 푸르러라
무릉도원 전야 어디나
현신의 자옥 뜨겁네
천만리전선길이 가슴에 사무쳐와
목매여 불러보는 조국은 우리 장군님

불야성이 펼쳐진 거리
그 사랑 속삭이네
만년언제 푸른 호수들

그 로고 전하여주네
시련의 나날에도 인민을 품에 안고
행복을 안기여준 조국은 우리 장군님

그이 한생 어리어있는
이 하늘 이 땅이여라
대대손손 만복 노래할
인민의 세상이여라
선군의 총대우에 미래가 비껴있어
천만년 번영해갈 조국은 우리 장군님

명작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놓고 —

주 옥

지금으로부터 50년전, 해쑈는 통남산마루에서 조선혁명을 대를 이어 떠메고나갈 송고한 사명감을 안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이 노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발걸음에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며 오늘도 내 조국땅에 울리고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조선을 빛내기 위해 힘차게 달려야 하겠다는 맹세가 뽐어번지게 하고 무한한 조국사랑의 세계로 뿔뿔하게 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

이것은 50년전 그날에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의 맹세였으며 심장의 선언이었다.

일찌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헤치시면서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말 《지원》의 뜻을 새기신 그날의 맹세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어 압록강을 건느시며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다지신 그날의 맹세를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통남산에서 다지신 맹세는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진군길을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높은 령마루에까지 이어놓은 혁명의 맹세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앙양이 이룩되었습니다.》

명작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 조선을 온 세상에 떨치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의 맹세가 비껴있다.

해쑈는 통남산 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명작은 처음부터 장엄하고 숭엄한 감정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위업의 계승성에 대한 심오한 사회정치적문제성을 해명하는데로 모든 사색과 감정을 집중시키고있다.

1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 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여기서는 전형적인 시적계기, 전형적인 시적정황을 설정하고 전형적인 사상감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거운 책임감과 송고한 사명감이 그이의 심중에 크나큰 격정으로 차넘치고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2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길에는 수많은 애로와 난관이 막아나설수 있지만 그것을 기어이 이겨내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가는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온갖 시련과 난관도 두려움없이 헤쳐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이것은 오로지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야 할 위대한 령도자만이 지닐수 있는 신념이며 조선을 온 세상에 떨치고야말 위대한 령도자만이 발휘할수 있는 의지이다.

여기서는 앞절에서 제시된 시적계기와 정황에 의거하여 사상감정을 마치 격랑과도 같이, 폭포와도 같이 급격히 고조시키며 전진시켜나가고있다.

노래의 3절에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뜻과 확고한 결심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마감절에서는 1, 2절에서 제시되고 전개된 감정이 더욱 고조되어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위업을 온 세상에 빛내일 주정토로로 높이 승화되었다.

명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하게 장중하고 숭엄하며 고결한 사상감정으로 똬똬하게 하는것은 시적구성을 잘 조직한것과 관련되어있다.

명작의 시적구성은 간결하면서도 치밀하게 짜여져있다.

매 분절이 작품의 각이한 형상측면을 이루는 독자성을 띠고 상승발전의 흐름새를 따라 마지막절에 가서야 시적일반화를 하면서 주제사상과 종자를 밝히었다.

명작은 가사의 마지막행에 력점을 찍고 매개 절의 마지막절을 형상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작품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펼쳐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숭고한 사상감정이 조선을 빛내이겠다는 결의로부터 조선을 떨치겠다는 맹세로 상승발전하였다. 그리고 마감에 가서는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라는 강한 서정토로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폭발시켰으며 여운있게 매듭지었다.

명작은 인민들이 늘 쓰는 알기 쉬운 시어들을 골라 다듬어지고 뜻이 깊은 형상적표현들을 활용함으로써 예술적품위를 높이고있으며 박력있으면서도 정서적인 운율을 보장하고있다.

명작은 《사나운 품량도 폭풍도 해쳐》, 《누리에 빛나는 래양의 위업/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등과 같은 은유법과 《조선아 너를 빛내리》와 같은 부름법 등 여러가지 표현수법들도 잘 살려쓰고있다.

명작은 우리 나라 민족시가에서 력사적으로 형성공고화된 6.5조와 7.5조의 운률조성방법에 의

거하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있다.

가사의 매절마다에 한행으로 된 후렴구를 달아 5행시로 된 가사는 절과 시줄들을 분행한것부터 다른 일련의 가사들과 차이를 가지게 하였으며 자기의 형상생리적특징을 나타내고있다.

명작은 조선을 빛내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향과 의지를 사상감정의 기본핵으로 하고 그것을 시적형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시어와 시구들에서 어음적특성을 살려 시어와 시어들, 시구와 시구들을 잘 조화시켰다.

가사에서는 또한 뜻이 깊은 시어들을 절을 따라가면서 점진적으로 강조, 반복해줌으로써 가사의 특성을 더 잘 살리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명작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헤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넛과 심장을 불태워오신 전설적영웅, 애국의 최고화신이시다.

우리가 오늘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주체철이 팡팡 나오고 비날론폭포가 쏟아지며 기계공업의 CNC화를 실현하는것 등과 같은 커다란 사변이 련이어 일어나는것은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이 노래가 울리고있기때문이다.

50년전 그날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의 맹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맹세, 조선의 맹세로 간직되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들마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이 땅에 대대손손 울릴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될것이다.

가 사

별 너는 내 마음

안 충 평

밝아오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아
아직도 지지 않는 네 마음 내가 알지
새벽도 첫새벽에 전선길에 오르신
장군님 야전차의 불빛을 따라서는
아 별 너는 내 마음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아
지금도 잠 못드는 네 마음 내가 알지
온 세상이 깊이 잠든 이밤에도 달리는

장군님 야전차의 불빛을 마중가는
아 별 너는 내 마음

새벽에도 밤에도 반짝이는 별아
언제나 변함없는 내 마음 네게 있어
저 하늘 못별중에 제일가는 너처럼
장군님 야전차를 영원히 따라서는
아 나는 이 땅의 별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는 소비에트정부를 대신하게 될 정부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것과 이 정부는 세계정권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선언하였다.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줄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것, 로동의 권리를 가지는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것...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진다 풀어줄것입니다.〉

가야허의 인민들은 인민혁명정부로선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혁명설화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누리에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더불어 공화국창건의 날 건국의 위대한 어버이께 삼가 축하의 인사를 드리시던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뜨겁게 어리여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주체37(1948)년 9월 9일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점심시간에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간단히 별식을 준비하시였다.

그 뜻깊은 좌석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도 이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자고 하시며 김정숙동지께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제는 오늘로써 완성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그동안 나를 도와 많은 수고를 했다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여태 고생만 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한잔 부울테니 마시라고 하시며 손수 잔에 술을 부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려깊은 그 말씀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만 가슴이 뜨거워지시여 《장군님!》 하고 다음말을 잊지 못하시다가 감격에 젖어든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시였다.

《왜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당을 창건하고 군대를 창건하고 공화국을 창건한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한생에 쌓인 꿈을 다 풀어주시였는데 그것이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진정 어머님께서는 이날을 얼마나 일일천추로 고대해오셨던가. 그리고 또 이날을 위해 해방후에도 얼마나 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던가.

항일무장투쟁시기 산에서 싸울 때처럼 혁명의 배신자들과 원쑤들의 준동을 물리치고 장군님의 건당, 건국, 건군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조국땅에 첫 자욱을 새기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당, 정권기관들과 근로단체들, 인민군부대들과 군

관학교를 찾아 끝없이 걷고걸으시였으며 때로는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때로는 중화군의 농민들속에, 이렇게 늘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그런데 것처럼 바라시던 공화국이 창건되어 우리 인민은 자기의 정권을 가진 자주적인 인민으로 되고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독립국가로서의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세계무대에까지 진출할수 있게 되었으니 그이의 심중에 차오른 감격이 어찌 그토록 크지 않을수 있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의 그 심정깊이 헤아리시여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인데 이날을 뜻깊게 경축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히 술을 따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 그토록 불면불휴의 노력을 기울여 오늘 우리 인민이 것처럼 바라던 공화국을 세우시였으니 장군님께서 먼저 한잔 드십시오. 장군님, 공화국창건을 축하합니다!

눈물없이 돌이켜볼수 없는 참으로 격동적인 순간이였다.

—장군님, 공화국창건을 축하합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의 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신 인사는 수령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공민으로서의 만복을 누리게 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은 열렬한 축하의 인사였다.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함께 축하를 들자고 하시며 김정숙동지와 함께 공화국의 영원한 미래를 축복해주시였다.

내 조국의 아름다움 노래하고싶구나

김 덕 선

다치면 쏘아질듯 맑고 푸른 9월의 하늘
네가 가없이 푸르고 아름다운것은
너의 하늘에 인민의 희망이 비끼고
너의 하늘처럼 우리의 앞날이
창창히 열려져있기때문이 아니냐

노래하고싶구나!

눈부신 공장들과 거창한 언제들
인민의 행복넘칠 새 거리와
선군시대의 대기넘비들 빛을 뿌리며
하늘을 떠받들고 일떠선 나의 조국

가는 곳마다 황홀한 선경마을들
백학의 무리 나래편듯 추녀를 쳐들고
불밝은 창가마다 등기당당 울리는 가야금소리에
아득한 대평원의 나락이 춤추듯 설레고
원홍의 무르익는 사과 이 땅의 행복 주렁지우며
내 나라의 아름다움을 한껏 펼치누나!

주체철과 주체비료 비날론숨이
인민의 웃음으로 폭포치고
불야성 이룬 원산의 밤거리와
개선청년공원 유희장에서 터치는 웃음
내 나라의 아름다운 노래로 울리누나!

꽃피는 4월이 오면 수령님 더욱 그리워
봄축전의 노래 하늘땅을 가득 채우며
수령님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셔가는 나라
대동강반에 터쳐올린 축포는
수령님 안겨주신 내 나라의 아름다움을
인민의 가슴에 새겨놓지 않았던가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 땅에 일떠세운 기적과
자기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보는 자존심으로
CNC화의 열풍을 불러 시대를 주름잡으며
과학의 최첨단을 돌파하는 나의 조국

날마다 펼쳐보는 당보엔
백두생일상을 받은 로인들의 고마운 인사말이
축복받은 시대의 메아리로 울리고
장군님 사랑어린 **김일성**종합대학수영관에서
로박사들 폭포치며 흘날리는 은구슬 온몸에 맞
으며
또다시 아이되어 젊음을 되찾는구나!

노래하고싶구나!

저 록음질은 공원에 나란히 앉은
한쌍의 청춘
그들은 지금 무엇을 설제하며
무엇을 약속하는가
불같이 뜨거운 속삭임 그것은
아마도 강성대국 그날의 약속이리라

속삭이라, 끝없이 속삭이라
너희들의 그 꿈을 지켜주려고
조국은 순간도 멈춤없이 창조의 음향을 울리고
선군의 총대산악이 푸른 하늘에 비껴있나니

저기 옥동자 안고 하루의 퇴근길
대동강기슭의 분수를 찾는 젊은 부부
래일엔 더 많은 땀 흘리자 약속하는
그들의 그윽한 눈빛 정말로 곱구나!

좋구나!

이 땅 그 어디나 기쁨과 랑만이 가득차흐르고
사람들 마음마다 꽃망울처럼 부풀어있는것
이것은 2012년을 가슴에 안고사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모습
내 조국의 아름다움이 아니냐

오, 번영하는 내 나라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
이것을 우리 인민에게 주자고
우리 수령님의 인민행렬차가 한생 달렸고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 초강도강행군길을 따라
강성부흥조국이 이 땅에 소리치며 달려오나니

그 사랑 저 하늘의 맑음 되고
그 사랑 저 하늘의 푸름 되어
내 인생의 푸른 빛도 더해주는
내 안겨사는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사랑의 품 나의 조국이어!

내 너의 아름다움 더해주는 한줄기 빛이 되고
내 너의 아름다운 노래 한가락이 되어
내 조국을 더 빛내여가고싶구나!
내 천만년 너의 아름다움 노래하고싶구나!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종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의 대를 바로 세우는것과 함께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다는것은 인간관계, 갈등, 이야기줄거리를 모두 생명유기체와 같은 산 형상에 고유한 생활의 흐름에 맞게 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구성은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아야 작품마다 서로 다르게 될수 있다.》

《구성은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아야 진실하게 될수 있다.》

《형상의 생리에 맞게 빈틈없이 엮어진 구성은 어느 한 요소라도 들어내거나 바꾸어넣을수 없게 유기적으로 튼튼히 맞물려있는것이 특징이다.》

추억에 남는 시

총성의 미소

리 계 심

비울수록 따르고싶어
우러러뵈는 이 마을에
홀러드는 사랑에 넘친 그 미소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웃고계시네
김정숙어머님
붉은별 빛나는 항일모가
그리도 잘 어울려
밀림의 새별로 빛나는 그 눈동자
새봄을 아뢰는 진달래인양
기쁨과 희망이 피어나는 그 모습

가난과 천대의 설음을 씻어버리고
총메고 나선 혁명대오에서
태양의 빛발아래 꽃이 피듯
수령님의 해빛아래 피어난 그 웃음

아, 수령님께 충성다하신
하늘의 별무리같이 하많은 이야기
말없는 그 미소에 담으셨으니
그 미소로 헤쳐가신 험산준령
몇천, 몇만리더나

천리길 달려온 숙영의 깊은 밤에도
장군님의 젖은 옷 품속에 말리시며...
그 모진 철창속에서도
먼 하늘가 사령부를 우러러
피어난 충성의 그 미소

아, 불타는 그 충성이 있어
그 웃음 더더욱 밝고
그 미소로 하늘땅 얼어붙는
고난의 행군길 헤쳐넘으셨어라
사령부를 노리는 적탄도

한몸으로 막아나서신
그 숭엄한 미소를 뚫지 못했어라

한겨울에도 웃으시면 새들이 날아오고
한겨울에도 웃으시면 강물이 풀려
수령님을 따르는 수천수만리
희망에 넘쳐 걸으셨네
넘고넘으신 험한 산발들에
그 웃음이 어리어있네

그 웃음엔 시련을 거쳐
수령님께서 그려주신 미래가 있었네
춤추는 아이들의 노래가 있고
어머니들의 행복이 물결치고
가없는 황금들판이 설레고있었네

아, 김일성장군님의 해빛 넘친 땅
가슴속에 일어서는 조국의 미래가
그 모습에 비껴
그리도 아름다와라
새 조선의 얼굴로 밝게밝게 빛나라

한평생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투사만이 지닐수 있는 그 미소
그 미소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홀러드네

끝간데 모르는 슬기와 용맹
불타는 열정과 강의한 의지를 모두어
수령님께 충성하라고
영원한 미소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네

(1973)

목석고무신

한 성 호

1

파아란 하늘이 한껏 높아졌다.

찌는듯 물कु던 삼복철의 무더위도 어느덧 가서 지고 무르익어가는 오곡의 감미로운 향기를 싣고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무척 쾌청한 날씨이다.

수수한 치마저고리를 입으시고 까만 고무신을 신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날씨에는 무관하신듯 깊은 생각에 잠겨 천천히 걸음을 놓으시었다.

《오늘은 좀 쉬실걸 그랬어요. 피로를 푸시고 일은 다음날에 보셔도 될터인데. …》

그이를 따라선 양복을 단정히 입은 처녀가 녀사의 흐린 안색을 제판으로 생각하며 속상한듯 하는 말이였다.

그제서야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그리시며 그에게 눈길을 주시었다.

《제 생각에만 옴해있었군요. 안됐어요. 마음이 편안해야 휴식도 하는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참, 그러다가 정말 한평생 휴식이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나라가 해방된지 3년이 되었지만 언제 한번 마음편히 휴식하신적이 있어요?》

처녀는 금시 울상을 하고 어리광을 치듯 토달거리고는 입술을 꼭 옥문다.

《호호… 우리 미영이 그럴 때면 꼭 어린 소녀 같아요. 이제는 어엿한 무용학교 학생이 되었는데 두 말이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마음을 농쳐주시려는 듯 부러 가볍게 소리내어 웃기까지 하시며 사랑스럽게 바라보시었다. 어떻게 하나 자신의 건강을 위하는 그의 애모쁜 정앞에 가슴이 뜨거워지신것이였다.

미영이의 아버지는 빨찌산 중대장을 하다가 나라가 해방되기 한해전에 애석하게도 희생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까지 선을 놓아 전우의 딸인 미영이를 겨우 찾아내시었다. 그

리고는 옆에 데리고있으면서 친히 돌봐주시었다.

미영은 몇달전부터 대동강기슭에 있는 무용학교(당시 무용연구소)에서 공부하고있었다. 미영이의 소원이 춤을 추는것이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무용학교에 보내주시였던것이였다. 그렇게 하신데는 다른 생각도 있으시었다. 이제 멀지 않아 마자르의 수도 부다페슈트에서는 제2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되게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축전에 우리 녀성청년들도 많이 참가했으면 하는것이 소원이시였다.

무용학교에서는 벌써 축전준비사업으로 들끓고있었다. 미영이도 밤낮 학교에서 훈련하느라고 나가 살다싶이 하고있었는데 지방에 나가셨던 녀사께서 방금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며칠 시간을 받아 이렇게 달려왔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래간만에 보게 되는 미영이여서 무척 기쁘시였지만 그와 한가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눌 경황이 없으시었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공장들에서 대중일용소비품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 데다가 그나마 적지 않은 상품들이 개인들의 손에 들어가 되거리로 판매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도 신발상품이 더하다고 하니 심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장마당과 세창고무공장에 나가 알아보아야겠다고 결심하시였던것이였다.

장마당은 사람사태가 났다. 발을 옮겨디디기가 힘들 정도로 빼곡했고 팔고 사는 사람들의 오가는 입담들로 하여 절로 웃음이 나오기도 하였다. 천류, 그릇류, 갖가지 식료품들과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번쩍거리는 외국제상품들도 있었다.

신발매대쪽으로 가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매대를 사이두고 왈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소란한 장마당의 소음을 누르며

들려왔던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고아대는 것은 구매
자 쪽이고 판매자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었다. 대
체로 판매자가 더 큰소리치기가 일쑤인데 그 반대
이고 보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여넘기려다가 들장
난 모양인지?... 소리가 점점 더 커지었다. 달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미영이, 가보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영이에게 이르고나서 먼
저 신발매대로 가시었다. 장사꾼들이 들어앉은 신
발매대안락에는 뜻밖에도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
처녀가 무엇을 품에 꼭 웅크려안고 매를 본 까투
리모양 머리를 푹 떨구고 있었다. 나이는 미영이와
비슷해보였다. 그앞에 격자문양의 와이샤쓰를 입
은 머리가 더부룩한 청년과 제법 신사양복을 차려
입은 좀 나이가 들어보이는 청년이 장승처럼 딱
버티고서서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생떼를 부려야 쓸데없어. 정 말을 듣지 않
으면 힘을 행사하겠어. 괜히 망신만 당하지 말고
곰상곰상 말을 들어.》

격자문양의 옷을 입은 청년이 양복쟁이에게 한
쪽눈을 찡금 해보이며 씨벌여대었다.

처녀의 두어깨가 바람에 사시나무잎 떨듯 했다.

《아니, 저 애가?...》

미영이가 처녀를 보고 놀랐다.

《아는 사이예요?》

김정숙동지의 물으심에 미영은 당황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아니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참외같은 처녀의 동그스름
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시었다. 고운 마음씨가
엿보이는 듯 한 도톰한 입술에 검은 눈매는 잔잔한
호수처럼 그윽했는데 배꽃같이 하얀 얼굴색이 무
척 부드럽게 동정심이 불쑥 생기시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편역을 들수도 없으시여 잠
시 그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시었다.

《정말 안 내놓겠어? 제길할.》

청년이 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처녀의 품으로 손
을 찢어넣었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누구도
어찌지 못하였다. 처녀의 아츠러운 비명소리에 이
어 그의 품에서 보자기에 싼 고무신 몇켤레가 훌
어져 탁우에 떨어졌다. 저고리웃고름이 풀리는통
에 처녀는 가슴을 부여안았다가 그럴새가 없는지
떨어진 고무신들을 다시 주어 품에 안았다. 하지
만 양복쟁이가 고무신 한켤레를 나꿔채는통에 그
것만은 손에 쥐지 못하고 애걸복걸하였다.

《아니예요. 이... 신발은 세창것이 아니...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처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올랐다가 방울방울 떨어
졌다.

《누가 그 말을 믿어? 이 고무신은 분명 세창고

무공장에서 생산한 거란 말이야. 얼굴이 반반해가
지고 누굴 속여넘기려고, 어림두 없어. 그것두 마
저 내놔.》

그의 손이 처녀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찰나
더 이상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청년의 앞을 막아나서시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김정숙동지의 눈빛이 번쩍이시었다. 평시에는
그처럼 조용하고 마음고우신 그이이시였지만 이런
무례한 행동을 보면 참지 못하시었다. 두사람은
뜻밖의 소리에 손자세가 굳어진채 병병해서 괜히
눈길을 허둥거리기만 했다.

잠시후 정신을 차린듯 양복쟁이가 김정숙동지의
아래우를 살펴보고 제법 위협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누구요? 우린 공무집행중이요.》

《도대체 무슨 공무집행인가요?》

《이 아주머니가? 우린 노동자규찰대란 말이
요.》

바빠맞은 것은 미영이였다. 그가 청년들에게 다
가붙었다.

《저...》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영이를 단호하게 제지시
키시었다.

《미영이! 가만 있어요.》

엄한 목소리가 미영을 주춤케 하였다. 사람들이
어깨성을 쌓으며 모여들었다.

《로동자규찰대요? 어쩌면 처녀에게 그런 무
례한 행동을 할수가 있어요. **김일성**장군님께서 해
방된 새 조선에는 인민들의 생활상권의를 위해 장
마당도 필요하다고 가르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로동자규찰대라는 명분밑에 왜 농경자들이 해먹
던 그대로 행세하면 되겠는가 말이에요.》

김정숙동지의 침착하면서도 엄하고 사리정연
한 말쑥에 두사람은 꿀먹은 병어리가 되고말았다.
말쑥하며 행동거지며 모든 기품이 여느 녀인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든 모양이였다.

《그렇지만 공장제품을 훔쳐다 팔아먹는 이런
장사치들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여서...》

청년들의 말투가 대번에 달라졌다.

《그렇다고 그렇게 무작정 빼앗아내서야 일이
바로 되겠어요?》

김정숙동지의 눈빛도 부드러워지시었다. 이어서
양복쟁이가 탁우에 슬며시 내려놓은 신발을 집어
드시고 살펴보시었다.

《자, 보세요. 이 신발에 어디 공장명칭이 있어
요? 이 신발은 공장제품이 아니예요.》

두 청년을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좋
지 않으시었다. 처녀를 공장제품을 훔쳐다 파는
장사치로 몰아붙이려는 이 청년들이 앞말긋다는
생각이 드시여 그이께서는 가는 숨까지 내그으시
었다.

처녀가 《흐흑...》하고 어깨를 펴며 그만에야 품에 걸어모아안고있던 고무신들을 놓으며 얼굴을 싸쥐고 주저앉았다. 두 청년은 김정숙동지를 슬깃슬깃 여겨보더니 사람들 틈으로 새어나가 줄행랑을 놓고말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두무릎을 모아앉으시며 처녀의 어깨를 어루쓸어주시었다.

《그만해요.》

처녀는 눈물진 눈을 뜨고 올려다보며 말했다.

《고마와요.》

보매 장사할 처녀같지 않아 그이께서는 조용히 물으시었다.

《동무가 신발을 파는가요?》

《예, 사실은 저...》

처녀는 쑥스러운지 말하다 말고 머리를 숙이였다.

《됐어요. 내가 그 신발들을 좀 볼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무안해하는것 같아 말머리를 돌리시며 신발꾸레미를 당겨 보자기를 풀어보시였다. 백고무신이며 검은 고무신들이 나졌는데 모두가 녹신녹신한게 질이 상당히 좋아보였다.

《신발이 맵시있군요. 어디서 만든건가요?》

김정숙동지께서 다정히 물으시였다.

《아버지가 집에서... 만든거예요.》

《그래요?!》

신발을 얼마나 정교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는지 김정숙동지께서는 개인이 만든것이라고 선뜻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공장제품 신발을 파는데도 있어요?》

《예, 저쪽 몇군데서 팔긴 하는데 그리 많지도... 못합니다.》

김정숙동지의 물으심에 처녀가 주저주저하며 대답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숨을 모두어 내쉬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벌써 일군들에게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주시였었다. 그런데 오늘까지 공장에서 신발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해 인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있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신발을 생산하고있는 세창고무공장에 꼭 가보아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도 겁먹은 눈길로 바라보고있는 처녀에게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의 기술이 여간 아니구만요. 이 신발을 하나 팔겠어요?》

《예. 어서 가져가세요.》

처녀가 안도의 숨을 가늘게 내쉬며 눈을 삼박거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검은 고무신 한켠레를 집어드시였다. 다 사주고싶었지만 돈이 되지 않으시였다.

《고마와요.》

처녀의 얼굴에 고마와하는 기색이 확연히 어리였다.

《그래 동무 이름이 뭐가요?》

김정숙동지께서 다정히 물으시자 처녀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음을 지었다.

《옥이라고 합니다.》

《옥이! 이름이 참 곱군요. 학교는 다녀요?》

처녀가 고개를 슬긋이 숙이더니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처녀는 시름겹게 눈길을 내리떨구었다. 웬일인지 아까부터 미영이를 불안스럽게 쳐다보는것도 이상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옥이에게 무엇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을 짐작하시였다.

《너사님!》

미영이가 녀사의 팔굽을 조심스럽게 당기며 조용히 불렀다.

《예, 알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영이의 말뜻을 알아차리시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옥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이시였다.

《고마와요.》

처녀는 진정으로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면서도 김정숙동지와 헤어지는것이 못내 아쉬운지 점도룩 서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다른 매대들을 다 돌아볼 때까지 어떤 일인지 옥이생각으로 가슴은 무거우시였다.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새 민주국가건설을 위해 자기의 땀과 열정, 온넛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가. 그런데 저 옥이는?...)

시대의 거창한 흐름에 용용히 뛰어들지 못하고 장마당에 나와 신발을 팔고있는 그를 보니 서운한 생각이 들어 그이께서 안색을 흐리신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처음 그를 볼 때 그의 용모에 마음이 썩여짐을 어쩔수가 없으시였다. 얼굴생김이 고운데다 몸매 또한 균형잡혀 날씬한게 미영이처럼 무용학교에 보내주어 훌륭한 배우로 키운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으시였다.

《미영이, 아까 그 옥이란 동무를 좀 생각해봐요. 장마당에 나와있기엔 나이도 그렇고 모든게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의 희망이 뭔지 꼭 그가 소원하는것이 있으면 도와주고싶군요. 옥이도 미영이처럼 무용학교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마당매대에 서있는 한 처녀를 두고도 그리 마음쓰시는 녀사를 우러르는 미영이의 눈시울은 불시에 붉어지였다.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나 보시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시며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해하시는 녀사이시였다. 녀사께 이렇다하게 시원한 대답을 드릴수 없는 미영이로서는 가늘

게 한숨을 내쉴뿐이었다.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그 앤 무용학교에 오기가 힘들거예요.》

《왜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라시는 눈길로 미영이를 보시며 물으시었다.

《그건 저… 그 애 아버지가…》

미영이가 어물어물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쩔단 말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리해가 되지 않으시는듯 미영이를 바라보시었다. 미영은 애써 웃음을 띄우며 녀사의 팔에 매달렸다.

《이젠 그만 보시고 어서 가시자요.》

《예, 그렇게 하자요.》

김정숙동지께서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이 길로 신발을 생산하고있는 세창고무공장에 가서야 했던것이었다.

그이께서는 미영이와 함께 장마당을 나서시었다.

2

보통문열에 위치한 세창고무공장은 력사가 있고 이름이 낳지만 소문에 비해볼 때 그리 큰 공장은 아니었다. 다섯채의 단층건물과 2층짜리 빨간 벽돌집 한동이 있을뿐이었다. 해방전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발은 장사군들의 손을 거쳐 그 어느 지방 할것없이 퍼져갔는데 지어는 중국 동북지방에까지 팔리었다. 그때는 세창신발 하면 이름이 대단히 날렸었다. 특히 고무신은 소문이 났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1930년대 초엽에 벌써 세창고무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연길현에서 아동단책임자로 사업하실적에 세창고무신을 품소 사다가 아동단원들에게 신긴적도 있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세창고무공장에 도착하시자 공장의 몇몇 일군들이 황황히 마주 달려나왔다. 그중에서 툇투무레하게 생긴 중년남자가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제가 공장지배인입니다.》

《이렇게 만나보게 되어 기쁩니다. 공장을 한번 보자고 들렸습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살뜰한 음성으로 말씀하시 고나서 지배인을 따라선 한사람에게 문득 눈길을 보내시었다.

《아니?...》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라시며 웃음을 거두시었다. 장마당에서 만났던 로동자구찰대라고 자칭하던 양복쟁이청년이였다. 그는 그이의 눈길앞에서 얼굴이 해쓱해져가지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동무가?!...》

지배인이 얼른 나서며 입을 열었다.

《예, 이 동문 공장생산을 말아보는...》

《우린 구면인걸요. 장마당에서 만났됐어요.》 그 말씀에 청년은 더욱 웅색해하며 잘못을 뵈었다.

《제가 그만… 녀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언한 저를 용서해주시시오.》

《...》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가는 숨을 몰아내쉬시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김일성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일하는 일군이라면 웅당 인민의 총복이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권세부터 행사하려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있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됐어요. 다시는 왜놈세상에서나 하던 버릇을 되풀이하지 말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좀전과는 달리 부드러운 어조로 나무람하시듯 타이르시었다.

《예, 예. ... 꼭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은 깊이 뉘우치듯 좀처럼 머리를 들지 못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구내에 우뚝 솟은 굴뚝에 눈길을 주시었다. 굴뚝 중간에 붉은색으로 《세창》이라고 쓴 두 글자가 표나게 안겨왔던것이었다.

(세창!)

김정숙동지께서는 속으로 조용히 외위보며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지배인이 그이의 옆으로 다가서면서 손으로 굴뚝에 쓴 글자를 가리키며 말씀드렸다.

《이전 공장주가 공장이 세상에 번창하라는 뜻에서 〈세창〉이라고 저렇게 글자를 새겨쓰게 하고 공장이름도 〈세창고무공장〉이라고 달았다고 합니다.》

지배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였다. 구변술도 좋았다. 공장력사에 대하여 물흐르듯 줄줄 내리려는 말재간은 감탄할 정도였다.

《그래 공장이 번창했는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지배인을 바라보며 다감한 목소리로 물으시었다.

《번창은커녕 로동자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배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안색을 흐리시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에 원췌 왜놈들은 우리 인민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착취했었다. 왜놈들의 학정밑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된 오늘날 우리 인민이 온 세상이 부럽도록 잘살자면 하루빨리 김일성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드림없이 관철해야 한다고 보시었다. 일부 공장들에서는 아직까지 부역세간이나 대중소비품을 인민들의 수요에 따라 생산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지방에 나가보니 신발이 없어 맨발로 뛰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애는 발을 다쳐...》

김정숙동지께서는 감정이 격해지시어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지금도 한 처녀애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귀전에 막 울리는것만 같으시였다.

...

강원도일대를 돌아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얼마전 고성군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어느 한 마을에서 돌차기를 하며 놀고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시였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 지방에 나가보니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가슴아프게 하시던 말씀을 심중에 깊이 새기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여라문명의 아이들이 서로 싱깅이질을 하며 놀고있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다가 그만 안색을 흐리시였다. 맨발로 돌차기를 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저러다 발을 상하면 어쩌랴 했는데 아닐세라 그 아이가 비명소리를 내며 주저앉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다급히 뛰어가 발가락을 움켜쥐고 우는 처녀애를 달래이시였다.

《울지 말아, 신발은 어떻게 했니?》

처녀애는 발을 쓰다듬어주시는 녀사를 눈물이 그렁한 눈길로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울음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발이... 없어요.》

《?...》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의 발을 살펴보시였다. 맨발의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 아이들도 낡은 고무신이거나 다 꺾어져 발가락이 삐어져나온 천신발을 신고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신발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미전에 국가적조치를 다 취해주셨는데도 공장에서는 아직까지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에서 깨어나시어 숙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일이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신발생산문제를 두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이윽해서 그이께서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재봉작업반으로 들어가시였다. 고무냄새가 재봉작업장애까지 들어와 목이 탁하시였다. 저쪽에서 한 처녀가 기침을 했다. 편쇄반응이라도 일어나듯 여기저기서 기침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이런 속에서 일을 하자니 기침을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처음 기침을 하던 처녀에게로 다가가시였다.

《기침이 몹시 심하군요. 병원에 가보아야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근심어린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시였다.

《아니예요. 그저 좀...》

처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울렸다. 그이께서는 허물없이 처녀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대시였다. 처녀는 아직은 누군지 알수 없는 녀인의 살뜰한 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입술을 꼭 옥물었다.

《미열이 있군요. ... 지배인동지, 작업장공기가 몹시 나쁘데 배풍장치를 해주어 노동자들이 신선한 작업장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이 첫째입니다. 앓는 동무들은 제때에 치료를 받도록 대책도 취해주고...》

《예, 곧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배인은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작업장환경개선에는 낯을 돌리지 못했노라며 머리를 수긏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 처녀재봉공의 등을 다정히 어루쓸며 말씀하시였다.

《난 동무들이 건강해서 일하길 바랍니다.》

처녀재봉공이 눈굽을 찌으며 대답했다.

《고마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어 도루기작업장과 바닷문양작업장까지 돌아보고나서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이신발들과 어른들의 백고무신, 검정고무신 그리고 로동화도 만져보시며 질을 가늠해보시였다. 장마당의 옥이한테서 가져온 고무신보다 모양과 질에서 훨씬 떨어졌다.

《이걸 좀 보세요. 개인수공업자가 만든건데 공장신발보다 더 좋아보이지 않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영이에게서 고무신을 받아 지배인에게 보여주시였다.

《예, 솜씨를 봐서는 이 신발은 틀림없이 우리 공장에서 나간 장돌부란 사람이 만든것입니다.》

지배인이 고무신을 보고나서 말씀올렸다.

《장돌부? 그가 왜 공장을 나갔는가요?》

《오랜 기능공이었는데 해방되기 한해전에 공장주인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캐여묻지 않으시고 구석에 놓인 한켠테의 고무신쪽으로 가시였다.

《색고무신이구만요. 처녀들이 좋아하겠어요.》

지배인이 딱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올렸다.

《예, 이 신발도 그 장돌부가 만든건데 지금은 이렇게 견본품으로 보관하고있습니다.》

지배인은 덕대우에서 고무신을 내리워 그이께 드리였다.

《옥색고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고무신을 받아들며 나직이 뇌이시였다. 모양도 색도 유한것이 민족적색채가 엿보이였다.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색들중의 하나인 옥색,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밝은 미소가 어리시였다. 같은 값이면 검고 툇툇한 고무신보다 이런 옥색고무신을 우리 녀성들에게 신기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견본품으로 진렬대에 올려놨지 생산을

못하니 문제였다.

《생산을 더 올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지배인이 머리뒤통수를 긁적이며 힘들게 대답했다.

《제 책임이 큼니다. 현대 사정두 있습니다. 왜놈들이 달아나면서 파괴해놓은 설비들을 기술자, 기능공이 없어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기술자, 기능공?)

역시 아무데서나 요구되는것은 기술자, 기능공이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데려올 생각은 못하고 우에서 풀어주기만을 바라고있는것 같았다.

《아까 말한 장돌부란 기능공을 공장에 다시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요?》

지배인이 큰일이 난듯 펄쩍 뛰었다.

《아니, 그 사람은 절대 말을 안 들을겁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얼마전의 일인데 무용학교에서 흰고무신이 요구되어 장돌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용학교 선생은 장돌부가 만든 신발들을 보고 너무 멋있어 감탄하면서 왜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공장에 나가 일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다가 된 곤경을 쳤다질 않겠습니까. 장돌부가 글썽 얼굴이 킁킁해 가지고 내가 공장에서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며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더라는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막바우〉라는 별명을 달아주었겠습니까. 제 그래서 유치한 놀음이지만 로동자구찰대를 장마당에 내보내어 그가 만든 신발을 모조리 회수하는 방법으로라도 그의 마음을 돌려세워보자고 했는데 그 방법도 실통한것이 못되는가 봅니다.》

《그랬었군요.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말씀하시었다.

《지배인동무,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어떻게 밥을 먹듯이 쉽겠습니까. 장군님께서 발기하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일제놈들의 사상잔재와 낡은 습성을 반대하는 사상개조운동이 아닙니까. 그러니 장돌부란 사람을 잘 설복하여 공장에 꼭 나오도록 하는것은 장군님의 건국사상을 관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배인동무, 장돌부란 사람을 찾아가 잘 설복해 보십시오. 저도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보겠습니다.》

《예, 장돌부를요?!》

지배인은 놀라며 그이를 우러르다가 자책감에 그만 머리를 떨구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배인의 심정이 리해되시었다. 지배인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껏 공장에 나오길 반대하는 장돌부의 행동은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건국로선과 대치되는것이였다. 조국에 개선했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때 벌써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부강조국을 건설하자는 건국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해 오늘도 헌신의 길을 걷고계시지 않는가.

《장돌부... 장돌부...》

그이의 입가에서는 장돌부란 말이 거듭 새어나왔다.

3

공장을 벗어나자부터 미영이의 마음은 조밀조밀 해졌다. 녀사께서 또 어디로 가보자고 하실가보아 걱정이 앞선것이다. 오랜 시간을 장마당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지체하셨다. 건강에 류의하셔야 할 녀사께서 한몫 돌보시지 않으시니 미영이의 마음은 옥죄여들기만 했던것이였다.

《이젠 어서 돌아가시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영이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애뜻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미영이, 어쩔가. ... 난 아무래도 장돌부란 사람을 꼭 만나야 할텐데.》

순간 미영은 절망감으로 어깨가 축 처져내렸다.

《녀사님은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명화동지랑 투사동지들이 녀사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이렇게 일만 일이라고 하시면 전 어찌 됩니까, 예?》

간절하게 말씀올리는 미영이를 잠시 지켜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숙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미영이도 보았지요. 공장제품이 개인수공업자들이 만든것보다 질이 못한걸. 몸이 좀 불편하다고 앉아있으면 장군님의 건국로선관철이 그만큼 늦어져요. 이 김정숙이 있는 한 절대로 그렇게는 할수 없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지배인이 가리켜드린대로 장돌부가 살고있다는 가루개방향으로 걸음을 떼시었다. 미영이도 더는 어쩔수 없어 그이를 따라섰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지 중얼거린다.

《돌부처럼 꺾뚜 안한다는 그 사람이 꽤 말을 들을까요?》

김정숙동지의 마음도 무거우시었다. 세창고무공장 지배인이 가루개에 와서 《막바우》를 찾으시면 그 아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던 말이 상기되었기때문이었었다. 그이께서는 오금에 더 힘을 주며 생각하시었다. 오죽했으면 그에게 《막바우》라는 별호가 붙었으랴만 그도 인간일진대 아무렴 해방된 이 땅에 부강조국을 건설하자고 찾아

가는데 모른다 하라!...

《그도 분명 조선사람이겠지. 한번 찾아가 안되면 백번을 찾아가서라도 장돌부란 사람을 꼭 돌려세워야 해요.》

미영은 녀사를 우러르며 입술을 옥물었다.

그렇다, 장돌부가 설사 돌부처마냥 끄떡 안해도 녀사께서만은 그의 마음을 꼭 돌려세울것이라고 믿고싶었던것이었다.

가루개는 판자집들이 뺨꼭이 들어차있어 어디가 어딘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서시여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마침 등에 짐을 진 로인이 골목길에서 나왔다.

《로인님, 말씀 좀 물읍시다. 여기 신발 만드는 집이 어디에 있는가요?》

김정숙동지께서 로인앞에 다가서며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신발 만드는 집! 허 여긴 그런 집이 여럿인데 도대체 어느 집을 찾으시우?》

로인은 난처한듯 머리를 주억거리며 되물었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차마 《막바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시여 잠시 망설이시였다.

《이 아근에서 〈막바우〉 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던데요.》

미영이가 얼른 나서며 말했다.

《아하, 그 집을 찾으시우? 진작 그렇게 물었어야지요. 저기 둔덕우에 있는 집이웨다. 버드나무가 서있는 집.》

《어마!...》

미영은 가벼운 비명을 질렀다.

《로인님,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한 다음 미영이를 돌아보시였다.

《?...》

《저 버드나무집은 분명 옥이네 집인데...》

미영이가 아직도 굳어진 표정을 풀지 못한채 중얼거렸다.

《옥이라니?...》

《장마당에서 신발을 팔던 처녀 말이에요.》

김정숙동지께서 눈을 번쩍 뜨시였다.

《미영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제가... 며칠전에...》

미영은 그이께 자초지종 말씀올렸다.

...미영은 이미 장돌부를 만난적이 있었다. 아까 공장에서 지배인이 말하던 무용학교선생이 장돌부의 집에 찾아갔던 날 바로 미영이도 함께 동행했던것이다. 그때 무용학교에서 왔다는걸 알고 부러움에 찬 눈길로 미영이를 자꾸 훑쳐보던 옥이였었는데 아버지의 버락치는듯 하는 소리에 그가 얼마나 무안해하던지 그 모습이 아직도 가

슴을 알알하게 만든다. 그런 옥이를 장마당에서 다시 볼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미영이였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완고한 고집쟁이로 소문난 장돌부가 바로 옥이의 아버지라니 미영이로서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었다. ...

이야기를 마치고서 미영이는 한숨까지 《호-》하고 내뿔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문득 장마당에서 만났던 옥이가 하던 말이 생각나시였다.

《이 신발들은 모두 아버지가 집에서... 만든거예요.》

그러니까 옥이가 장돌부의 딸이었던 말인가? 희말쑥하고 동그스름한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머리속에 떠올리시며 그이께서는 사람들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다고 생각하시였다.

버드나무집은 가로개에서 보기도문 큰 집이였다. 한길이나 되는 울바자를 넓게 둘러친 대문밖에는 검고 푸르끄레한 녹이 쓴 동방울이 달려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열려진 대문안을 들여다보시니 마침 마당에 주인인듯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무엇을 수리하는지 탕! 탕! 망치질을 하고있었다. 마당 구석쪽에는 고무신을 찌내는듯 한 수동식고압가마를 걸어놓은 로가 있었다. 그 주변은 고무쪼각, 나무쪼각들로 지저분한것이 집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는것만 같으셨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손히 인사를 하시였다. 그러나 주인은 대답도 없이 제 일에만 극성이였다. 혹시 일하는 정신에 인사소리를 듣지 못했는가싶어 김정숙동지께서는 목소리를 조금 높이지였다.

《이 집이 신발을 만드는 집이 웬가요?》

그체서야 주인은 성가시다는듯 돌아보지도 않은채 석찮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신발을 사시려우?》

《저 그런게 아니라...》

《알만하우다. 난 도매장사를 위해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저 아래동네로 가보시우. 으음...》

한번 힐끔 일별하고나서는 망치질하던 물건을 들고 아예 집안으로 쑥 들어가버렸다.

《아니 저...》

말을 붙여볼새도 없었다. 너무도 인사불성인 그가 못마땅스러워 미영이의 얼굴이 붉어지다싶이 되였다. 당장 《지금 당신앞에 어떤분이 서계시는지 아는가.》고 집안에다 대고 큰소리를 치고싶은 심정이였다. 어디를 가나 삼도왜적들이 벌벌 떨었다는 빨찌산녀장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전설처럼 새겨져 생활과 미래를 락판케 했으며 희망에 넘쳐나게 했다. 그 빨찌산녀장수가 오늘에는 김일성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새조선을 위해 그렇게도 마음을 쓰고계신다는 소문

은 파다했다. 해방된 이듬해에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몸소 나오시여 인민들과 함께 손수 질통을 메고 흙을 나르시었다는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 녀장수를 먼발치에서라도 한번 보았으면 하는것이 일 루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하물며 그 빨찌산녀장수가 앞에 서계시는데야...

미영이가 더 참을수 없어 따끔하게 쏘아붙이려고 방문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미영이!》하고 김정숙동지께서 엄한 눈길로 불러세우시였다.

《마음을 다잡아요. 좀더 기다려보지요.》

미영이의 두눈에 그만 눈물이 핑— 돈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팔소매를 걷어올리시였다. 마당에 어지럽게 널려져있는 고무쪼각, 나무쪼각들을 따로따로 마당 한쪽에 모아놓으시고 일자로 넘어져있는 몽당마당비도 한쪽벽에 세워놓으시였다. 빨찌산때 붙은 습관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을 터시고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였다. 장돌부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하고 성격이 이지러졌다 해도 그에게 좋은 측면은 있어 보였다. 장돌부가 도매군들을 질시하는것만 보아도 그랬다. 이 아근에만도 도매치기하는 집들이 여러집 있는 모양이였다. 도매치기란 장사군들 중에서 가장 큰 장사군이라고 볼수 있었다. 그들은 물건을 헐값으로 사들이고는 소매군들에게 넘겨주어서 폭리를 얻고있었다. 장돌부가 바로 이런 도매군들을 멀리하면서도 공장소리만 하면 펄쩍 뿔다니 참으로 모를 일이였다.

《인차 날이 어두워지겠는데...》

미영이가 하늘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중얼거리였다.

이때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나더니 버들초리처럼 날쎄한 처녀가 마당에 들어섰다. 처녀는 우뚝 멈춰서서 이쪽을 잠시 보더니 두손을 모아쥐었다.

《어마나?!...》

그의 입에서 실낱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장마당에서 만났던 옥이동무가 아니예요?》

김정숙동지께서 그를 알아보고 기쁨을 터치시였다.

《예, 어떻게 우리 집엘 다?...》

옥이는 가름한 얼굴에 밝은 웃음을 담고 기뻐했다. 그러면서도 이따금 미영이를 슬금슬금 훑쳐보곤 한다.

《그러니 이 집이 옥이동무네 집이 맞았군요.》

《예, 그런데 무슨 일로...》

《아버지를 만나 의논할 일이 있어 왔어요.》

《그래요?! 그럼 잠깐 제서요. 아버지!》

옥이가 집안으로 성급히 들어갔다. 이어 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울리더니 잠시후에 처녀의 아

버지가 어깨를 움크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뒤를 따라선 옥이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아버지, 바로 이분이예요.》

옥이가 장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죄다 이야기한것 같았다. 장돌부는 멧적은 얼굴을 들며 말했다.

《아주머니, 인사불성인 이놈을 용서하시우. 세상에 귀인이 웬걸 있으랴 했소만 정말로 귀인이 있었소그려. 딸애를 도와주어 고맙소이다.》

김정숙동지께서 밝게 웃으시였다.

《옥이 아버지, 제가 무슨 귀인이겠어요. 응당 해야 할바를 한겁니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려는 그를 손잡아 만류하시며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어쨌든 아주머니가 아니였더라면 우리 옥이가 어떤 변을 당했는지 모르지요. 우리 집에 이렇게 아주머니같은 귀인이 찾아오기는 내 세상에 나서 처음이올시다. 자, 방이 루추하지만 안으로 어서 들어가십시오. 애 옥이야, 고마운분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드려야지.》

《예, 알겠어요.》

옥이의 복스러운 얼굴에 함박꽃같은 웃음이 남실거리였다.

《아니, 이러지 마세요. 옥이 아버지, 제 사실은 세창고무공장에 들렀다가 오는 길입니다.》

《?...》

장돌부의 몸가짐이 굳어지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저는 공장에서 옥이 아버지가 만든 옥색고무신을 보았습니다. 옥이 아버지의 그 훌륭한 기술이 새 나라를 위해 바쳐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생각했습니다.》

장돌부는 한숨을 지었다.

《그래서 나두 내 기술로 집에서나마 신발을 부지런히 만들지요.》

김정숙동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옥이 아버지진 이름난 기능공이니 집보다 공장에 더 필요할겁니다.》

《내가 공장에 필요하다구요?...》

장돌부의 눈썹주위가 모아지고 이마에 굵은 주름이 가로질러갔다.

《아주머니, 이거 안됐소만 그 말씀만은 거두어주시우. 내겐 천만부당한 말씀이오다.》

장돌부가 잠시 입귀를 실룩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난 그 공장엔 이미 침을 뱉고 돌아선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세창공장결을 지나야 할 일이 생기면 눈썹이 시러서 멀리로 에돌아가겠소. 그 공장은 내겐 원쑤처럼 보인단 말이오다. 어이구, 어허...》

수심이 짙어진 옥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오른다.

《아버지!》

《옥이야!》

감정이 격해져 불편을 떨던 장돌부가 그만 옥이를 으스러지게 꺾었다.

《다시는 공장소리를 마시우. ... 옥이야, 우린 그만 들어가자.》

《?!》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서늘해지시어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었다. 장돌부가 넉두리마냥 토설하는걸 들어보면 필경 세창고무공장에 대한 한이 보통 크지 않은것 같았다.

장돌부가 옥이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거운 마음을 지그시 누르며 마당 한가운데 오래도록 서계시었다.

4

이튿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영이를 세창고무공장으로 다시 보내시었다. 오랜 노동자들을 만나보면 장돌부와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였기때문이었다.

미영은 자기의 수고로 비로소 녀사께서 잠시나마 휴식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무척 기뻐하며 아침일찍 집을 나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영이가 떠난 후에 인츰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일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시안의 녀맹조직들에 나가 제기된 문제를 놓고 토론도 하셔야 했고 개교식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조건에서 학교비품문제도 알아보셔야 했다. 일감은 너무도 많으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지런히 움직이시어 오전중에 계획했던 일들을 깨끗이 마무리하시었다. 시간이 퍼그나 지나서 저택으로 오니 세창고무공장에 나갔던 미영이가 마중하며 달려나왔다.

《녀사님은 저와의 약속을 또 어기셨어요.》

《미안해요. 방안에만 불박혀있자니 갑갑증이 나서 어디 견디겠더라우요. 그래서 바람을 좀 쏘였더니 몸이 한결 거뜨해졌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미영이의 마음을 농쳐주시었다. 미영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즈녁이 고여올랐다. 따뜻한 눈길로 미영이를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께서도 마음이 후터워지시었다.

《미영이, 우린 먼저 장군님을 생각하자요. ... 간고한 항일전의 그날에는 조국을 해방하면 마음껏 쉬여보자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어요. 하지만 오늘에는 또 인민의 새 나라를 일떠세우고 조국이 완전독립을 성취한 다음에 푹 쉬자고 하시면서 온 나라 방방곡곡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계세요. 그런데 장군님의 전사인 내가 어떻게 편안히

앉아있겠어요. 이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난대도 장군님의 일손을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릴수만 있다면 난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어요. 내겐 이게 제일 만족한 휴식이에요.》

《녀사님!》

미영은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렀다. 장군님의 기쁨속에 정녕 자신의 행복과 휴식을 찾으시는 녀사이시었다.

장군님의 전사!

그래서 녀사께서는 바쁘시다. 녀사께서는 휴식을 모르신다. 녀사의 휴식은 진정 일속에 있다.

미영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녀사님의 그 마음을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점점 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윽한 눈길로 미영이를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시었다.

《너무 걱정말아요. 일이 잘되면 내 병은 절로 나아요.》

《녀사님!》

미영은 그만에야 녀사의 품에 조용히 안기었다.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알아왔어요.》

김정숙동지의 물으심에 미영은 차근차근 대답을 했다.

《옥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창고무공장 초창기부터 그곳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

...세창고무공장에서 일하는 장돌부와 옥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춤을 뛰어나게 잘 추는 어린 딸에게 신발 한켠레도 제대로 신기지 못하는 것을 두고 속을 썩여왔었다. 신발 만드는데서 귀신같다는 장돌부였지만 왜놈세상에서는 제 딸의 신발 한켠레도 마음대로 만들어 신길수가 없었다. 딸은 키가 미출하게 크면서 곱게 번져가는데 그런 딸을 볼 때면 부모들은 속이 더 상했다. 남들이 신다 버린 고무신을 주어다가 뽕질을 하고 덧기워 옥이에게 신길 때면 가슴이 쓰려와 장돌부와 그의 안해는 눈물과 한숨으로 가난을 탓하였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옥이 어머니는 뜻밖에도 신발 한켠레를 얻게 되었다. 그 신발로 말하면 오작품신발이었었는데 그냥 버리기보다는 본전도 뽑고 인심도 살겸 해서 공장의 몇몇 사람들에게 겨만 팔아준것이였다. 그때 그 신발을 산 한 노동자가 춤을 잘 추는 어린 옥이를 생각해서 본값보다 더 눅게 옥이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었다. 말그대로 오작품이여서 모양도 질도 한심했지만 그래도 색고무신이여서 옥이가 좋아하리라는 한가지 생각에 그저 기쁘기만 하였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기다릴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때였다. 공장정문을 나서던 옥이 어머니는 공장주가 찾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언제나 공장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파업투쟁에 앞

장서군 하는 옥이 어머니를 눈에 박힌 가시처럼 여기던 공장주는 고무신을 가지고 가는것을 보자 마침한 기회라고 보고 불러세웠던것이다. 그리고는 무작정 웬 고무신이나고 트집을 걸었다. 옥이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은 속심을 가진 공장주는 그 말엔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자의 세모진 눈에서는 음험한 빛이 번쩍거려였다.

《도적년!》

옥이 어머니가 그런것이 아니라고 당당하니 대들자 놈은 성이 독같이 나서 감독들을 시켜 옥이 어머니에게 못매를 안기도록 했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그날로 공장에서 해고해버리었다.

옥이 어머니는 매맞은 아픔보다 오작품신발 한켠레만도 못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서럽고 한스러워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다. 그날부터 옥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보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는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눈을 감았다.

《엄마야, 죽지 말라! 다신 신발소릴 안할래.》

이미 숨이 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며 터뜨리는 옥이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꺾꺾 숨넘어가는듯 한 장돌부의 호곡소리는 이웃집들의 판자벽들을 처절하게 울려놓아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생떼같은 안해를 오작품신발 한켠레때문에 잃은 장돌부는 더는 참을수 없어 공장주놈에게 달려들었다.

네놈도 죽어봐라!—

시퍼런 불줄기를 눈에서 뿜어대며 사생결단하고 나선 장돌부는 공장주놈을 단매에 쓰러뜨리고 발로 문질러댔다. 공장주를 때린 장돌부가 편안할수 없었다. 왜놈경찰놈들은 장돌부에게 공장주를 때린것은 백번 잘못된 일이니 작업장마다 다니며 자기의 잘못을 빌어야 한다고 했다. 장돌부는 응하지 않았다. 놈들은 장돌부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차고 밟고 때리었다. 너무 맞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툭툭 부어올랐으나 장돌부는 머리를 수그리지 않았다. 교활한 놈들은 장돌부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이번 기회를 노동자들의 항거정신을 억누르기 위한데 써먹으려고 하였다.

《자, 보라! 아무리 기능이 높아도 우리한테 반항하면 이 장돌부처럼 된다.》라고 떠벌이면서 이미 너무 맞아 녹초가 되어 쓰러진 장돌부를 죽은 짐승마냥 이 작업장에서 저 작업장으로 질질 끌고 다니었다.

장돌부는 억울했다. 죽고싶기도 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생떼같은 안해를 죽게 만든 공장주놈을 때린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아 이놈의 공장, 콕 망해라, 망해!— 장돌부의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돌부가 끝내 제

놈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왜놈들은 그를 경찰서 류치장에 처넣었다. 오래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나온 장돌부는 다시는 공장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는 신발 한켠레에 맺힌 한을 도저히 풀수 없어 화술을 자주 마시곤 했었는데 그때면 어린 옥이를 부어잡고 울분에 찬 녀두리를 오래오래 하곤 했다.

《아, 고무신 한짝만도 못한 신세에 공장은 무슨 공장이야. 우리같은 버려지인생은 세상꼴 안보는것이 제일이지. 어허이구, 내가 살아 성을 바꾸기 전에는 죽어도 공장에 안 나간다, 안 나가!—》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장돌부는 세창고무공장과 담을 쌓고 살아왔다. 그 누가 공장소리를 꺼내기만 하면 자연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돌부를 가리켜 장《막바우》라고 부르곤 했다.

어머니를 잃은 다음부터 옥이는 아버지 하나만을 하늘처럼 믿고 살게 되었다. 하기에 마음에도 없는 일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가 만든 고무신을 장에 내다파는 일을 스스로 받아안았던것이였다.

...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미영이의 말을 다 듣고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시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에는 누구나 옥이네 가정처럼 수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 세상이 되풀이되어선 안돼요. 우리 옥이 아버지를 잘 도와주어요.》

《예.》

미영은 힘있게 대답하며 녀사의 두손을 꼭 품어안았다.

5

장돌부는 어제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옥이에게서 들은 장마당에서 있었던 일과 어제 저녁 집에 찾아와 하던 녀인의 말마디들을 새겨볼수록 자기가 너무도 덜통스럽게 대해서 돌려보낸것만 같아 어쩐지 미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옥이도 고마운 녀인을 그냥 돌아가게 했다고 섭섭해서 나무람했었다. 장돌부는 때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옅지른 물사발이나 같았다.

마당에 널려있는 고무쪼각과 나무쪼각들을 한곳에 거두어놓던 녀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다 진정이 엿보였었다. 비록 수수한 치마저고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었지만 그 녀인에게서는 보통녀인들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다.

그 녀인은 누구일까? 장돌부는 이런 생각으로 온밤 새우다싶이 했던것이다.

아침이였다.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장형 있소?》

《…》

밖에서 주춤거리듯 하더니 인츰 방문이 열렸다. 뜻밖에도 이전에 집에 몇번 찾아왔던적이 있어 낮이나 있는 세창고무공장 지배인이 얼굴을 쑥 들이밀었다.

《있었구려. 헌데 어디가 아프시우?》

《…》

장돌부는 묵묵부답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지배인은 방안에 들어와 그와 마주앉았다.

《해방이 된지 언제인데 그냥 이런 어둡시그레한 방에 박혀만 있겠소?》

《흥, 남이야 어떻든 거기선 무슨 상관이요?》

장돌부가 얼굴을 찡그리며 툭 내쏘았다.

《장형도 눈을 바로 떠야 할게 아니겠소. 시국이 어떻게 달라져가가는가를 보란 말이우다.》

《…》

장돌부는 덤덤해가지고 입만 다시였다.

지배인은 들고온 가방에서 종이에 싸 작은 꾸레미를 꺼내들었다.

《이걸 좀 보시우. 낮이 익지 않소?》

종이를 펼쳐놓으니 옥색고무신이 나졌다.

《?!》

장돌부의 눈이 등그래졌다. 지배인이 병글거리며 그의 앞에 바투 다가앉았다.

《장형도 이미 들어서 잘 알겠지요. 삼도왜적들이 벌벌 떨었다는 백두산녀장수분 말이요. 아, 거 왜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몸소 나오시여 술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셨다는 김정숙녀사분 말이요.》

《?…》

《바로 그 녀사분께서 어제 글썄 우리 공장에 몸소 오시여서 바로 이 옥색고무신을 보아주시고 장형의 재간을 높이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이런 색고무신을 많이 만들어서 집의 옥이 같은 처녀랑 우리 녀성들에게 신기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면서 장형을 친히 만나보시겠다고까지 하시었습니다.》

《뭐… 뭐라구요?!》

장돌부는 눈을 번쩍 떴다.

백두산녀장수께서 나를 만나주신단 말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장돌부는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그렇게 한동안 눈만 슴벅거리던 장돌부의 눈앞에는 문득 어제 저녁녘에 만나본 녀인의 준수한 모습이 떠올랐다.

《옥이 아버지, 제 사실은 세창고무공장에 들렀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럼 그 녀인이?...

장돌부는 인차 머리를 세판게 흔들었다. 믿을수가 없었다. 백두산녀장수께서 어떻게 수수한 치마저고리에다 그것두 검정고무신을 신을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아니야... 절대로 아니다. ...)

장돌부는 마음속으로 거듭 부정했다.

지배인이 돌아간 다음에도 오래동안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던 장돌부는 끝내 자리를 차고 일어나고야말았다. 창고에서 수리해야 할 낡은 신발기계를 끌어내왔다. 장돌부는 《탕, 탕...》 기계에다 망치질을 해댔다. 하지만 싱숭생숭한게 도저히 일자리가 나질 않았다.

장돌부는 얼빠진 사람처럼 이따금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망치를 휘둘러대곤 했는데 그만에야 제 손가락을 내리쳤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살이 터져 빨간 선지피가 내뿜었다. 손이 저려났으나 장돌부는 얼굴만 찡그릴뿐이었다.

이때였다.

《옥이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는 귀에 익은 무척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순간 자기가 몹시 기다려온 목소리였다는 생각에서인지 손가락의 아픔은 은연중에 가뭇없이 사라지었다. 대신 반가움과 기쁨이 절로 우러나와 가슴을 후두둑 뛰게 했다.

장돌부는 고개를 번쩍 들고 돌아보았다. 어제 왔던 녀인이 환한 미소를 짓고 서있었다. 이상한 것은 녀인의 환한 웃음에 마당이 온통 해살을 받은 것처럼 환해보이는것이였다. 꿈이 아닌가 하여 눈을 슴벅여보는 장돌부였으나 분명히 늘 침침했던 마당이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것이였다.

《아니, 어찌다...》

어느새 장돌부의 손가락에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것을 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급히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드시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으시여 무릅없이 그의 손을 감싸주시였다.

《아, 그 귀한 수건을 이런 험한 손엘 다...》

장돌부가 천만뜻밖의 일에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일없습니다. 수건 한개가 뭐라고, 옥이 아버지의 귀한 손에 비기겠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친 손가락을 꼼꼼히 감싸쥐고 한동안 장돌부의 손을 놓지 않으시였다. 상처 자리가 자욱한 장돌부의 손은 너무나도 투박하고 터슬터슬했다.

《손을 보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녕 가슴이 아프시여 그의 손을 쓰다듬어주시였다.

《?!...》

장돌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위안을 받아보는 그였다. 그러자 왜 그런지 이 자리에서 가슴을 탁 터쳐놓고 하소연도 하고싶고 서리서리 엉켰던 눈물을 마음껏 쏟아놓고싶어 두눈을 슴벅이였다.

《어떻게 우리 집엘 또 오시였습니까?》

장돌부가 엉거주춤 일어서며 물었다.

《옥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보고싶어 왔습니다.》

《예?!》

《옥이 아버지의 그 좋은 기술로 만든 고운 신발들을 온 나라 아이들에게 신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뭘라고요? 온 나라 아이들에게요?》

《예, 그러면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

한 가정의 아이도 아니고 온 나라 아이들의 신발문제를 놓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이 녀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장돌부는 문득 아침에 지배인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백두산녀장수께서... 장형이 만든 이 옥색고무신을 보아주시고... 높이 치하해주시었수다.》

이 녀인이 설마?!...

장돌부는 한참 생각을 복잡하게 굴리다가 기연가미연가 하는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부인님은 뉘신데 이렇게까지...》

김정숙동지께서 밝게 웃으시었다.

《인사가 늦어 미안합니다. 제 김정숙입니다.》

장돌부가 화들짝 놀라며 두눈을 크게 떴다.

《아니, 그럼 백두산녀장수가 분명 아...》

장돌부가 머리를 감싸쥐더니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버리었다. 그러더니 수그린 머리를 주억거리며 용서를 빌었다.

《불초한 이놈을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글썽 망녕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녀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의 부녀를 위해 이렇게 저의 집을 두 번다시 찾아주셨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소이다. 어제 일은 정녕 다 잊어주시고 늦게나마 저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옥이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십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돌부의 팔을 잡아 일으켜주시었다. 장돌부의 주름진 얼굴에 감격스러움이 넘쳐흘렀다. 어둡고 칙칙하던 이 집에 해빛이 비쳐들었으니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 어데 있을고.

장돌부가 집안쪽에 대고 소리쳤다.

《애, 옥이야!》

방문이 열리더니 옥이가 나왔다. 그도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있었는지 눈시울이 젖어있었다.

《뭘하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것처럼 전설처럼 외우며 늘 뵈고싶어하던 백두산의 녀장수이시다. 어서 인사를 올려라.》

옥이가 두눈에 눈물을 함초롬히 머금고 발뼉발뼉 다가왔다.

《녀사님!》

《옥이야.》

옥이가 김정숙동지의 넓은 품에 안겨들며 어깨를 들먹였다. 장돌부도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 않고 녀사를 우러르고 섰다.

《옥이 아버지, 전 옥이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옥이 아버지가 왜놈들에게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그래서 오늘까지도 공장소리만 하면 싫어한다는것도 다 압니다. 그동안 어린 옥이를 데리고 살아오느라 고생인들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제 손으로 만든 고무신 한켠레 신겨볼수 없었던 지난날의 가슴아픈 사연을 듣고 전...》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미여져오시여 더 말쑼을 잊지 못하시었다.

장돌부가 눈굽을 훔치며 말했다.

《녀사님, 저 옥이만 아니였다라면 난 그때 벌써 목숨을 내 손으로 열번도 더 끊었을겁니다. 저 때문에 지금껏 죽지 못해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 고무신 한켠레가 뭐라고 생사람을 글썽...》

《그건 다 나라가 없었기때문입니다. 김정숙장군님께서 일제놈들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장돌부가 연신 고개를 주억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돌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듯 계속 말씀하시었다.

《지금 대중소비품이 부족합니다. 특히 신발이 더 합니다. 왜놈들이 달아나면서 설비들을 파괴해놓다보니 신발생산을 원만히 못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전 그것이 마음에 걸려 옥이 아버지를 찾아온것입니다.》

장돌부의 가슴에 뜨거운것이 그들먹 차올랐다. (아, 녀사님은 정녕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고계시는 위대한분이시구나.)

《아버지.》

장돌부를 바라보는 옥이의 눈에 간절한 빛이 어렸다.

《오냐, 오냐...》

장돌부가 눈물진 얼굴을 손으로 훔치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옥이 아버지, 이제는 그 좋은 기술을 새 나라를 위해 바쳐야지요?》

《예, 예.》

장돌부가 머리를 썩썩 굽었다.

《녀사님, 내가 생각이 짧았던것 같습니다. 그 저 공장이 보기 싫다고 담을 쌓고 살면서 개인수공업에서 <재미>를 보다나니 나라도 모르는 속물이 되였는가 봅니다. 하지만 녀사님, 제 늦게나마 새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해보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동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어리시였다.

옥이도 아버지의 변화에 몹시 감동이 된듯 방실 웃고만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녀를 보시며 다시 말씀하시였다.

《옥이 아버지, 옥이를 무용학교에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니 이런... 우리 옥이를 무용학교에까지요?》

장돌부는 너무 뜻밖이어서 몸둘바를 몰라 허둥거리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렇게도 좋아하던 춤을 짝 잊어버리듯 하고 살아온 딸이었었다. 그런데 오늘 녀사께서 딸애의 마음속 소원을 헤아려 무용학교에까지 보내시자고 하니 장돌부의 두눈엔 감격의 눈물이 고여올랐다.

《미영이, 옥이와 함께 무용학교에 다니는게 어때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감동에 젖어있는 미영이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영이가 얼른 옥이에게 다가가 그의 두손을 잡고 발썩 웃자 옥이도 마주보며 곱게 웃었다.

《녀사님, 정말 고맙소이다.》

장돌부가 너무나도 황송해서 인사를 다시 올렸다.

이번에는 옥이가 김정숙동지께로 다가섰다.

《녀사님!》

《옥이야!》

옥이가 와락 녀사의 품에 안겼다. 미영은 크나큰 행복에 젖어있는 옥이를 품에 안고계시는 녀사의 기쁨에 넘친 모습을 우러렸다. 한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옥이를 꼭 포옹해주시는 녀사의 품은 저 푸른 하늘보다 더 넓다고 생각했다.

(아, 녀사님! 어제는 내가 녀사님의 품에 안겼고 오늘은 저 옥이가 녀사님의 넓은 품에 안겼다. 아니, 장돌부와 온 나라 인민이 그이의 넓은 품에 저렇게 안기고있는것이다.)

미영이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

그로부터 얼마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그해 신발생산은 전해에 비해 두배로 쟁쟁 뛰여올랐다.

다음해 7월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동강기슭에 있는 무용학교를 찾아주시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대표들을 만나주시고 그준비정형을 료해하시다가 처녀들에게는 조선치마저고리에다 옥색고무신을 신기면 멋있을거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면서 몸소 세창고무공장에 전화를 거시여 옥색고무신생산문제를 토의해주시였다.

세창고무공장에서는 녀사의 뜻을 받들어 장돌부와 로동자들이 힘을 합쳐 맵시있고 색깔고운 30컬레의 옥색고무신을 생산하여 김정숙동지께 정히 드리였다.

무용학교에서 공부하고있던 옥이와 미영이도 녀사께서 안겨주신 옥색고무신을 신고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장돌부와 술한 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행사참가를 위해 광활한 하늘공간을 날으는 비행기안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우리 녀성들이 조선치마저고리에 빨간 꽃무늬를 그려넣은 옥색고무신을 신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가고있었다.

가 사

나는야 뵈웠어요

최 순 철

나는야 뵈웠어요 그립던 우리 장군님
병사들을 위한 날 꿈같이 뵈웠어요
소박한 군관안해 내 정성 헤아리시며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뵈웠어요
아 나는야 뵈웠어요

나는야 몰랐어요 찬물에 젖은 이 손을
아버지 우리 장군님 따뜻이 잡아주실줄
다정히 곁에 불러 사진도 찍어주실 때

안겨준 그 사랑 너무 고마워 두볼을 적셨어요
아 두볼을 적셨어요

나는야 알았어요 병사들을 위한 날이
아버지장군님뜻 꽃피우는 날인줄을
가슴에 넘쳐나는 오늘의 이 행복안고
장군님 아끼는 병사들 위해 바쳐갈래요
아 내 한생 바쳐갈래요

사 연 깊 은 시 계 앞 에 서

김 창 호

바라보면
태양의 빛발 한뫼에 지니신
친위전사 김정숙어머님의 자애로운 미소인듯
그 광채 유난하고

귀기울이면
언제나 결사옹위의 첫자리에서 높뛰던
백두산녀장군의 박동처럼
초침소리 금시 울려오는듯싶은
조선혁명박물관의 어머님의 시계

아, 어머님의 체온으로 아직도 뜨겁고
어머님의 미소어려 빛발도 찬란하구나
반세기도 넘는 기나긴 세월
누구나의 가슴속에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을 만태엽해주는 시계여

민족의 태양을 받들어
미래의 태양을 안아올린
빨찌산의 녀장군 장손며느리에게 안겨준
만경대할머님의 그 정성 전하는가

한생의 한순간도
교대없는 친위전사의 그 위치에 서신

어머님의 불멸의 위업 순간순간 전해주는
시계의 초침소리여

어려온다
이 초침소리에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을 맞추며
꿈에도 그리운 고향땅도 찾지 않으시고
금강산탐승길도 오르지 않으신 어머님

황철의 해탄로며 용해장에서도
긴등벌의 이름없는 포전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떠밀어주시며
혁명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시였거니

아, 언제나 시간들
수령결사옹위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순간을 하루로 하루를 백날처럼 사신
어머님의 한생이 만태엽된 시계

이 시계 가슴에 안고
이 초침소리 심장의 박동으로 삼을 때
내 삶의 순간순간은 값높은 삶으로 빛나리
장군님 정해주신 강성대국건설의 시간표속에
나의 삶은 조국이 기억해주리

가 사

어 머 니 조 국 아

럼 형 미

태어난 그날부터 백발이 되도록
부르고 불러도 다함없는 그 이름
아, 어머니 어머니란 그 말밖에
조국아 너를 달리 어떻게 부르랴

잘나도 못나도 한뫼에 끼안아
행복의 젖줄기만 물려주는 그 사랑
아, 어머니 어머니의 그 품밖에
조국아 너를 달리 어디에 비기랴

심장이 멎는대도 바꿀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 귀중한 그 모습
아, 어머니 어머니라 부르며
조국아 너를 위해 한목숨 바치리

가 사

들 쪽 따는 처 녀 들

박 세 절

벌방에만 과일풍년 향기가 넘치나요
백두천리 들쪽풍년 노래도 신명나요
에헤용 고원에 흐르는 흥겨운 노래소리
처녀들 일숨씨 춤가락 절로 나오

허항령 넘어서는 답사대원동무들
감미로운 들쪽맛 잠간 쉬며 보고 가요
에헤용 붉은기 답사대오 손저어 바래주며
들쪽따는 처녀들 다시 오라 약속해요

한바구니 두바구니 산더미로 솟는 들쪽
공장가면 온 나라에 행복을 꽃피워주리
에헤용 투사들 자욱우에 무르익은 열매
천리고원 들쪽바다 백두산의 특산일세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은 사랑과 헌신의 자욱에 대한 역사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번영의 시대》에 대하여—

장 희 숙

강성대국건설의 거세찬 폭풍이 휘몰아치고있는 우리 조국이다. 총포성없는 이 대전에서 승리하여 주체101(2012)년에는 사랑하는 조국땅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려고 총돌격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흘러간 력사의 한 페이지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장편소설이 또 안겨졌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번영의 시대》(백보흠 작)이다!

번영의 시대!

얼마나 가슴설레이게 하는 말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번영의 새 령마루—강성대국을 향하여 줄달음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기에 《번영의 시대》라는 제명부터 무심히 보지 못한다.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군대와 인민들이 번영의 시대라고 일컫는 주체36(1947)~주체38(1949)년의 시대적의미는 무엇인가?

한없는 감회와 추억의 물결을 안고 장편소설의 페이지를 번질수록 우리는 흘러간 력사의 갈피갈피에서 울려나오는 뜨거운 진실에 대하여 가슴후덥게 받아안게 된다.

시대의 메아리로 울리는 력사의 진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번영의 시대》는 무엇보다 주체36(1947)~주체38(1949)년의 력사적시대가 가지는 본질적의미—렋사의 진실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화폭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력사에 실지 있는 수령을 직접 형상하기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철저히 력사적사실에 맞게 하여야 한다.》

주체36(1947)~주체38(1949)년은 우리 조국력사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민주주의혁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행복하고 보람찬 시기로 아로 새겨져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꿈꾸어오면서 이룩할 수 없었던 번영의 새시대를 해방이 된지 불과 2~3년여간에 열어놓았으니 기성의 경제학적관념

으로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기적중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그 무엇이 이러한 기적을 가져왔는가.

일제의 폭압에서 해방된 인민들의 기쁨과 충천한 기세가 폭발적인 힘으로 분출하여 가져온 기적이었던가. 물론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장편소설은 렋사의 진실은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무게있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에 형상되어있듯이 일제가 모든것을 무참히 파괴하고 달아난 해방직후여서 나라는 그야말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해방의 기쁨은 컸으나 인민들앞에 들어닥친것은 무서운 생활난이었다.

숨죽은 공장, 불꺼진 도시, 한알의 강냉이가 그리운 무서운 기아와 병마, 복잡한 정치정세하에서 저마다 피대를 돌구는 《정치인》들의 연설사태…

소문없이 조국에 개선하시여 이를 낮, 이를 밤을 보내신 우리 수령님앞에는 바로 이러한 참담한 조국의 현실이 펼쳐져있었다.

무엇부터 풀어야 할것인가?

서기산기슭의 수수한 집에서 밤을 새우시며 해방된 조국이 나아갈 진로를 밝히시는 우리 수령님의 뇌리에서 시종일관 사라질줄 모르는 문제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그이께서 하셔야 할 일은 많았으나 그 많은 일들중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당하는 곤난을 그 무엇보다 큰 문제로 보신다.

우선 사람은 먹어야 하는것이다.

평양에 오시여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젓갈장사녀인의 유정한 싸구려소리와 불빛 한점 없는 동평양 시가지의 어둠을 보시며 그이는 인민들이 겪고있는 생활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이께서는 현지도의 걸음을 바로 서선전기회사와 평양곡산공장으로 옮기시는것이다.

굶주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풀기 위한 경제부흥의 첫 고리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기와 먹는 문제로 보신것이였다.

전기회사로동자들앞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절절하게 말씀하신다.

《여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먹는것을 〈천지천〉 즉 하늘의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

면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백성을 하늘이라고 하고 어진 백성들은 먹는것을 하늘이라고 했기때문에 결국 먹는것이 하늘의 하늘로 된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생활에서 먹는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늘의 하늘> 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곡산공장은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같이 사람이 먹는 엿, 사탕, 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전기회사는 산업의 식량을 생산하는 기업소이기때문입니다. 사람이 먹는것을 생산하는 곡산공장도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는 산업의 식량, 산업의 원동력, 하늘의 하늘입니다.》

우리 수령님의 통속적인 이 말쑥에 바로 인민생활을 푸는데서 수령님께서 무엇을 기본고리로 보시였는가 하는 문제가 집약되어있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바로 이러한 인민적인 견지에서 인민생활의 기본 해결책을 명확히 세우실수 있었던것이다.

전기와 쌀문제를 기본고리로 틀어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재적인 경제적인안목과 예지로 인민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신다.

수풍발전소의 만부하, 토지개혁의 실시, 철도부문에서 김희일운동의 발기, 사동탄광, 홍남비료공장, 황해제철소의 복구...

이 모든것들은 인민경제의 주요부문들이 일대활성기에 들어갈수 있도록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룩된 기적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한걸음 더 나아가 주체36(1947)년 1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시여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을 이룩하시였으며 국영상품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이시였다. 뿐만 아니라 주체36(1947)년 12월에는 드디어 하나의 혁명으로 되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자주적인 재정금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튼튼한 기초위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해방직후의 암담한 생활고에서 일시에 벗어나 나라의 새돈으로 국가에서 낮은 값으로 팔아주는 식량과 상품들을 한아름씩 사들고 밝은 집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다시말하여 인간생활의 필수불가결의 요구조건들인 쌀, 옷, 집, 학교, 병원에 대한 인민들의 세기적인 숙원이 이룩되었던것이다.

이런 기적이 바로 2~3년이라는 너무도 짧은 기간에 일어난것이다.

너무도 놀라운 현실앞에서 이름난 경제학자 김광진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경제적인안목과

예지에 경이감을 금치 못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친다.

(저처럼 위대한분이 나라의 경제를 지도하고 계시니 됐다, 됐어! 이제는 됐어!)

이것은 그 하나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터친 경모의 환호성, 심장의 웨침이었다.

장편소설에서는 바로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상한 경제적인안목과 천재적인 예지가 바로 단시일내에 이 땅에 변영의 시대를 열어놓았다는 력사의 진리를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장편소설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도의 자옥자옥우에서 변영의 시대가 꽃피었다는 력사의 진실을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독자들은 공장과 농촌, 탄광과 발전소, 어촌과 산간벽지 등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빠짐없이 찾으시며 현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신의 자옥을 후덥게 받아안게 된다.

《**김일성**부대 정치위원 김영환》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평양에 조용히 입성하신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이께서는 서선전기회사에 대한 현지도로부터 시작하시여 주체38(1949)년 9월 21일의 그 잊을수 없는 날까지 어느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신다.

주체35(1946)년 한해동안에 그이께서 걸으신 로정이 지구의 둘레를 한바퀴 돈것보다 더 먼 길이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숙연해지는것이다.

장편소설에는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의 로정이 력사적사실 그대로 생동하게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선전기회사 노동자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전기문제를 토의하시였고 평양곡산공장에 가시여서는 악취나는 작업장까지 몸소 들어가시여 노동자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시고 공장을 되살려내도록 그들을 불러일으킨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현지도길은 수풍발전소와 정주기관구에도, 황해제철소에도 그리고 모내기가 한창인 미림벌과 보통강개수공사장 지어는 레배당에까지 이어져있었으니 참으로 수령님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란 없었다. 이러한 현지도길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였으며 그들의 건국열의를 불러일으키시였다. 이 현지도길우에서 그이께서는 경제를 빠른 시일안에 부흥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인민들을 자주적인 인민으로 키우시여 실질적인 나라의 주인, 생산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길임을 통찰

하시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거세찬 불길을 지퍼 주신다. 하여 인민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이 최대로 폭발하였던것이다.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된 경제적변혁의 밑바탕에는 바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무서운 힘으로 일떠선 인민들의 거세찬 건국열의와 창발성이 놓여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 수령님의 현지도가 안아온 거대한 기적이었던것이다.

이런 형상을 통하여 장편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 헌신으로 충만된 현지도의 길에서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장편소설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진 현지도의 자욱자욱에 드리는 송가라고 할수 있다.

인민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을 주시여 력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물질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여주시는것 이상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 위대한 믿음이 또 어데 있겠는가.

번영의 시대는 바로 인민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 헌신의 령도자욱우에서 꽃피난 위대한 현실이었다.

이처럼 장편소설에서는 당시의 력사적사실에 대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시대의 창조자는 수령이며 주체36(1947)~주체38(1949)년의 번영의 시대는 우리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현실이었다는 력사의 진리를 무게있게 확증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번영의 시대가 메아리처럼 울려주는 력사의 진실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작품에서 내세운 이러한 형상적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구성형식을 탐구하고있다.

이 장편소설의 특징은 일정한 시대의 경제부흥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포괄하고있기에 생활반영범위가 대단히 넓고 다양한것이다.

인민경제분야는 얼마나 많은 부문을 포괄하고있는것인가.

전기, 석탄, 광물, 철도, 농업, 선박... 참으로 다양하다.

한마디로 작품의 생활영역은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며 한 시대인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활분야와 그에 따르는 인물들이 형상권안에 들어와야 하겠는가.

참으로 아름다운 파제가 아닐수 없다. 하지만 작품은 소설작품으로서의 풍격이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그것은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이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선에 복종되면서 작품의 종자해명에 일정한 몫을 가지고 합류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장편소설은 총서작품의 구

성면에서 일정한 시사를 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인간, 위대한 생활에 대한 경모의 서사시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번영의 시대》에는 미국의 녀류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이 북반부를 방문하여 여러곳을 돌아보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후 기자회견석상에서 자기의 인상담을 피력하는 장면이 인상깊게 형상되어 있다.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주로 국가수반급 인물들과 단독면담을 많이 하는 로련하고 관록있는 녀류기자로 알려진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다.

《저는 오늘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은 첫순간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영채로 빛나는 안광, 만면에 흐르는 인애깊은 밝은 미소를 보고 저는 대뜸 그이는 희세의 영웅이며 세계적인 위인이시라는것을 깊이 느낄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은 정말 가을의 찬서리도 순간에 녹이는 햇빛과도 같은 정열적인분이시며 령롱한 달밤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것과 같은 부드러운분이십니다.

저는 당신들이 왜 장군님, 장군님 하면서 그이를 높이 존경하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도 조선사람처럼 그이를 김일성장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상에 매혹된 서방기자의 솔직한 고백이라 할수 있다.

장편소설에는 또한 미중앙정보국에서 품을 들어 키운 고용간첩 김춘선이 자살직전에 남긴 유서의 한토막도 실려있다.

김춘선은 철저한 반공숭미분자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북반부로 파견된 국제간첩이다.

그는 《예수의 계시문》을 조작하여 민주선거를 파탄시키려 하였고 《전기도용사건》을 일으켜 북조선을 암흑천지로 만들려고 날뛰었다. 새 조선의 경제건설을 파탄시키려는 기계파괴, 창고방화, 허위적인 반동요언의 막뒤에는 언제나 이놈이 서있었다. 이러한 극반동분자인 김춘선도 날로 달라지는 북반부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실시하시는 인민적정치에 대한 경이감으로 하여 사상적인 파동을 일으키며 마음이 흔들리는것이다. 그는 자기의 유서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인간의 노래》와도 같은것이라고 격찬한다.

서방식 《민주주의》와 사고방식에 물젖은 미

국기자도 지어는 우리 제도를 뒤집어엎으려고 날뛰던 고용간첩조차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경모의 감정을 토로케 하는 우리 수령님이시고 우리 수령님의 정치이시였다!

장편소설 《변영의 시대》에서는 바로 우리 수령님의 이러한 위인적품모와 위대한 생활의 참의미에 대하여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장편소설에 형상되어있듯이 이민위천의 위대한 사상은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품모에서 근본을 이루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하늘로 여기신다.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을 불러일으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수령님께서 지니신 생활의 신조이고 정치철학이다. 그러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정치의 밑바탕에는 바로 그이께서 지니신 인간애, 향토애, 조국애, 민족애의 따뜻한 사랑이 피출처럼 흐르고있는것이다.

곡산공장에 오시여 미분탄아바이로 불리우며 온갖 천대를 받던 석로인을 친히 옆자리에 앉히시고 술을 부어주시며 그의 공로를 높이 내세워주시는 뜨거운 은정, 부모를 잃고 류랑걸식하던 리은실의 동생을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여주시는 사랑, 일제놈들의 만행으로 얼굴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은 박영만의 얼굴을 깨끗이 치료하도록 하시는 이야기 등은 다 사회의 최하층에서 막돌처럼 버림받던 인민들을 최상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그이의 위인적품모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을 이토록 귀중한 존재로 보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경제정책도 리운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학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경제학의 원리, 인민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인민적가치관에 기초하여 세우시는것이다.

경제학자 김광진의 견해대로 한다면 외국에 수출하여 순간에 거액의 돈을 벌수 있는 《마조라》 기름을 돈 한푼 받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시는것, 경제적으로는 그리 큰 리익이 없지만 심심산골 동양마을의 주민들을 위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를 보내주도록 하시는것, 묘향산 밑에 매장되어있는 막대한 량의 금을 캐지 못하게 하는것,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시고 구암저수지와 례의저수지의 관개용수를 남연백지구에 공급하도록 결정을 채택하게 하시는것 등이 그 생동한 실례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시할 문제는 우리 수령님께서 취하시는 이 모든 조치들이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것 같지만 결국은 인민들을 위한 인민적시책인것으로 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기적적인 창조력을 발휘하게 하는 특수한 확대재생산력으로 되었다는 력사적사실이다.

몇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보통강개수공사를 단 55일에 완수한것, 높은 장성물을 보장하면

서 완수된 인민경제계획 등이 그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되는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에게 있어서 정치란 인민대중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 복무와 헌신의 위대한 생활이었던것이다.

여기에 바로 위대한 인간,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생활의 본질이 있고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인간의 생활은 위대한것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쉬임없이 걸으신 현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력사적사실 그대로 형상하면서 그이의 현지도야말로 인민들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 자주적인간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생활임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확증하고있다.

인민은 저절로 하늘과 같은 존재로 되는것이 아니다. 수령의 령도밑에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일떠설 때라야 력사와 사회발전의 거대한 추동력으로 된다는 진리를 장편소설에서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성장발전과정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전기기술자인 리문도, 경제학자 김광진, 노동자 오천행의 성장발전선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품을 들여 키우시며 나라의 일군들로 성장시켜주시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는 형상들이다.

리문도는 자산계급출신의 지식인으로서 성격이 칼날같고 도교하기 그지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의 출신과 경력을 문제시하지 않으시고 민족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한 생각으로 가족들과 갈라져 북반부에 남은 그의 애국심을 크게 보시며 리문도에게 전기부문의 중책을 맡기신다. 그러나 주관주의와 독단이 심한 그는 남조선에서 전기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여 자의대로 경성송배전실을 없앤다. 그 후과는 매우 엄중하여 간첩들이 《전기도용사건》을 조작할수 있는 공간을 주었고 남조선에 보내는 전기를 끊어버리게 하는 정치적파으로 번져진다.

전기사고총화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출신과 일제산업기관들에 력임하다가 변전소소장까지 한 경력을 꺼들면서 믿지 못할 인간이라고 배척하였고 리문도본인도 자기의 엄중한 결함을 인정하고 헌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슴아파하시며 절절하게 말씀하신다.

《…동무는 잘못을 고치고 일을 더 잘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어떤 처벌도 다 받겠다고 하고 마치 사형장에라도 나가는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았습시다. 기사장동무!

생각나지 않습니다. 1945년 9월 24일 서선

전기회사 회의실에서 나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리문도선생은 우리와 함께 먼길을 가야 할 사람이라고.》

우리 수령님의 진정에 넘친 이 말씀에 심장이 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랴.

리문도는 위대한 수령님을 목매어 부르며 통곡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죄를 씻을것을 맹세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리문도는 나라의 전기부문을 책임진 유능하고 권위있는 일군으로 자라난다.

경제학자인 김광진은 민요가수 왕수복의 남편인 것으로 하여 장시우와 박창옥의 불신을 받는다.

불순분자 장시우와 종파분자인 박창옥은 왕수복을 《친일기녀》라고 하면서 남편인 김광진을 색다르게 본다. 이들은 보안서를 통하여 그들부부의 뒤를 캐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한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경제학자로서의 김광진의 실력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시고 민요가수로서의 왕수복의 경력과 애국심을 깊이 믿으시면서 김광진을 인민경제계획작성자의 한 사람으로 임명하신다. 뿐만아니라 화폐개혁전야에는 화폐문제에 대한 중요강연회에 출연하도록 내세워주신다.

유능한 경제학자로서 당을 끝까지 지식으로 받은 김광진과 민요가수로서 예술계에서 빛을 뿌렸던 왕수복의 행복한 인생은 바로 우리 수령님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속에서 꽃피난것이다.

로동자 오천행의 운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로동계급의 형상을 대표한다.

어려서 부모를 다 잃은 그는 논밭과 산기슭에서 온갖 산짐승, 날짐승,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아온 청년이었다. 그러던 그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은 후 그이의 보살핌속에서 돌격대대장이 되어 로력적위훈을 세우며 그이의 축복속에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

후일에 우리 공화국을 떠받든 역센 기둥들이었던 최재하, 리지찬, 김희일 등도 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자라난 일군들이었다.

전후복구건설시기 건설상으로서 일부 나쁜놈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수령님의 건설사상을 옹호하여 일을 잘한 최재하도 수풍발전소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던 이 시기에는 낡은 공법과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숙한 세 포위원장에 불과하였고 철도부문의 권위있는 일군이었던 김희일도 정주기관구의 한갓 평범한 기관사였다.

그러던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낡은 사상을 털어버리고 수풍발전소의 지배

인으로, 김희일운동의 발기자로,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영웅들로 자란다.

이뿐이 아니다.

김교망, 김제원, 최군마 등도 해방전 소, 돼지처럼 천대받던 사람들이였으나 우리 수령님의 품에서 로동계급의 영웅, 농민영웅으로 자라난다.

보건상 리병남, 내각 무임소상 리극로, 전력공업상 리지찬 등 그이의 품속에서 일군들로 자라난 인물들을 꼽아보면 끝이 없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지도도과정에 만나신 수많은 평범한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의 한 품에 안으시여 나라의 튼튼한 역군들로 키워나가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도의 걸음걸음, 그것은 참으로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 헌신의 장정이였으며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 위대한 생활이였던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이 위대한 생활속에는 자신의 기쁨과 슬픔, 개인적인 모든것을 가슴에 묻어두시고 오직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로고를 다 바치신 뜨거운 헌신의 세계가 비껴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었던 주체38(1949)년 9월 22일을 하루 앞둔 21일 그날에도 병석에 계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평양에 두시고 머나먼 토산땅의 황토길을 우리 수령님께서 걸고계시였던것이다.

이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총소리 울리는 38도선가까이의 시변리로 가시였고 김정숙어머님은 신병의 고통을 감추시고 그이를 바래드리시였다.

참으로 개인적인 모든것을 초월하여 오로지 인민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인들의 위대한 생활세계가 아닐수 없다. 바로 이런 위인들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헌신의 자욱우에서 번영의 새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장편소설은 뜨겁게 노래하고있으니 참으로 이 소설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생활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서사시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번영의 시대》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일으키는 파문은 크다.

그처럼 어려웠던 해방직후에도 2~3년어간에 행복과 번영의 새시대를 건설하였는데 하물며 오늘과 같은 시기에야...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진두에서 이끄시는 한 강성대국건설은 문제없다는 신심이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을 팡팡 두드린다.

그렇다!

번영의 새시대—강성대국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푸른 하늘의 락하산

김 성 철

가없이 맑고 푸른 가을하늘
점점이 흘러가는 흰구름 보아도
항일의 그 나날 김정숙어머님을 모신
훈련기지에서 락하산훈련하던
항일의 녀대원들의 모습 어려오누나

얼마나 이악하고 담찬 녀투사들이었던가
몸이 너무 가벼워
배낭에 벽돌을 넣고
몸무게를 불균 녀대원도 있었더라
남의 집 사립문가에 남새막에
어린 자식 맡겨두고온 녀성대원들도 있었더라

산줄을 틀어쥐고
착지점 맞추어 내리며
자식들을 마음으로 찾고 불렀던가
그리운 조국산천의 화답인듯
푸른 숲 설레이는 소리 푸른 바다 파도치는 소리
귀전에 사무치는 메아리 메아리...

1 000미터
800미터
600미터...
조국으로 가는 길 줄이고 줄이는것이어서
락하고도 낮추고낮추며
천만위험 두렵없이 떨어져내렸구나

혈전의 나날에 우리 수령님 그려보신것
혈벗은 아이들에게 열어줄 학교와
머슴살이농군에게 안겨줄 옥토별과
고역에 지친 노동자들이 주인될 공장
오, 조국을 안고 해방된 조국을 안고
아득한 창공에서 뛰어내린 애국의 심장들

그 피줄기 이은것 아니냐
전화의 날 원쑤의 화구 가슴으로 덮은 청춘도
조국수호의 날 탈출명령 받고도
경애하는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기수를 바다로 돌린 비행사영웅도
한그루한그루 구호나무 둘러싸고
사나운 불길 막아 지켜낸 병사들의 그 신념도

지금도 때없이 바라보면 새겨져있는것 같구나
해돋이노을에 물들며 하늘에 펼쳐진 락하산
너는 항일선열들의 애국의 넋과 용맹의 높이런가
강성부흥하는 내 조국이 펼친 나래같구나

황철의 한해

김 석 평

죄스럽고 송구함에
몸둘바를 모르던 우리들이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변이 나는 새 소식 전해질 때
제철소에 찾아오신 장군님께
우리 전망도밖에 보여드릴수 없었다

아직은 한쪽의 전망도에 지나지 않은
아직은 수자로만 새겨진 래일의 생산량
깊은 생각속에 바라보시던 장군님
이제 거인의 모습으로 일떠설 황철의 래일과
강철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그려보시며

비폭스화는 경제발전의 철학이라고
우리가 같길은 이 길뿐이니
좋은 기별 받으면 다시 오겠다 하신
장군님 바래워드리며
격정에 목메이던 우리들이었다...

작년 이맘때엔
죄스럽고 송구함에
몸둘바를 모르던 우리들이었던만
한해의 전변을 두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오늘은 품놓고 다 돌아보자고
새로 일떠선 초고전력전기로
생산종합조종실
강재더미 층층 쌓아가는 편속조피장
희한하게 펼쳐진 변전소의 전경...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바라보시는 장군님

우리 손에 쥐여주신 자력갱생의 열쇠
자력갱생의 보검이 있어
강철의 직선주로우로
황철은 가슴펴고 내달려가려니

후날의 모습으로 바라보던
제철소의 전망도
최첨단의 현실로 꽃피워주신
장군님의 위대한 한해가 있어
날마다 좋은 기별 온 나라에 전해갈
철의 도시 황철의 전변이여!

가요 《대흥단삼천리》가 전하는 이야기

우리 나라의 북변 백두대지에 자리잡고있는 영광의 땅 대흥단은 감자농사혁명의 본보기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백두산지구를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꽃이 만발하고 제일 잘사는 희한한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꾸릴 결심입니다.》

지난 시기 대흥단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그가운데서도 가요 《대흥단삼천리》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사랑을 받고있다.

이 노래창작은 주체85(1996)년 마가월에 시작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어느날 몇몇 작가들을 대흥단에 파견하였다. 이 현실체험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창작능력이 어린 한 여성작가도 있었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시기여서 자주 멈춰서는 기차를 타고 작가들은 며칠만에야 대흥단에 도착하였다. 퍼그나 늦은 한밤중이었다.

여성작가는 군소재지에 들어서는 첫순간에 저으기 놀랐다.

온 거리를 휘황히 밝히는 전등빛, 따끈따끈하게 더운 전기난방...

다음날 아침 밖에 나선 여성작가는 두번 다시 놀랐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활기있게 일터로 가는 근로자들, 발전소와 공장마다에서 울려나오는 고르로운 동음소리, 온 벌에 메아리치는 자동차, 트랙트르의 힘찬 발동소리...

대흥단은 들끓었다. 모든것이 약동하고있었다.

여성작가는 그날부터 생활체험을 하고 취재를 하면서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오직 전진만을 아는 대흥단의 비결을 가슴뜨겁게 받아안았다.

하늘아래 첫 동네, 그 이름도 정답고 친근한 대흥단, 이는 정녕 백두산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꽃피난 축복받은 행복의 락원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이 백두고원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현대적인 대규모의 농장을 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그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시여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국영5호종합농장을 창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것처럼 어려운 전시에든 노력과 자금, 설비와 자재를 아낌없이 보내주시였다.

전후에 나쁜 놈들이 농장을 없애려고 책동할 때

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현지에 내려가시여 삼으로 땅을 손수 파보시고 5호종합농장을 없앨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장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예술영화 《개척자들》에 형상된것처럼 대흥단은 참으로 치열한 제급투쟁과 힘겨운 자연과의 투쟁속에서 자기 발전의 길을 자랑차게 수놓아왔다. 그리하여 지난날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던 대흥단이 풍요한 대지로,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본보기 농장으로 전변되였다.

농장의 이르는 분장마다에서 작가는 걱정으로 높뛰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변형하는 백두삼천리벌은 그에게 창작적환상의 나라를 활짝 펼쳐주었다.

그때는 가을걷이도 다 끝난 마가일이였지만 여성작가의 눈앞에는 풍요한 대지가 환히 안겨왔다.

눈뿌리 아득한 넓은 포전에 아름답게 핀 감자꽃바다, 끝없이 설레이는 밀보리파도, 사나운 눈바람을 다 막아주는 북방의 보초병인양 수천여리에 늘어선 방풍림...

격정에 북받친 작가의 환상세계는 더 높이 나래쳐올랐다.

간고한 항일의 날 대원들의 끼니를 위하여 몇포기의 감자를 캐내고 그 값으로 돈을 농고가도록 하신 아버지수령님!

조국진군의 그날 종자가 없어 봄씨불임을 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며 여기 대흥단에 밀종자를 남겨두고가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그 은정깊은 사랑이 천지개벽한 이 백두대지에 그대로 차고넘치는것이 아니겠는가.

여성작가는 온 백두삼천리벌을 한품에 그러안고 몸부림치며 격조높이 와와 노래하고싶은 심정이였다.

무릇 시란 작게 시작하여 크게 쓰라고 하였더라, 하지만 작가는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도 커서 대흥단의 어느 한 측면만을 왜소하게 노래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가사의 제목도 온 대흥단을 통채로 다 담은 《대흥단삼천리》라고 포괄적으로 달았으며 가사의 내용도 대흥단에 펼쳐진 인상깊은 불멸의 화폭을 파장없이 그대로 옮겨놓았다.

홍단수물결우에 황금빛 물들고
밀보리 설레이네 감자꽃 춤추네
수령님 지어주신 그 이름도 대흥단
금나라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리세
...

이렇게 현지에서 창작된 가사는 민요풍으로 작곡되고 녀성독창으로 형상되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가를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주체86(1997)년 10월 10일은 당창건 52돐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그처럼 뜻깊은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를 들으시고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새로 창작한 노래 《대흥단삼천리》가 좋다고, 가사가 통속적이면서 내용이 좋고 곡도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걸쳐 노래 《대흥단삼천리》에 대한 평가의 말씀을 해주시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도 넣도록 해주시었다.

이 노래를 남달리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다시 건립할 때에 사적비뒤면에 이 가요의 가사를 새겨넣게 하시었다.

주체91(2002)년 10월 어느날 백두산지구를 현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찾으시여 기념탑건립을 잘한 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사적비뒤면에 《대흥단삼천리》 노래가사를 새겨넣은것도 잘하였다고, 로동당시대에 나온 노래를 새겨넣으니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대흥단혁명전적지강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 노래를 불려드렸다.

...

인민의 무릉도원 펼쳐여주시려
수령님 한평생 가꾸신 풍년벌
그 뜻을 우리 장군님 꽃피우신 대흥단
충성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노래를 끝마친 강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답사자들이 기념탑을 돌아보다가 여기에 와서는 이 노래가사를 보면서 합창을 하기때문에 감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럴거라고 하시

면서 옛날에는 량반들이 경치좋은 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한시를 읊곤 하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대흥단삼천리》와 같은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일군들도 창작가들도 이 노래는 완성된 명곡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요 《대흥단삼천리》의 가사와 선율을 깊이 분석해보시면서 사소한 부족점도 없는 만점짜리 명곡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마음쓰시었다.

주체95(2006)년 여름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의 가사 2절 세번째 줄에서 《아름다운 공장도시》라는 표현을 고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일군들과 작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받아 《아름답고 살기 좋은》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사실 처음 작가는 지난날 원시림이 무성하던 이땅에 기초식품공장, 고기가공공장과 같이 지방산업공장들이 수없이 일떠선 자랑을 두고 《아름다운 공장도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시적형상이 아니고 지나치게 실무화된 직선적인 서술이었다.

그런데 《아름답고 살기 좋은》으로 바꾸니 노래 3절에서 가사를 일반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아름답다는 표현과 살기 좋다는 시적표현이 적중하게 잘 어울렸으며 시음악적인 발음에서도 매우 자연스러워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2절가사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아득히 구름우에 펼쳐진 백두벌
온 세상 부러웁게 풍년가를 부르네
그림같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흥단
기쁨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가요 《대흥단삼천리》는 정다운 대지에 깃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감자농사혁명에서 새로운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있는 이 고장 인민들을 힘차게 고무추동할 것이다.

조선속담

경 술, 흘 시

-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가
- 갑작사랑 영리별
- 돈 없는 놈이 큰 떡 먼저 든다
- 작은 부스럼 고치다가 생사람 잡다
- 침뱉은 우물 다시 마신다
- 우는 뽕이 먼저 채운다
- 이빠진 강아지 언퐁에 덤빈다

- 경적하면 필패한다
- 사막에도 금강석이 있다
- 소금도 곰팡이 난다
- 큰 방축(동쪽)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 타는 닭이 꼬꼬하고 그슬린 돌이 달음질친다
- 업신여기는 나무에 상투 걸린다

영원한 친위전사의 숭고한 영상을 모신 불멸의 화폭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1) 《녀사의 소원》을 읽고 —

김 순 립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주체혁명 위업수행에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고귀한 한생이며 혁명가들이 따라배워야 할 위대한 생애의 빛나는 귀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깎그리 바친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이었고 그가 걸어온 인생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주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원한 친위전사로 한생을 빛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준 단편소설집(1) 《녀사의 소원》에 수록된 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신념화하고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어머니의 숭고한 위인적인 풍모와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 그 지없이 소박하고 인정깊으신 어머니의 정다운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들에서 어머니께서 지니고계시는 수령님에 대한 충정은 언제나 경위대원이 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안령을 보좌해드리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으시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그 누구보다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하시였고 우리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에 충실하시였으며 수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어머니의 불멸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생하고있다.

단편소설 《살구꽃핀 정원에서》(김원종 작)는 해방후 첫봄의 어느날 살구꽃핀 정원에서 경모하는 녀사를 만나뵈옵는 《평양민보》의 사회부 기자 문인숙의 시점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것처럼 충직하시고 전사들을 것처럼 사랑하시는 절세의 위인의 형상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명사격의 묘리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대원들에게 전애나 지금이나 동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김일성**장군님을 옹위하는 경위대원이라고 하시며 장군님을 보위하는 우리에게 천번 중 단 한번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면 아무때나 명중하지 못할수가 없을거라고 가르쳐주신다.

그리고 산에서 싸울 때 조국이 해방되면 고향에 먼저 돌아가 그림던 부모형제부터 만나보자고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조국 건설을 위해 끼니도 휴식도 잊으시는데 어떻게 고향에 가서 친척부터 찾아보겠는가고 하시며 뒤로 미루시는것이였다.

어머니께서는 또한 자신에 대하여 글을 쓰겠다는 기자의 간청에 대하여 신문의 지면을 단 한줄이라도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리용한다는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높이 받드는것은 조선사람의 웅당한 도리이고 경위대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저의 공적으로 되겠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단 한자도 신문에 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신문은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새 조선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더 많이 소개해주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그것을 바라고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문인숙을 보면서 해방된 조국 땅에서 우리 녀성들이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 사회정치활동에 마음껏 참가하고있다는 생각을 하신다.

단편소설 《소원》(류정옥 작)은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고 알아야 제구실을 할수 있다는 문제를 감동적으로 그려보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는 어머니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소설은 《돼지어멈》이라고 써도 무슨 글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불리우던 윤옥분에게 이름자를 써주고 그를 잊지 못하시여 끝까지 찾아주시고 글을 몰라 약을 바꿔먹인 복동이를 살려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김정숙어머니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윤옥분의 시아버지에게 어머니께서는 자신을 낳추시며 말씀하신다.

《…저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일할뿐입니다. 우리 녀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새 조국 건설에 한몫 하는데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

시려는 장군님의 뜻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저 저의 소원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을 무지와 몽매에서 해방시키고 문명하고 유족한 새 사회건설의 담당자로 키우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실현하시려는 것이 바로 녀사의 소원이었다.

소설집에는 단편소설 《첫 녀성락하병들》(송병준 작)과 같이 자신을 평범한 전사로, 사령관동지의 전사로 생각하시며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원대한 뜻을 관철하는 제일 첫자리에, 제1번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대원들을 이끌어가시는 어머니의 충정의 세계를 뜨겁게 보여준 형상세계도 있으며 단편소설 《봄날에》(로종익 작)와 같이 빈터우에 새 조선을 건설하시려고 공장의 구내길이며 포전의 논두렁길을 걷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대로 해방된 인민들에게 넉넉하고 풍족한 새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이 걷는 걸음도 수령님을 도와드리기 위한 자욱자욱으로 새겨지게 하시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감동깊은 화폭속에 부각한 작품도 있다.

이와 함께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종합대학창립을 구상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한 단편소설 《환희》(김창옥 작)도 있다.

어머니께서는 종합대학 학생원천도 그렇고 볼만한 서적도 없으니 정말 맨주먹으로 빈터에 서있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말씀올리는 대학창립준비위원회 상무일군 강형민에게 왜 아무것도 없다고만 생각하는가, 우리에게서 나라의 민족교육을 발전시켜나가려는 인민들과 청년들의 불같은 지향이 있는데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다.

참으로 이러한 형상은 민족교육을 위해 바치신 어머니의 걸음걸음, 새 력사의 위대한 전환기에 어머니께서 걸으신 길이 형민이 자신과 아버지가 대를 이어가면서 교육의 진리를 찾아 걸어온 길보다 비할바없이 길고 해방된 이 나라의 청년들이 걸어가게 될 환희로운 미래로 아득히 이어져있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가슴에 가슴후덥게 새겨지게 한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친위전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과 뜻을 쫓아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충실성의 위대한 귀감이시라는것을 가슴뿌듯이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단편소설집에는 또한 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전우들을 못 잊어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것처럼 아끼고 돌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고 동지들의 자녀들을 따듯이 품에 안으시고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김정숙어머니를 형상한 감동깊은 화폭들도 있다.

단편소설 《기다리던 어머니》(박성전 작)는 함께 싸우다 희생된 혁명전우에 대한 가슴아픈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의 내면심리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녀사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헐벗은 아이들만 보시면 의지가없이 헤매는 희생된 투사들의 자녀들이 아닐가 하는 생각에 아픈 가슴을 저미는것을 어쩔수가 없으시었다.

그때마다 어머니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정원을 묵묵히 바라보시며 하시던 말씀이 되새겨지곤 하시었다.

《조국의 눈을 맞으니 희생된 혁명동지들의 생각이 간절해지오. 그들은 모두 숨지는 마지막순간에 앞으로 나라가 해방되면 자기들의 아들딸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우리곁을 영영 떠났지. ... 그들의 아들딸들이 지금 어느 한지에서 헤매고있는것만 같소.》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김정숙어머니께서는 희생된 오금실동무의 아들을 찾으시여서는 자신을 어머니라 불러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오금실의 아들인 남철소년에 대한 김정숙어머니의 이 뜨거운 사랑은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들의 단순한 육친의 사랑만이 아니라 조국이 겪은 수난과 더불어 파도처럼 겹쌓이는 슬픔을 이겨내시고 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혁명의 어머니께서만이 지니실수 있는 고귀한 사랑이다.

단편소설 《녀사의 소원》(김명익 작)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천만리 혁명의 길을 헤쳐갈 전위들을 키우시려는 녀사의 소원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김정숙어머니께서 항일의 기나긴 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소중히 품고다니시던 가지색뚜껑의 수첩에는 산에서 함께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이며 주소, 전사한 날자가 적혀있었다. 이 수첩에는 함께 싸우다 희생된 전우인 차숙의 절절한 념원도 있다.

지하공작에 나갔다가 전사한 남편의 뒤를 이어 싸우다 희생된 차숙을 이름모를 이국의 나무밑에 묻고 돌아온 마가울의 별많은 그밤 어머니께서는 차숙이 생전에 즐겨부르던 노래 《어머니리별》가사 밑에 차숙이 전사한 날자를 적으신 다음 그 애들의 이름과 나이, 몸에 있는 특징까지 일일이 물으시여 수첩에 써넣으시었다. 항일의 나날 그렇게 번져지고 번져진 수첩이었다.

소설은 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애들을 찾아오라고 두번, 세번 투사들을 떠나보내시는 녀사의 숭고한 모습을 가슴뜨겁게 형상하였다.

작품은 어머니께서 아버지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학원에 수령님의 동상을 세워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사랑의 세계를 감동깊은 화폭으로 형상하였다.

녀사께서는 《아이들은 만경대의 새 교사로 이사를 가면 매일 아침 장군님을 만나뵈울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있어요. ... 그렇지 않아도 나는 장군님곁에 언제나 있고싶어하는 아이들의 소원을 어떻게 풀어줄수 없겠는가 생각해왔어요. 그래 오늘 동무들과 의논해보자고 해요.

만경대에 새로 짓는 학원청사앞에 장군님의 동상을 모읍시다!》라고 말씀하신다.

주체37(1948)년 10월 24일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제막식날 오늘은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 너희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온 나라 인민들의 명절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는 어머니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천만리 혁명의 길을 헤쳐갈 전위들을 키우시려는 녀사의 소원은 현실로 꽃피어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총정수로 우러러 받들어나가는 불패의 대오가 자라난것이다. 하기에 작품은 비록 어머니의 생애는 짧았어도 주체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은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멀리 흘러가도 영원하리라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1) 《녀사의 소원》에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다양하고 생동한 화폭으로 형상하고있다.

어머님께서 지니신 동지관은 혁명동지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의 철학이며 그 정화이다.

여기에서 단편소설 《상봉》(김수범 작)은 특별한 이채를 띠고있다.

어려서부터 갖은 불행과 고통을 겪으신 어머님께서 자기자신보다도 동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시였다.

소설에는 이러한 어머니의 고귀하신 사랑의 세계가 눈물겹게 그려져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형상은 유격대원인 금실이가 열렬히 사랑하여 약혼도 하고 결혼날짜까지도 다 받았다가 놈들의 《토벌》때 애인과 서로 헤어진것을 아시고는 무척 마음을 쓰시는 장면에서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어머님께서 헤어진 강운삼에 대한 불길한 생각으로 가슴태우는 금실에게 신심을 안겨주시고 강운삼이 돌아왔을 때는 재봉대에서 만나게 해주신다.

가슴속 깊은 곳에 생겼던 그들의 상처가 가셔지고 보람찬 투쟁이 벌어질것을 자신의 기쁨처럼, 행복처럼 여기시는 어머니이시다.

소설은 어머니의 고귀한 동지애를 그이의 심중의 세계를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녀사의 소원》에 수록된 소설들은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미덕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녀성의 몸으로 혁명을 위해, 동지를 위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승장구하는 혁명

투쟁의 력사적인 체험속에서 어머님께서 천품으로 지니신 인간적미덕을 뜨거운 동지애로 승화시키시여 혁명동지들을 위해 사선의 언덕을 무수히 넘으시였으며 한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총만된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단편소설 《력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김봉철 작)는 한평생 인민들과 어울리시며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바라지 않고 인민들과 똑같이 생활하시는 어머니의 평민적인 성품을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는 오랜 력사학자가 딸 문영에게 귀중한 서적을 꺼내주며 이것을 팔아서라도 김정숙녀사의 옷감을 장만해서 드리라고 하면서 녀사처럼 값죽은 옷을 입고다니시는분이 없다고 하는 장면이 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문영이가 정성껏 헤드린 그 외투를 입지 않으시고 전해에 입으시던 낡은 군복외투를 입으시고 제사공장으로 가신다.

어머님께서 더운물에 손잡고 일하는 처녀들을 보시고 빨리 기술을 발전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다. 그러시고 지배인에게 밤일을 하고 들어온 처녀들이 기대소리에 어디 잠이나 포근히 자겠는가 하고 하시며 합숙을 공장밖으로 내가자고 하신다. 어머니는 이처럼 제사공처녀들을 위해 손수 더운물에 손을 잠그시였고 처녀들의 잠자리 하나를 두고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였다.

어머님을 만나뵈온 사람마다 즐겁고 친근하신 미소와 조용하면서도 힘을 주시는 말씀의 억양과 뜨겁게 잡아주시는 손길에 매혹된다.

웃으실 때조차 소리없이 웃으시는 부드럽고 사려깊은 어머니, 사랑과 일만을 아시는 어머니.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려 끝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댁에서 때식을 하다보니 어머니의 식찬이 너무도 빈약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어하던 문영이가 찾아온 선화에게 이런 이야기를 비쳤는데 그날 저녁으로 선화는 자동차에 쌀을 싣고 왔던것이다.

이 사실을 아신 어머님께서 그분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 우리 집에 온 귀중한 손님인데 국가쌀로 그들을 대접했다는것을 알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또 장군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시겠는가고 엄격하게 타이르시였다.

어머님께서 갈리신듯 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선화동무, 고마워요. ... 하지만 우리가 동지들의 피값으로 호강하고 세도를 부리면 저 동북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숙동무랑 오중흙동지랑 그 많은 전우들이 뭐라구 하겠어요. 선화동무, 정말 우리가 그 무슨 값을 받자구 산에서 고생했나요. 고래등같은 양옥집에서 살자구 눈구멍이속에서 잤고 산해진미로 풍청거리자구 풀뿌리를 캐서 끓여 먹었던가요. 인민은 우리에게 금방석을 깔아주자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럴수록 맨땅에 앉아야 하며 조밥을 먹어야 합니다.》

어머님의 인민을 위하시는 마음은 그지없이 아

름다왔다.

실로 어머니의 그 숭고하고 고결한 모습은 나라와 인민에 대한 사랑이 굽이치는 하나의 세계이며 우주이며 영원이란것을 문명은 심장으로 깨닫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인민의 어머니이시기에 단편소설 《가을》(백철수 작)에서는 콩마당질, 밀마당질도 다 해가시는 어머니의 소박하고도 친근한 모습이 뜨거운 화폭속에 인상깊게 새겨진다.

소설은 개인의 슬픔과 고통도 다 누르시고 장군님을 받들어 애오라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녀사의 고결한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도, 또 래일의 찬란한 꿈도 피어나고있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에는 한없이 큰 도량과 인간애를 지니신 어머니의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이 인상깊게 형상되었다.

단편소설 《첫 수술》(김정 작)은 남다른 번민과 혼돈속에서 오래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쓸쓸히 보내온 청진의 유명한 외과 의사 박한무가 첫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는 어머니의 숭고한 인간애를 감동적으로 그려보이고있다.

어머님께서는 《친일분자》로 몰리워온 박한무에게 장군님께서 조국개선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해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이제는 피로써 찾은 조국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심장을 바쳐야 한다고, 조국은 선생의 의술을 기다리고있다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신다. 그리고 박한무에게 《친일분자》의 딱지를 씌울번 했던 청년이 사죄를 하고 화해하도록 하신다.

실로 한없이 큰 도량과 포용력, 살뜰한 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기도 하시고 고상한 정신세계에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뜨거운 감동에 젖어 울게도 하시고 희망과 낙관에 넘쳐 웃게도 하시는 어머니의 그지없이 겸허하고 소탈한 인간적풍모에는 그이께서 안고계시는 열렬한 인간애, 고결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여기에서 특히 단편소설 《삶의 궤도》(최창학 작)에 펼쳐진 형상적화폭은 매우 감동적이다.

원한서린 인력거채를 다시 잡고 돈 몇푼을 벌기 위해 인력거를 끌고 거리를 지나가는 강덕보의 초췌하고 처량한 모습을 흐린 안색으로 측은히 바라보시던 어머님께서는 인력거군을 기관사로 키워주시고 새 삶을 안겨주신다. 그 숭고한 모습은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신을 지니신 어머니의 형상을 한껏 부각하고있다.

어머님께서는 새 활력으로 총만된 강덕보의 얼굴과 그가 입은 철도복이며 모자며 팔에 두른 완장이며 꽃목걸이를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며 《강동무, 동무가 오늘 첫 운행을 한다기에 축하해주려고 나왔습니다. 삶의 새 궤도를 따라 힘차게 달리기 바랍니다.》고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신다.

인력거군이던 기관사 강덕보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여 삶의 새 궤도를 따라 이렇게 첫 운행을 하도록 해주신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이야말로 인간사랑의 최고정화이고 아름다운 화폭이다.

단편소설 《사향가》(림병순 작)에서는 어머니의 인간사랑에 대한 이채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악단이 해산되지 않고 다시 꾸려지도록 마음쓰시며 조국을 건설하자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깨우쳐주시는 어머니.

작품에는 《타향살이》를 부르던 백세정이 관현악반주에 맞춰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고 혁명가요나 《양산도》와 같은 민요들을 편곡하여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방불하게 그리었다.

한기표가 지휘자로서의 첫걸음, 인생의 첫걸음을 떼게 된데는 그의 보람있는 삶에 바쳐진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은정이 뜨겁게 스며있다.

이 고귀한 사랑과 은정속에서 단편소설 《선아》(최상순 작)에 나오는 선아와 같이 수모를 받고 마음이 이지러져 저를 동정하는 사람조차 멀리하던 그가 끝끝내 운명의 전환으로 새로운 삶의 궤도에 들어서는 감명깊은 형상도 있다.

단편소설 《기적소리》(강복례 작)는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도 지주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금복이를 제 고향으로 보내주시고 조국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도 펄차칸에서 보내시고 대원들과 같이 즐기시며 노래부르고 춤을 추시는 녀사의 그 소박함과 소탈하심, 락천적인 모습에서 인민에 대한, 인간에 대한, 동지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그 한정없는 뜨겁고 숭고한 사랑을 싣고 달려온 내 조국의 기적소리를 깊은 여운속에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어머니의 한없이 자애롭고 뜨거운 인간사랑의 세계를 단편소설 《보금자리》(조상호 작)에서는 나라없던 세월에 부모들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인민정권이 맡아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고아원을 내오시고 그들을 품어주고 키워줄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의 세계를 통하여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으며 단편소설 《해빛넘치는 집》(민경숙 작)에서는 가정형편 때문에 꽃망울시절을 숙절없이 보내는 불쌍한 연순이를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실을 아신 어머님께서 연순이네 집을 찾으시여 그에게 사랑과 정을 주시는 어머니의 해빛같은 미소가 어려, 사랑이 흘러넘쳐 자기 집이 이렇듯 정든 집으로, 해빛이 넘치는 집으로 되었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아, 봄 비

심 복 실

룡남산 이 기슭에
해마다 졸업생들 나무를 심었다고
우리 심을 자리가 없으랴
때마침 봄비가 내린다
동무들아 강의실 나란히 앉던 책상순서로
뜻깊은 졸업기념 나무를 심자

어린 나무 상할세라 가만가만 내리는 비
술술 내 몸에도 감겨드는 비
뭉클 이 가슴 젖어들어라
이 땅 어디나 비는 내려도
룡남산 봄비야 언제 다시 맞으랴

어쩔 이리도 살뜰할가 보슬단비
어쩔 이리도 부드러울가 보슬봄비
땅을 적시기엔 너무도 여리지만
내 가슴엔 출렁 가득차 솟구쳐
나무에 기울이네 나의 이 진정

아, 어제날 이름없던 로동자처녀
한걸음을 걸어도 보폭을 넓히랴
날아도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날으랴
불러주신 그 믿음을
키워주신 그 사랑을
내 어찌 한시인들 잊고야 살랴

무심히도 맞고보낸 배움의 그 나날
아낌없이 교정이 준 지혜와 열정
내 인생의 약비인줄 어이 알았으랴

걸음걸음 성장의 자양이 되어줄
사랑의 봄비
은혜론 봄비

룡남산 이 기슭에 남기는것이
다만 이 한그루 나무뿐이라
신성한 교정에 뿌리내리고
작은 아지 창공에 펼친 우리
조국위해 아름다리 거목으로 키를 솟구리
청춘룡남산을 세계에 더 높이 펼쳐갈
그 불같은 마음 여기 심거니

그러나 명심하자
떠나간 제자 수천이라고
수천의 거목이 절로 자라던가
오늘의 맹세를 우리 만약 잊고 살면
창조의 푸른 잎은 시들어버리고
열정의 아지는 삭정으로 꺾이우리
교정은 우리 이름 기억에서 지워버리리

나무를 심자
맹세를 심자
점점 굵어지는 비발에 옷이 다 젖어도
한생 어디서나 안고살 봄비
그 봄비 아니맞고 어린 나무 어이 크랴
교정에 푸른빛이 한껏 깃들도록
싱싱한 가지마다 봄물이 오르도록
맞으리라 봄비, 아 룡남산의 봄비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그윽한 인간적 향취와 특이한 인정미, 불보다 뜨거운 동지애로 인간의 세계를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게, 가장 열렬하고 진실하게 가꾸어오신 어머니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어 오늘도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고있는것이다.

실로 단편소설집 (1) 《녀사의 소원》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지향과 념원, 필생의 소원이 무엇이였는가 하는것을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불멸의 화폭이다.

단편소설집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들은 어머니의 숭고한 소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목숨으로 옹호관철하며 수령결사옹위를 첫째가는 삶의 목표로, 최고지향과 념원,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그 길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고 한점의 티도 없이 사는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혁명동

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며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는데서 참다운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것이며 바로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것이라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의 최고정화이신 김정숙어머니의 형상을 매혹적인 생활화폭과 매력있는 성격으로 드높이 구가하고 뜨겁고 열렬하게 칭송함으로써 위대한 녀사의 숭고한 소원이 매 작품들마다 일관하게 흐르는 강한 문제성으로 굵이치고있으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있다.

단편소설집 (1) 《녀사의 소원》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따라배워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내 사 는 땅

허 수 산

대동강기슭 제사공장에 가보아도
가슴 한없이 뜨겁더라
일감앞에서 헛는 한번 팔지 않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비단실 뽑는
근면하고 성실한 처녀앞에서

쇠물이 펄펄 끓는 강선에 가면
가슴몽클해지더라
초고전력전기로를 일떠세우고도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을 한듯
말없이 수직수직 일해가는 사람들

이 땅 그 어디
탄광이라 협동벌이라
그 어디서도 평가와 보수엔 인연이 없어
말은 초소를 성실히 지켜가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깊어지는 생각

내 과연 저들처럼 살았던가
이 땅에서는
모두다 애국의 한마음 안고
우리 장군님따라
수령님조국을 굳건히 받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살고있는 땅에서

그렇구나 내 사는 이 땅
하늘 맑고 물 맑은 이 강산
내 나라 내 조국에는
날마다 무성해지는 애국의 마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우리 조국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근면한 사람들인가
내 때로는 자그마한 성공을 두고
은근히 그 무엇을 바라던 마음
부끄럽구나 죄스럽구나
그들앞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싶구나

제사공장 처녀들이여
용해공들이여 탄부들이여
내 그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대들이 있어
우리 조국은 장군님따라
강성대국승리의 그날로 가거니

내 조국의 재부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과 믿음으로
삶의 아름다운 화원으로 꽃피워주신
보석같은 마음을 지닌 참된 사람들이다

나래치라 빛발치라
우리의 자랑이여
우리의 긍지여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런 사람들 많이 사는 이 땅
아 길이길이 무궁번영하리라

최첨단의 지름길

윤 두 만

무심히 걸을수 없어라
못 잊을 사연깊은 과학도서관과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연결한
이 외랑복도를

거리는 멀지 않건만
걸을수록 생각깊어라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이 길을 끝추 이어주시였는지

조용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전자도서관으로 갈 때
길을 에둘아갈수도 있으리라
하나 우리 장군님
순간이나마 사색이 멎을가봐

이 길을 이어주신것 아닌가

아, 세상에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께서만 생각하실수 있는
이 외랑복도를 걸을 때마다
우리 더 빨리 더 높이 비약하기를 바라는
숭고한 그 뜻은 뉘를 불태우나니

추억깊은 20세기와
무궁번영할 21세기를 혈맥처럼 이어놓은
외랑복도여!
생각되여라 나에겐 정녕 이 길이
최첨단주로를 주름잡아 달리라고
우리 장군님 열어주신 사랑의 지름길처럼



리 동 춘

(전호에서 이음)

제3막

때 며칠후.

곳 서로인의 집마당.

무대 왼편으로 치우쳐 서로인의 집이 있고 집두리에 나지막한 돌담이 있다.

바른쪽에 달수네 집 대문만 보인다. 그뒤로 경사진 언덕이 있고 그앞에 바위가 있다.

막이 오르면 밤이다. 둥근달이 떠있고 달빛에 아담한 마을이 보인다. 달수네 집에서 들려오는 다듬이질소리.

△락주 나오며 달수네 집으로 간다.

락주 계십니까? 반장동무 계십니까?

송씨 누구요?

락주 안녕하십니까?

송씨 아이구, 난 또 누구시라구. 당위원장어른이시군요.

락주 반장동무 계십니까?

송씨 방금 저녁들구 나가셨는데요.

락주 그래요. 들어오시면 이 신문을 좀 전해주십시오.

송씨 예.

락주 래일 아침 발머리에서 독보해야 할 제목을 표시해두었습니다.

송씨 래일 아침예요?

락주 제목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송씨 예, 들어오셨다 가십시오.

락주 또 오겠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송씨 살피가십시오.

락주 예.

△석철이 서로인집 프락에서 나온다.

석철 어서 들어가십시오.

서로인 응. (다시 들어간다.)

락주 (석철이를 띄어보고)석철동무, 여기에 있었소?

석철 아니, 리당위원장동지! 저 이 집 할아버지 말씀은 개간만 한다면 늙은이들두 동원될수 있다고 합니다.

락주 그렇소? 로력을 짜내는데만 급급하지 말구 개간을 어떻게 하면 기계화하겠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생각해보오.

석철 예, 기계화창안조를 조직해서 한번 집체적으로 토의해보겠습니다.

락주 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거 개간을 말ियो, 보습으로 밭갈이하듯 하면 안될가?

석철 개간을 보습으로요?

락주 어제 범바위산에 다시 가서 파보니까 돌두별반 없더구만. ...

석철 하지만 그 나무뿌리때문에 보습으로 하긴 좀 곤란할것 같습니다.

락주 이거 내가 생각을 좀 해본건데... 좀 보오.

석철 예.

락주 이거 잘 보이지 않누만. 이 보습앞에 칼을 대면 어때? 이렇게 말이야.

석철 칼이요?

락주 이 칼을 어떻게 고정시키는가가 문제요.

석철 예— 이거 정말 될것 같습니다.

락주 그렇소? 좀 생각해보라구.

석철 알았습니다.

락주 난 산과실체취반에 가보겠소. 수고하오.

석철 예. (혼자소리로) 가만, 이거 어떻게 고정 시킨다?

△기선이 나온다.

석철 기선동무 아니요? 맞구만. 야, 여기 있는 줄 모르구 내 동무네 집에까지 갔댔지.

기선 우리 집엔 왜?

석철 거 기계화창안문제를 좀 의논해보자구.

기선 나같은게 뭘 알아야지.

석철 여 기선이, 기선이! 자, 그러지 말구 이걸 좀 봐달라구. 동무 요즘 나한테 무슨 의견있는것 같은데... 조합을 혁신시켜야 할 동무가 왜 날 멀리하는지 원...

기선 석철동무, 량심대로 말하게.

석철 뭘때?

기선 조합을 혁신시키자는게 진심인가?

석철 뭐라구?

기선 진심이라면 무엇보다문에 옥음을 충동하는가? 조합을 떠나게 말이야.

석철 내가 충동한다구?

기선 동문 천재요 천재, 공훈배우, 인민배우가 다 뭐야. 그래 이게 충동이 아니구 뭐가? 이게 조합을 혁신시키자는 사상인가? 알곡 100t을 더 증산하자는 당의 사상이나 말이야? 사랑을 하려면 참다운 사랑을 하라구.

석철 (웃는다.) 하하하, 오해하구있구만.

기선 오해라구?

석철 여 기선이, 소라는 놈두 말ियो, 말썽을 부릴 땐 이 고삐를 당겼다가 척 풀어줄줄두 알아야지. 안 그렇소?

기선 재담깨나 한다구 누굴 얼렁뚱땅 얼려보려구.

석철 뭐요?

기선 날더러 융화하란 말인가? 동무처럼 옥음의 비위를 맞추란 말이지.

석철 거야 필요에 따라선 좀 맞춰줄줄두 알아야지.

기선 관리위원장동지에게두 다 반영을 했지만 난 백번 죽어두 그런젠 못하겠어, 못하겠어.

석철 사람두 참. 여 기선동무, 좌우간 오늘 밤엔 민청원들이 옥음이네 집에 모이기로 했으니 그때 만나서 토론해봅시다. (나간다.)

△송재 나온다.

기선 영? 옥음이네 집엔 왜? (기선 석철이가 있는줄 알고 계속 말한다.) 관리위원장동지가 그만큼 낮에 모이라구 했는데 밤엔 왜 자꾸 모여? 그리구 툭 터놓고 말해서 관리위원장동지에게 보수주의가 있긴 하지만 로력이 문제 문제야. 그런데두 극장으로 떠나라구? 이게 조합을 위한 생각인가, 왜 말 못해? 왜 대답을 못해?

(기선 돌아서다 송재와 부딪친다.)

아니, 저... (바빠한다.)

송재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거.

기선 위원장동지, 미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송재 기선이, 이 사람— (혼자소리로) 저 사람이 제초기창안에 골몰하더니 잘못되지 않았어. ... 모를 일이군. (삼태기를 걸고있는 서로인을 보고) 밤이 깊었는데 주무시지 않구 뭘하구 계십니까?

서로인 아이구, 위원장이냐? 어서 여기 와 앉게.

송재 옥음인 어딜 갔나요?

서로인 밥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며칠전부터는 축산반에 가서 사는 모양이야.

송재 저, 옥음이가 극장으로 가겠다는데 보내줄가요?

서로인 보내다니, 제 고장보다 더 좋은데가 어디 있나. 한동안은 나보구두 그러기에 욕을 했더니 요샌 그런 말이 없어.

송재 뒤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는것 같은데 후에도 그런 말을 하면 타일러주십시오.

서로인 충동질하는 놈이 있어? 어느놈이야, 어느놈이야?

송재 아 아, 됐수다.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지지요.

서로인 뭐라구?

송재 (서로인 귀에 대고) 내가 책임진단 말입니다. 들어가 쉬십시오. (삼태기를 발견하고) 아니, 수매소에서는 바구니를 요구하는데 왜 삼태기를 걸습니까?

서로인 범바위산을 개간하자면 삼태기가 필요하겠기에...

송재 아니, 범바위산을 개간한다구 누가 그러니까?

서로인 방금 석철이가 와서 그러데.

송재 석철이가요?! 이 사람이 아직...

서로인 저 위원장, 거 개간한다는게 아니라 이제 개간하게 될거라구 하기에 이를테면 내가 앞질러 준비하는거지.

송재 예, 알만합니다. 쉬십시오.

서로인 왜, 가려나?

송재 예, 가겠습니다.

△달수 흥얼거리며 나온다.

송재 거 반장동무 아니요?

달수 오셨습니까?

송재 이 밤중에 어딜 갔댔소?

달수 예, 래일사업토의때문에 봉녀아주머니네 집에 갔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옵니다. 왜요?

송재 붙잡히다니요?

달수 가보니까 민청원들이 한구들 모여앉아서 《범바위산을 개간하자!》 하구 토론을 합디다.

송재 그래서요?

달수 거 뭐 청년돌격대를 조직한다나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그럴듯합디다.

송재 석철이도 거게 있습니까?
 달수 예, 민청위원장이 석철이를 적극 내세웁니다.
 송재 반장 그 장단에 춤을 추다 왔소?
 달수 아닌게아니라 춤이 나오게끔 장단을 잡습니다.
 송재 (큰소리로) 이것 보오. 그 사람이 구체적인 타산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대학 가는데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날뛰는것두 모르구. 그래, 반장이 그 장단에 춤을 춰야 옳소?
 달수 아니, 그럼 석철이 그 사람이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조합에 왔단 말이요?
 송재 지금까지 그 사람이 허황한 말을 해도 호의로 대해왔는데 오늘 낮에 기선이란테서 그 사람에 대한 반영을 듣고서야 비로소 날뛰는 리유를 알았소. 추천장이든 소개장이든 뒤흔친 일을 하자구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소. 아직도 있습니까?
 달수 있을겁니다. 가보십시오.
 송재 들어가 쉬우.
 △달수 들어간다.
 금단 (나오며) 나오셨나요.
 송재 금단이로구나. 어딜 갔었니?
 금단 동무들 집에 다녀옵니다.
 송재 야, 석철이 대학 간다는 말 못 들었니? 들었지?
 금단 못 들었어요.
 송재 못 들었어? 야, 내가 준 과업을 집행하는 거냐 마는거냐. 오늘밤중으로 중간총화짓자.
 총화보고서를 내 책상에 갖다놔.
 (금단이의 눈치를 보고)하하, 하긴 그 사람이 결을 안 준다지? 아, 기회를 타서 접근해라. 사람하나 바로잡아준다는게 쉬운 일인가.
 그 사람만 잘 안착시키면 말썽군인 옥음이도 꺼 물어 고칠게다. 그렇지. (나가려다 돌아서며)참, 그 사람 대학갈 모양인데 큰일은 제기 안해도 제 말은 일만 성실히 하면 추천장을 잘 써준다고 해.
 금단 예.
 △송재 나간다.
 금단 (옥음이네 집으로 가서) 옥음아! 옥음아! 서로인 오.
 금단 할아버지, 옥음이 어딜 갔나요?
 서로인 없다. 왜 그러니?
 금단 할말이 있어서요.
 서로인 이제 오겠지.
 금단 예, 그럼...
 △서로인 들어간다.
 △송씨 나온다.
 송씨 애 금단아, 아버지 못 봤니?
 금단 이제 오시겠지요. (나오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

송씨 아니, 어디 갔됐소?
 달수 나야 반장이 아니요. 어떻게 가만 앉아있겠소, 초급간분데... 하하.
 금단 아버지! 석철동무 못 봤나요?
 달수 오, 봉녀아주머니집에서 봤다.
 △금단 나가려 한다.
 송씨 애, 금단아!
 금단 어머니, 인차 와요. (나간다.)
 송씨 금단아, 저 앤 또 어딜 가누.
 달수 어딜 가든.
 송씨 금단아!
 달수 놔두라니까.
 송씨 놔두다니요. 당신은 정말...
 달수 알지두 못하면서...
 송씨 알지두 못하면서... 요새 우리 금단이가 류달리 석철이를 생각하는것 같아요.
 달수 뭐, 금단이가 석철이를 생각해?! 차, 이런. 교양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거야, 교양.
 송씨 누가 누구에게 교양을 줘요?
 달수 누구긴, 우리 금단이가 석철이를 교양하지.
 송씨 무슨 소린지. 아, 위대한신 수령님 교시랑 한마디도 빼놓지 았구 뚜르르 외우는 그 사람에게 교양을 줘요?! 교양을 받는다면 몰라두...
 여보, 석철이 그 사람이 옥음이하구 이상하다는 소문이나 아시우?
 달수 내 듣기엔 기선이가 옥음일 마음에 뵈었다고 하던데...
 송씨 한쪽만 좋아가지구 성사가 된답디까.
 달수 그럴수가 있나.
 송씨 왜 그럴수가 없어요. 옥음이가 글썽 말썽을 좀 부린다고 해도 인물이 못났나, 창가 한마디 잘 뽑겠다, 총각이 왜 그런 처녀를 마다하겠소? 옥음이 할아버지도 아시구 좋아하시나 봄디다.
 달수 음, 옥음이가 한때는 조합을 뜯다만다 하더니 요샌 그런 말도 없어.
 송씨 랑군을 만났는데 왜 떠나겠소. 우리 금단이가 수척해가는게 바로 그때부터예요.
 달수 여보, 그녀석 미우면서도 은근히 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송씨 참, 당위원장어른이 오셨됐수다.
 달수 당위원장이?
 송씨 당신 래일 아침에 독보회를 하래요.
 달수 독보?
 송씨 예, 내용이 중요해서 당신이 해야 한대요. (신문을 준다.) 젊은 사람들에겐 망신당하지 않겠으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떠난다.)
 달수 놓으라구요. 어험. (신문을 펼치며) 내각결정 77호 100만정보개간할데 대하여라! 야, 이거 큼직하게 실렸군.

(가만히 앉아있는 송씨에게) 뭘 생각해?
석철이는 대학갈 사람이야. 들어가서 내 안경이
나 찾아주오.

송씨 석철이 그 사람이 펴 마음에 들었는데...
△달수, 송씨 들어간다.

△옥음 코노래를 부르며 나온다.

△서로인 토방에 나와앉는다.

옥음 할아버지, (조용히 다가서며) 할아버지!
서로인 오, 이제 오니?

옥음 할아버지, 동무들이 우리 집에 모여요.

서로인 그래? 그럼 방안을 좀 치워야겠구나. 석
철이가 오겠더라.

옥음 그래요?

서로인 금단이두 왔다갔다. 무슨 할말이 있다
더라.

옥음 금단이가요?

서로인 (옥음이의 신발을 보고) 에이구, 이 신발
을 좀 봐, 인다오.

△옥음이 할아버지신발을 끌고 달수네 집으로
간다.

서로인 야, 제 신을 두구...

옥음 금단아! 금단아!

△안에서 소리 《봉녀아주머니집에 갔다.》

옥음 봉녀아주머니집에요? (서로인신발을 그
대로 신고 밖으로 나간다.)

△기선 나와서 옥음이네 집을 살핀다.

옥음이가 들으라는듯 노래를 부른다.

뼈꼭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로동으로 행복을 열고...

△기선 토방아래 옥음이의 신발을 발견하고 조
심히 토방에 앉는다.

기선 할아버진 어델 가셨어?

△서로인 안에서 기선이를 못 보고 문을 닫는다.

기선 흥, 이제 보기두 싫은 모양이구나.

내 한마디만 하구 가겠소. 가라, 공훈배우가 되
든 인민배우가 되든 동무 가고싶은데로 가란 말이
야. 차라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서로인 슬며시 내다본다.

기선 (흥분하여) 가라구, 가서 성공하라. 난 정말...

서로인 뭐가 어떻게 됐어? 이녀석아...

△기선 깜짝 놀라 돌아선다.

서로인 옥음일 충동한 녀석이 네녀석이로구나.

기선 할아버지, 사실은 그렇게 된것이 아닙니
다. (도망친다.)

서로인 저녀석 잡아라! 예, 그녀석 똑똑한줄 알
았더니 몸쓸 녀석이로군. (들어간다.)

△금단 나와서 이 광경을 본다.

기선 (다시 슬며시 나와서) 야, 내가 오늘 왜 자
꾸 이렇게 되니?!

금단 기선동무!

기선 금단동무요? 옥음이한테 비판을 했더니 할
아버지가 저러시질 않아.

금단 남자가 왜 그렇게 비겁해요.

기선 다 들었어? 야, 단념하자구 하면서두 왜
그런지...

금단 그래서 요즘 개별경쟁에서 뒤꼬리를 따르
나요?

기선 금단동문 석철이가 원망스럽지 않소?

금단 원망하고 안하고가 없지요 뭐.

기선 금단동문 정말 용소. 석철동무가 하자는
일에 노상 선두에 서니 말이요.

금단 선두에 서야지요. 그 동무가 누구를 사랑
하든지간에 그 동무가 하자는 일은 다 좋은 일이
니까요.

기선 그야 그렇지만...

금단 기선동무! 우리 일을 하자요. 제초기창안
을 꼭 성공시키세요.

기선 알겠소. 내 꼭 성공시킬테니 두고보우.

금단 기선동무!

기선 금단동무!

△이때 무대밖에서 석철이와 옥음의 웃음소리.

기선 저것 보우. 눈앞에서 자꾸 저러니 내가...

금단 이리로 오는것 같은데 피해주자요.

기선 저희들이 피하라지. 난 못 피하겠소. 내
오늘 결판낸다.

금단 기선동무!(끌어당기며 데리고나간다.)

△석철, 옥음 나온다.

석철 (수첩을 꺼내들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오.

옥음 오, 그러니까 매 사양공이 어미돼지 두마
리씩 더 말자고 제기했지요 뭐. 처음에는 몇동무
들이 접수하지 않더군요. 그래 《동무들! 평양방
직 공장 직포공들은 혼자서 그 복잡한 기대를
50대이상 다루어요》이랬더니 모두들 접수하더군요.

석철 그래서요?

옥음 그래 남은 로력은 개간사업에 돌리자고 호
소하니까 모두들 호응해나서더군요. 그래 열명
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석철 아니, 열명씩이나요? 가만, 그러니까 열명
을 개간사업에 돌리고도 축산일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단 말이지요?

옥음 예.

석철 수고했소. 정말 좋은 일을 했소. 그러니까
축산반에서 또 10명이라...

옥음 뭘 적어요?

△ 기선, 금단 나온다.

석철 내가 통신원이라는걸 모르오? 매일 아침에 조합벽보를 한번 보시오. 혁신자 서옥음!

옥음 아이, 망칙해라.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돌아서서 기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석철 그러니까 축산반에서 열명을 보내주기로...(기선 발견하고) 오, 기선동무도 왔구만.

기선 (홍분하여)이래도 오헨가, 이래도 오해야? 야, 정말...(뛰어나간다.)

석철 여, 기선동무!

옥음 기선동무! (석철에게)보라요. 저러니까 내가...(집으로 들어간다.)

석철 아니, 옥음동무! (자기를 보는 금단에게) 저... 동무두 그렇게 생각합니까?

금단 조합의 여론이 좋지 않아요.

석철 아니,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도 건전치 못하다 이 말이군요.

금단 그런 일이야 언제나 자기자신이 더잘 아는 법이지요.

석철 좋습니다. 허나 만난김에 부탁할건 합시다. 개간사업에 민청원들이 동원되도록 좀 힘써주시오. 그렇게만 해주면 동무가 나때문에 쓰는 신경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내 스스로 이 땅에 발을 붙이겠소. 그것뿐입니다.

금단 (나가려는 석철이를 불러세우며)석철동무! 이제 동무들이 모이겠는데 로력예비에 대해서 미리 토론해보자요.

석철 아니, 그럼 동무두 범바위산개간을 지지하오?

금단 난 처음부터 동무를 지지했어요.

석철 응! 헌데 울긴 왜 읊니까?

금단 난 울지 않아요.

△ 달수 대문안에서 내다본다.

석철 이상한데...

달수 애 금단아, 너 거기서 뭘 하니?

금단 저... 로력예비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달수 저 못난년같으니, 썩 들어오지 못해?

금단 이제 들어가요.

석철 자, 우리 반장아저씨두 계시는데 안에 들어가서 토론합시다.

△ 금단 들어간다.

석철 (따라들어가려고 하는데 달수가 막는다.) 왜 이러십니까?

달수 래일 만나게.

석철 제격 만나고 나옵니다.

달수 우린 자야겠네. 옥음이네 집에나 꼭 가라.

석철 아니, 내가 이 집에 왜 들어간다구...

반장동지! 난 금단동무를 잠깐...

달수 (대문을 닫으며) 몰라, 몰라, 몰라. (들어간다.)

석철 (안에 대고)금단동무! 잠시후에 옥음동무네 집에서 민청원들의 협의회가 있는데요...

송재 (나오며)거 누구요, 이 밤중에 떠드는게 누구요?

석철 석철입니다.

송재 석철이가 어떻게 여길?!

석철 저 금단동무가 뭘 좀 토론하잖다가에...

송재 뭐라구, 금단이가?

석철 예.

송재 그럼 들어가지 여기서 왜 그러우?

석철 반장동지때문에...

송재 들어가오.

석철 반장동지가 주무시겠다고 들어오지 말랍니다.

송재 자는 사람은 자더래두 토론할거야 해야지.

석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송재 들어가서 반장은 내보내구 동무는 들어가오.

△ 석철 들어간다.

송재 금단이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만.

△ 이때 처녀 1,2 나온다.

처녀1 저녁 잡수셨나요?

송재 밤이 깊었는데 자지 않고 왜들 돌아다녀?

처녀2 우린 옥음이네 집에...

처녀1 (처녀2의 말을 막으며)아니, 금단이네 집에 가요.

송재 (금단이의 집 대문앞을 막아서며) 야, 금단이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있어.

처녀1,2 중요한 일이요? 무슨 일을 하나요?

송재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몰라도 돼. 가서 자구 래일 만나라, 빨리.

△ 처녀 1,2 나간다.

달수 (나오며) 불렀습니까?

송재 석철이가 들어갔지요?

달수 가서 자라는데두 기신기신 들어오면서...

송재 내가 들어보냈소.

달수 그래요?

송재 내 오늘 그 사람을 만나 톡톡히 타일러주려던 참인데 내대신 금단이가 나섰으니 알아듣도록 타일러줄거요.

달수 예.

송재 아주머니는 주무시우?

달수 왜요?

송재 주무시지 않으면 아주머니두 나왔으면 좋겠는데...

달수 예?!

송재 거 옷사람이 옆에 있으면 할말두 안할게 아니요.

달수 예. (들어가려고 한다.)

송재 자면 깨우지 말구요.

달수 아직 자진 않을겁니다. 가만, 금단이더러 석철이를 만나 담화하라고 타일렀습니까?

송재 그랬더니깐요. 말은 과업이야 어디까지나 수행해야 할게 아니요.

달수 예. (들어간다.)

송재 (노래조로) 전야에는 알곡풍년, 마을에는 인재풍년... 오늘은 이것, 래일은 저것. 하하, 금단이가 똑똑해...

△ 이때 달수가 송씨를 끌고나온다.

달수 여보, 우리 시원하게 바람 좀 쐬자구.

송씨 (줄리는 투로) 한밤중에 왜 이러시우?

달수 거... 뭐, 산보를 좀 하자.

송씨 산보?

달수 산보!

송씨 산보구 뭐구 난 춤췄다.

달수 추우면 이 옷을 좀 입으라구. (자기 옷옷을 썩워준다.)

송씨 새삼스럽게.

△ 송재 웃는다.

송씨 (송재를 발견하고) 나오셨나요.

송재 금단이가 석철이보구 뭐라고 하던가요?

송씨 글썩요. 뭐라구 했는지는 잘 못 들었는데... 석철이 그 사람이 수첩을 꺼내놓구 뭘 쓰기까지 하면서... 예, 접수한다고 해요.

송재 그래요? 됐습니다.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 잘못만 깨달으면 인차 시정할겁니다.

하하, 저... 반장동무! 달두 밝구 한데 우리 마을을 돌아보면서 조합애기나 좀 합시다. 얼마나 좋은 밤이요.

달수 예, 좋은 밤입니다.

송재 달이 찌지게 밝습니다.

달수 예, 찌지게 밝습니다.

△ 송재, 달수, 송씨 한바퀴 돌고나간다.

△ 남자1, 남자2 나와 이 광경을 보고 웃는다.

덕실 (뛰어들어오며) 성팔동무, 나두요.

(옥음이네 집에 들어가려 한다.)

남자1 아니, 동문 왜 여기 왔소?

덕실 뭐예요? 이 동무가... 나두 천리마를 타고 싶어서요.

남자2 하하. (옥음이네 집에 대고) 할아버지!

남자1 옥음동무!

△ 남자1, 남자2, 덕실 옥음이네 집에 들어간다.

석철 (금단이네 집에서 나오며) 다들 모이는구만.

금단 (자기 집에서 나오며) 저... 이거 받으시라요 (보자기에 싸것을 석철이에게 준다.)

석철 이게 뭐요?

금단 다림발이 잘 서지 못했어요.

석철 고맙소.

금단 다음부터 옥음동무가 빨아주겠지요.

(금단 옥음의 집으로 들어간다.)

석철 하하, 단단히 꼬였군. 옥음동무! (석철이도 옥음이네 집으로 들어간다.)

△ 이때 마을을 돌아본 송재, 달수, 송씨 언덕길로 내려서며 나온다.

송재 좋은 밤이요.

달수 예.

송재 반장동무!

달수 예. (멈춰선다.)

△ 줄며 뒤따라 나오던 송씨가 달수잔등에 이마를 쫓는다.

송재 자, 앉읍시다.

달수 예.

△ 송재, 달수, 송씨 바위에 앉는다.

송재 반장동무, 지금 조합원들은 폭신한 이부자리로 잠자리를 봤을겁니다. 조합원들은 자구 우리 간부들은 조합원들을 생각한다! 얼마나 좋은 밤이요.

달수 좋은 밤입니다.

송재 반장동무, 내 늘 말했지만 우리 조합원들을 어련애 돌보듯 해야 합니다. 저녁마다 집집을 방문하면서 무슨 애로가 없는지 또 문이나 열어놓고 자지 않는지 잘 돌봐야 합니다.

△ 송씨 달수의 잔등에 기대어 코를 곤다.

송재 내 귀엔 조합원들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은데요.

달수 코고는 소리라니요? (송씨를 툭 친다.)

△ 송씨 잠결에 넘어진다.

송재 금년농사만 잘되면 반장동무의 사업에도 평가가 있을겁니다.

달수 나야 뭘... 하긴 사흔작도 했겠다, 풍년이야 갈데 없지요.

송재 그렇다구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알곡도 알곡이지만 현금분배도 작년보다 앞서야 할게 아니요.

달수 예.

송재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발전해야 합니다. (송씨에게) 안 그렇습니까?

송씨 (하품을 하다가) 네? 예, 사람은 똑똑해요.

달수 누구 말이요?

송씨 석철이 말이웨다.

송재 줄리신가 보군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 서로인 군감자를 들고 미담이문을 열고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고 다시 나간다.

△ 연극은 옥음의 집 방안에 있는 석철을 비롯한 청년들과 바위에 앉은 송재, 달수, 송씨를 동시에 펼쳐보인다.

석철 범바위산개간을 위한 로력문제는 이자 방금 토론한대로 합시다.

모두 예!

석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뜯어먹구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뜯어먹어야 우리 인민들이 잘살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들도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산을 잘 리용합시다.

자, 동무들! 이걸 좀 보오.

덕실 아니, 이거 뭔가요?

석철 우리 조합 전망도요. (전망도를 걸어놓는다.)

송재 난 이런걸 생각해보았는데... (종이를 펼친다.) 좀 보시오.

달수 계획서입니까?

송재 조합전망도올시다.

달수 전망도요?!

석철 이 범바위산만 정복하면 주변에 있는 이 산들을 모두 정복할수 있습니다. 동무들! 문화생활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앞장섭시다. 내 생각같은서는 금년내로 우리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번듯하게 짓자는겁니다.

송재 자, 문화생활에서두 한걸음 앞서야겠는데... 제일 낮은 집부터 보수하면서 점차적으로 초가집이영을 돌기와로 바꿉시다.

달수 좋지요. 우리 두메산골이 지상락원이 되겠군요. (송씨에게)여보, 어땡소? (전망도를 보인다.)

송씨 (잠결에 전망도를 보고) 그 종이는 도배지하면 좋겠어요.

송재 도배지?! 도배지는 후에 공급하겠습니다.

석철 (전망도를 가리키며) 이 맑은 시내가옆에는 우리 꼬마들이 뛰어놀수 있는 아담한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다는 유치원을, 여기에다가는 탁아소를 멋있게 지어줍니다.

송재 요 대장간옆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강냉이짱- 튀는 집을 자그마하게 지어줍니다.

달수 야, 요건 위원장동지만이 생각할수 있는 희한한 계획입니다.

처녀2 요 흰 줄은 뭔가요?

달수 요 파란 줄은 뭘니까?

석철 이 흰 줄은 자동차길을 표시한것입니다.

송재 요 파란 줄은 오솔길을 넓혀 달구지길을 만들자는겁니다.

석철 동무들! 앞으로 이 자동차길에는 세멘트포장까지 번듯하게 합니다.

송재 요 달구지길에는 번듯하게 석비레를 깔자는겁니다.

달수 희한합니다, 하하하...

석철 자, 이건 양어장, 이건 파수원, 이건 약초밭을 표시한것입니다. 어디로 가나 오폭백과 무르익는 곳으로 만들자는것입니다.

남자2 동무들, 의견있소?

모두 없습니다.

송재 자, 의견있소?

달수 절대찬성입니다.

송재 저... 아주머니는요?

송씨 (잠에서 깨어나며) 예, 들어가랴구요? 예! (송씨 대문안으로 들어간다.)

△청년들 노래부른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었소

...

송재 아니, 저게 무슨 소리요?

달수 젊은것들이 옥음이네 집에 모인것 같습니다.

송재 지상락원이 펼쳐졌으니 웅당한 일이지만 래일작업을 위해서 당장 해산시켜야겠소.

달수 알겠수다.

석철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당은 지도해줄것ियो.

모두 예.

송재 아니, 저게 석철이가 아니요?

달수 예.

송재 노래재담을 또 만드는데로구만.

석철 관리위원장동지가 발견한 돌각담들추기에서부터 우리 민청원들이 선두에 섭시다.

모두 예!

송재 돌각담들추기?! 석철이가 마음을 돌려먹었다.

석철 그럼 우리 이 문제를 관리위원장동지에게 말씀드리는게 어떻습니까?

모두 좋아요!

석철 자, 우리 밖으로 나갑시다.

송재 하하하... 석철이가 땅에 발을 붙였수다.

달수 이게 다 우리 금단이 공로지요.

석철 (옥음이의 집에서 나오다가 관리위원장을 발견하고) 위원장동지! 동무들, 위원장동지요.

모두 위원장동지!

송재 동무들의 열성이야말로 대단하오.

석철 (계획서를 펼치며) 이걸 좀 봐주십시오.

송재 됐소, 됐소. 난 동무가 우리 조합의 핵심이 될수 있다고 인정하오.

석철 아니, 그럼 저희들의 결의를 지지해주시겠습니까?

송재 지지하지, 지지해.

석철 동무들! 위원장동지를 추어올리지요.

△청년들 위원장을 추어올린다.

석철 관리위원장동지, 잠자리가 날아오는것 같습니다.

송재 잠자리가 뭔가?

석철 잠자리비행기 말입니다. 우리 중공업위

원회에서는 트랙토르나 자동차뿐아니라 머지 않은 앞날에는 비행기도 보내줄겁니다.

송재 비행기?!

석철 그때 저 범바위산뿐아니라 장수봉까지 모두 정복할수 있을겁니다.

남자2 동무들, 우리 춤을 춥시다.

모두 좋소! (노래하며 춤춘다.)

옹헤야...

송재 (노래를 중단시키며) 가만, 동무들이 지금껏 뭘 결의했소?

석철 우리야 범바위산개간을 위해서...

송재 뭐, 범바위산?

모두 예, 범바위산!

△ 청년들의 웨침이 메아리로 되어 울린다.

석철 저 범바위산이 우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송재 (달수에게) 반장동무! 들리오?

달수 글썽요. 들리는것 같기도 하구 또 못 들리는것 같기도 하구...

모두 (웃는다.)

송재 범바위산이라?!

모두 예!

송재 생각해보자.

△ 전환막이 내린다.

△ 전환막앞으로 덕실, 처녀1, 2 나온다.

△ 우뢰소리가 들려온다.

처녀1 애들아, 빨리. 새벽닭이 벌써 두번씩이나 울었어.

처녀2 늦지 않았을가?

덕실 빨리 강을 건너가자. 우리가 어떻게 개간한 범바위산이가.

처녀1 현대 강물이 더 불지 않았을가? 밤새 비가 왔는데...

처녀2 김매기계획이 늦어지게 되었으니 관리위원장아저씨 또 야단치겠구나.

덕실 아이구 답답하다. 빨리 강을 건너가자.

△ 덕실, 처녀1, 2 나갈 때 전환막이 오른다.

제4막

때 제초기

곳 립진강 상류

무대 강언덕이 무대를 가로질러갔다. 보이지는 않으나 언덕에 오르면 강물을 내려다볼수 있다.

언덕앞으로는 수림이 무성하다. 강건너 후면으로 산과 산사이를 에돌아 목이 메게 흐르는 강물의 일부가 보인다.

아름드리나무 한그루가 서있다.

전환막이 오르면 이른새벽이다. 장마로 하여 산

천초목이 한층 더 푸르다. 썩아— 강변을 치며 흐르는 물소리, 강가에서 피어오르는 새벽안개가 산허리를 감고 서서히 퍼져오른다.

△ 송재 맥없이 나와 강 저쪽을 멍하니 바라본다.

달수 (뛰어나와 언덕에 올라서며) 저 누구니?

처녀들소리 저희들이예요.

달수 썩 올라서지 못해.

처녀들소리 올라가요.

달수 에이구, 물귀신이 되고싶은게로구나. ... (송재를 발견하고) 나오셨습니까. 근심마시구 들어가보십시오. 어제 밤에두 밤새 비를 맞으시구... 그러다 감기드시겠습니까.

송재 감기가 대수요? 알곡 수신통이 녹고있는데...

달수 며칠 늦었다구 그렇게야 되겠나요.

송재 며칠이라는게 뭐요. 저 범바위산은 새로 개간한 땅이라 잡초가 강냉이를 덮었을거요.

제초가 하루 늦으면 수확이 한톤이상 감소됩니다.

달수 아이구, 더 잘살자는 욕심이 그만... (하늘을 쳐다보며) 망할 놈의 하늘!

송재 하늘을 원망할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시오. 모든건 관리위원장인 내 불찰이니까.

달수 그야 어디 위원장동무의 불찰입니까, 조합원들모두가 하자 해서 개간한건데.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동무야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따라갔지요.

송재 바로 그거요. 반장동무나 나나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구 악악하는 바람에 휩쓸려들어간 그 상상을 고쳐야 한단 말이요. 에이구, 아까운 종자와 로력만 낭비되었으니... 내 이럴줄 알았단니까.

달수 범바위산을 개간한거야 잘한거지요.

송재 뭐요?!

달수 거기서 자란 강냉이 보십시오. 이렇게 쭉쭉...

송재 (달수 말을 자르며) 무슨 소릴 하고있소. 범바위산때문에 이것두 저것두 안될가봐 걱정이란데... 이럴 때 석철이 잠자리비행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달수 예?! 잠자리비행기요?!

송재 반장동무! 우리 혁명적으로 해결합시다.

달수 혁명적으로요?

송재 예, 읍으로 돌아.

달수 읍으로 돌아.

송재 다리를 건너서.

달수 다리를 건너서.

송재 산발을 타고 갑시다.

달수 아이구, 왕복 60리길을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송재 황소걸음으로 가겠소? 뛰어야지. 달리잔 말이요. 선두에는 내가 서겠소. 대답할 때 가서는 대답해야 하는거요. 하하.

달수 그게 바로 리당위원장동무나 석철이가 입

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송재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요. 종은 나한테 주시우.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앞으로 모이라고 하시우.

달수 예, 인차 따라가겠습니다.

송재 수고해주시우.

△ 달수 뛰어나간다.

△ 사품치는 강물소리.

△ 송재 강을 내려다보다가 나간다.

△ 금단 청년들과 함께 나온다.

금단 어마나, 물이 굉장히 불었구나.

△ 청년들은 나가고 금단 떨어진 속보판을 붙인다.

석철 (나오다 금단이를 발견하고) 줍소? (자기 웃옷을 찢어주며) 이거라두 좀 걸치오.

금단 싫어요.

석철 거 좀 빨아달라는거요.

금단 내가 옥음인가?!

석철 옥음이? 임자가 있는 처녀에게 부탁할수야 없지 않소, 그렇지 않아두 기선동무가 잔뜩 오해하고있는데. 그동안 동문 괜히 안타까워했지만 나야말로 진짜 속을 썩었던 말ियो.

금단 예?!

△ 함께 즐겁게 웃는다.

석철 금단동무, 우리 결산분배나 끝내고는 저 아래 계곡사이에다 다리를 놓자고 제기해야겠소.

금단 다릴요?!

△ 음악효과

석철 량바위에다 의지해서 허궁다리를 놓으면 철과 세멘트를 안 들고고도 사람들이나 건너갈 다리는 쉽게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되면 저 산들을 모두 뒤집어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을수 있고 그 산골짜기에다는 공장을 세우고 사과실을 따서 직접 가공만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 가지고도 뎡그렁 잘살게 될거란 말ियो.

금단 그렇게만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사료만 가지고도 조합목축을 지금보다 세배는 늘일수 있을거예요.

석철 있구말구요. 공장이 아니라두 매년쫘은 강냉이를 가축사료로 돌리고 남을거요. 저 산들이 모두 가축들의 놀음터로 꼭 차게 해야 하오.

금단 어마나!

△ 함께 즐겁게 웃는다.

석철 금단동무, 우리 둘러리설 준비나 합시다.

금단 둘러리라니요?

석철 기선동무와 옥음동무가 올라올에는 결혼식을 할것 같은데 우리가 둘러리를 서줍니다.

금단 예.

석철 주례는 우리 당위원장동지가 서주시겠다고 했소.

금단 그래요? 호호.

△ 송재 언덕으로 올라서며 나온다.

금단 지금 기선동문 고민하고있어요. 옥음동무 보란듯이 제초기창안에 골몰하고있단 말ियो요.

석철 그거 좋은 일ियो. 참 금단동무, 그리구 거... 우리 결혼식때는 말ियो. 관리위원장동지 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해야겠소.

송재 (혼자소리로) 아니, 이게 어떻게 된노릇이야...

금단 위원장아저씨가 동무를 좋아하시는줄 알아요?

석철 위원장동지두 나를 마음에 들게 될거란 말ियो.

송재 (재채기를 한다.) 에이취.

△ 석철, 금단 놀란다.

석철 나오셨습니까?

송재 아니, 지금 무슨 소릴 하고있소. 저 소리가 들리지 않나, 저 물소리가?

석철 물소리요?

송재 물이 불었던 말ियो. 물이...

석철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송재 알고있어?

석철 (강쪽으로 올라가 내려다보며) 야, 이거 어제보다 더 불었는데...

금단 이 일을 어찌니...

석철 멋있구나.

송재 뭐, 멋있어?! 남은 물이 불어 속이 상해 죽겠다는데 멋있어?

석철 아, 이거 헤엄쳐 건너가면 될게 아닙니까?

송재 우리 조합원들이 물고기야, 물고기?! 도깨비같은 소리 그만하고 오늘 내 하자는 일에 앞장이나 서우.

석철 예, 앞장서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송재 무슨 일이나구? 저 범바위산이 보이지 않는가? 동무가 주장하던 저 범바위산 말ियो. 책임을 느낄줄 알아야지, 책임을! (나가다 금단에게) 날더러 뭘 서라구? 접근하라구 했더니 찰싹 붙었군. 흥. (나간다.)

금단 (석철에게)

... 저, 저 강물을 어떻게 건너요?

석철 걱정할것 없소. 작업반, 분조별로 어깨를 견고 건너가면 될수 있소.

금단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니, 저기 누가 와요.

석철 누구요?

금단 어마나, 우리 어머니 같아요.

석철 어머니가?

금단 날 찾으러 나왔나봐요.

석철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할 일을 하오? 대담하게 어머니를 만나봅시다.

금단 석철동무!

석철 만나봅시다.
 △ 송씨 나온다.
 △ 금단 숨는다.
 석철 새벽에 어딜 가십니까?
 송씨 석철이 자넨가, 다들 강을 건너갔나?
 석철 어딜요?
 송씨 어딘 어디야, 범바위산 말이지. 불은 경쟁이야 이겨야지. 무슨 일이 있든 천리마는 우리 작업반이 타야 해. 가만, 1작업반에선 벌써 김을 때려 나간것 같애. 우리두 빨리 강을 건너가자구. (송씨 신발을 벗는다.)
 석철 아니, 어머니! (막으며) 해염칠줄 아십니까?
 송씨 알지.
 석철 해염 말입니다.
 송씨 아니, 몰라, 몰라.
 석철 어제 밤에 물이 불어서 그냥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송씨 뭐라구? (강쪽으로 올라서서 내려다본다.) 에게나, 아니, 다들 어딜 갔을가? 우리 금단이두 새벽조반을 해놓고 없어졌는데...
 석철 어머니! 금단동문 여기 있습니다.
 송씨 여기라니? 어디?
 석철 금단동무! 어머니가 오셨소. 나오시오.
 △금단 마치못해 나와 어색하게 서있다.
 △송씨 의아해서 석철이와 금단이를 번갈아본다.
 석철 (어색해서 나무를 보며) 날이 좀 개이려나...
 송씨 애, 금단아!
 금단 먼저 건너가 일할 차빌 하려고 나왔는데 물이 불어서...
 석철 저두 그래서 나왔는데 금단동무하구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금단 예!
 송씨 난 나몰래 모두 강을 건넌나 했구나. 애, 너 잔등에 걸친게 뭐냐?
 금단 어마. (놀라서 벗는다.)
 석철 아, 어머니! 이건 제것입니다. 금단동무가 추워하길래 제가 잠깐...
 송씨 야, 너 추우면 이 사람은 춥지 않다던?
 석철 아니, 저... 전 왜 그런지 오늘 막 덥습니다.
 송씨 그래두 서로서로 생각할줄 알아야지. (석철이에게 웃옷을 씌워준다.)
 △ 밖에서 찾는 소리.
 송씨 모두 저기들 나와있었구먼. (나가다 속보판뒤에서 살짝 눈여겨보고 나간다.)
 석철 야! 벌써부터 사위를 생각해주시는데... 그래서 장모가 좋다구들 하누만.
 금단 난 몰라요. 부끄러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석철 그렇다구 잔치두 하기 전부터 집을 나올수

야 없지 않소.
 금단 이 동무가 정말... (뛰어나간다.)
 석철 아, 금단동무! 어딜 가요. 강건늘 문제를 토론해봐야지. (따라나간다.)
 △ 옥음 나오다가 그들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 이때 기선 축력제초기를 메고 나와서 그들쪽으로 가려 한다.
 옥음 (기선이를 발견하고) 기선동무! 그리로 가지 말아요.
 기선 왜?
 옥음 (가리키며) 저기 좀 보라요.
 기선 (그쪽을 보고 놀라며) 아니, 저게 석철동무와 금단동무가 아니요?
 옥음 재미나게 말하는데 우리 저쪽으로 돌아가자요.
 기선 옥음인 저걸 보구 가만있소?
 옥음 그럼 똥방을 놀라요?
 기선 아무렇지도 않느냐 말이야?
 옥음 조용하라는데 소린 왜 쳐요.
 기선 야, 난 도대체 뭐가 뭔지 동무의 속을 모르겠어.
 옥음 뭘 자꾸 그래요? 조용히 돌아가자는데...
 기선 (축력제초기를 내려놓고) 바른대루 말해. 석철동무를 사랑해, 사랑 안해?
 옥음 예?! 동문 정말...
 기선 도립극장에 간다는건?
 옥음 옛날이야기는 왜 꺼내요. 바보야 정말. (돌아선다.)
 기선 옥음이! 야, 난 정말... (강쪽으로 뛰어올라가 강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 석철, 금단 기선이의 소리에 놀라 나온다.
 석철 (강쪽으로 뛰어올라가 기선이를 잡으며) 기선동무! 왜 이래. 웬?
 기선 놓으라구, 강을 건너볼래.
 석철 뭐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대답해졌나?
 기선 강을 건너야 제초를 할게 아닌가?
 석철 가만 좀 있으라구. 옥음동무! 놔주랍니까?
 옥음 혼자 가서 무슨 김을 맨다구 그래요?
 석철 왜요, 건너가면 한이랑이라도 땀수 있지 않소.
 옥음 해염도 잘 칠줄 모르는데요 뭐.
 석철 그러니까 보낼수 없단 말이지요?
 옥음 아이, 몰라요. (얼굴이 붉어지며 금단이한테 달려간다.)
 석철 여 기선이, 안된다네. 정 참지 못하겠으면 저 풀에서 딥굴라구.
 모두 (유쾌하게 웃는다.)
 기선 석철동무! 날 용서하라구.
 석철 됐소. 제초기는 어떻게 됐나?

기선 제초기는 됐어, 성공했어. 자, 이거요.
 △ 락주 나온다.
 락주 일찍들 나왔구만.
 석철 당위원장동지, 이걸 좀 보십시오. 기선동무가 끝내 제초기를 완성시켰습니다.
 락주 어디 봅시다. 훌륭하오. 기선동무! 정말 수고했소.
 기선 당위원장동지와 민청원들이 다 도와준 결과입니다.
 석철 이걸루 저 강건너밭을 제초해보렵니다.
 락주 물론 그래야지.
 옥음 그런데 강물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석철 저... 제 생각엔 작업반, 분조별로 어깨를 견고 건너갈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락주 위험하지 않을까?! 좌우간 조합원모두가 저 강가에 나와있으니까 집체적으로 토론해보자구.
 석철 알았습니다.
 △ 옥음, 금단 나간다.
 락주 (나가려는 석철, 기선이를 불러세우며) 석철동무! 기선동무! 우리 잠간 긴급협의회를 합시다.
 석철, 기선 긴급협의회를요?!

락주 만약 저 범바위산에 적 한개련대의 병력이 있는데 아군 한개 소대로 점령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소?

석철 습격조가 강을 먼저 건너서 적들을 유도만 한다면...

락주 옳소! 회상기 《천보산의 용사》를 읽었지? 석철동무! 나하구 강을 먼저 건너가자구. 천보산용사들이 위험을 뚫고 적구에 들어가 적들을 소탕하구 동지들로 하여금 손쉽게 승리하게 한 그들의 용맹성을 본받읍시다.

석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강을 건너서 해야 할 일을 말입니다.

락주 해야 할 일은 나하구 먼저 강을 건너가면 되오.

석철 그럼 제가 먼저 강을 건느랍니까?

기선 야, 이럴줄 알았으면 해염을 배워둘걸...

락주 석철동무! 이 바줄을 늘이자구.

석철 아! 그러니까 강 이쪽과 저쪽에다 그 바줄을 매여놓는단 말이지요?!

락주 옳소! 한쪽은 이쪽에다 매여놓구 다른 끝은 끌고가서 강 저쪽에다 매여놓으면 다른 동무들은 그 바줄을 잡고 건너올테니까 안전할게 아니요.

석철 야, 장관이겠는데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 조합원들이 일시에 건는다!

락주 아마 볼만 할게야!

석철 저, 건널 때 민청원들이 합창을 부르는게 어떻습니까?

락주 그거 좋지.

기선 지금부터 아예 기세를 올리는게 좋지 않습니까?

락주 그건 안되오. 조합원들이 알면 우리가 건너가게 할것 같소? 절대비밀이요. 저쪽으로 건너자구.

석철 알았습니다.
 △ 락주, 석철, 기선 나간다.
 △ 달수와 함께 조합원들 모두 나온다.
 봉녀 아주버니!
 달수 야, 왜들 그래. 그건 마음뿐이지 위험하다니까.
 △ 관리위원회쪽에서 종소리가 난다.
 달수 자, 종소리가 나는데 고집부리지 말구 관리위원회앞으로 갑시다.
 봉녀 금단아! 리당위원장동지가 정말 건너가지 말라고 하시던?
 금단 건너갈수는 있겠지만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남자3 그거야 당위원장동지가 만일을 생각해서 그러겠지요.
 덕실 그럼 말난김에 건너가보지요.
 달수 (조합원들을 막으며) 안된다는데두 왜들 그래.
 봉녀 아주버니, 리당위원장동지가 뭐랬는지 알아요? 저 강건너 잡초들이 미국놈과 같다고 했수다. 한시바삐 잡초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100만톤알 곡증산에 이바지할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모두 옳아요.
 봉녀 그래서 모두 강을 건너가자구 하는데 60리를 돌아가자니 그제 말이 돼요?
 달수 아주버니, 그걸 누가 모르오?
 서로인 여보게, 달수! 안되네, 안돼. 돌아가자는건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생각해보라구. 돌아가자면 해가 지겠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자는 건가, 김을 매자는거지.
 모두 옳아요.
 서로인 안 그런가? 달수.
 달수 그렇습니다.
 봉녀 그렇다는걸 알면서두 왜 돌아가자구 해요?
 달수 나야 위원장동무의 지시니만치...
 금단 아버지, 관리위원장아저씨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뭐.
 달수 좋다! 내 인차 갔다오겠소.
 △ 송재 나온다.
 송재 이 종소리가 안 들리우? 빨리 모이라는데 여기서 뭘하는거요?
 달수 위원장동무! 여기선 돌아가는걸 반대합니다.
 송재 누가? 누가... 동무들! 전체 동무들이 한알의 알곡이라도 더 내고저 첫닭을 깨워가며 뛰어나온 그 열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무들도 아다싶이 저 강건너밭엔 잡초가 자라고있습니다. 이쪽밭엔 김을

매기 전에 흙을 매지 않았습니까?! 헌데 저 범바위산엔 이 강때문에...

서로인 (송재의 말을 자르며) 위원장! 우리두 다 알아.

송재 아실겁니다. 내가 말 안해두 아시리라고 생각했기때문에, 30리가 아니라 300리라도 돌아가리라고 믿었기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겁니다.

덕실 우린 지금 동원되어있습니다.

달수 위원장동무! 이 사람들은 모두 강을 바꾸건느자는 의견입니다.

모두 예!

송재 강을 건느다니? 그래, 석철동무가 그런 의견을 제기했소? 금단아! 이 사람 어디 갔니?

금단 모르겠어요.

송재 (달수에게) 당위원장동무가 강을 건느는걸 찬성합니까?

달수 위원장동무야 위험하니까 반대하시지요.

송재 보우, 동무들! 정신들 있소? 대답하자, 혁신하자 하니까 나중엔 강물에까지 뛰어들 작정이요? 이거 누굴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제초를 못하면 못했지 이 관리위원장으로서 승인 못하겠소.

모두 위원장동지!

송재 우린 알곡생산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긴단 말이요. 알겠소?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두 야, 위원장동지!

송재 아직두 내 말이 접수되지 않은것 같은데... (강쪽으로 뛰어올라간다.) 정 뛰어들고싶으면...

모두 예.

송재 저 내무서에서 허락받고 들어가시오. 자각적으로 돌아갈 사람만 관리위원회앞으로 모이시오.

△ 이때 당위원장이 부르는 소리.

《동무들!》

봉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금단 당위원장동지예요.

모두 당위원장동지?!

기선 (뛰어나오며) 자, 동무들! 덤비지 말고 이 바줄을 잡고 건느십시오. 안전합니다.

송재 바줄을 잡다니?

기선 당위원장동지와 석철동무가 이 한끝을 끝고 저 강건너에다 댔습니다.

△송재 강쪽으로 올라가 건너편을 바라본다.

모두 위원장동지!

△송재 생각깊이 내려선다.

서로인 위원장, (송재가 멘 종을 흔들며) 요게 종이 아닌가?!

송재 소리내지 마시우.

서로인 임잔 달랑달랑 하늘소야.

송재 하늘소?! 내가요?

서로인 그럼 천리만가? 천리만 이미 강을 건너 갔어.

송재 아니, 그럼 내가 정말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서로인 보습이 어떻게 댔다구?

송재 예, 보습에 녹이 쓸었던 말이우다.

모두 (즐겁게 웃는다.)

△ 이때 석철 《관리위원장동지!》하고 부르며 붉은기를 들고 뛰어들어온다.

석철 위원장동지! 어서 가십시오. 당위원장동지가 이 기발을 들고 빨리 건너오시랍니다.

송재 당위원장동무가?!

석철 예.

송재 석철이!

석철 위원장동지!

송재 가자, 갑시다!

달수 위원장동무, 돌아가지 않구요?

송재 내가 왜 돌아가. 보수주의자들이나 돌아가라구 해.

모두 (웃는다.)

송재 (강건너편에 대고) 당위원장동무! 나두 건너갑니다.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울려온다.)

석철 동무들! 우리 승리를 노래합시다.

△ 모두 노래 부른다.

질풍처럼 내달리는 천리마시대
하자고만 하면 안되는 일 없으니
웃으며 살아가세 즐거운 생활
웃음앞에 높은 산도 허물어진다
아— 아—
웃음앞에 높은 산도 허물어진다

△ 모두 힘있게 나간다.

서로인 (강쪽으로 올라서서) 위원장! 바줄을 단단히 잡고 떨어지지 말게.

△ 음악 흐른다.

△ 무대 점차 암전

종 장

때 체초기

곳 개간한 범바위산

무대 싱싱하게 자란 강냉이밭이 무대를 덮었다.

멀리 산밭들이 보인다.

무대 밝아지면 조합원들 강을 건너온 희열에 넘쳐 서로 얼싸안는다.

△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남자 1 해가 뜬다!

석철 관리위원장동지! 우리 이 범바위산을 개간

했으니 이젠 저 승리산도 황금산으로 만듭시다!
남자2 우리 여기다 발전소두 건설하구...
기선 양어장도 건설하구...
옥음 가축을 기르는 큰 목장도 세우자요.
모두 좋소!
락주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하자는것은 우리 대뿐 아니라 대대손손 이 땅에서 복락을 누려가는 행복의 이상촌을 꾸리자는겁니다.
모두 좋습니다!
송재 하자, 하자... 우리도 오늘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전진해나간다면 더 잘살게 될거야.
모두 위원장동지!
송재 금단아, 결국은 내가 진짜교양대상자였구나.
모두 하하하.
송재 석철이 이 사람, 래일을 향해 더 높이 날으려는 사람은 강산두 울리구 사람들의 심금도 울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낮은 언덕도 울리지 못한다는걸 내 똑똑히 알았네.
달수 지당한 말이웨다. 산울림은 여러 사람이 소리칠 때 더 크게 울려오는 법이지요.
송재 암, 그렇다마다요.

달수 그렇구말구요.
모두 (웃는다.)
△ 음악효과
석철 동무들! 우리 산골사람들을 남부럽지 않게 더 잘살게 하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평생소원입니다. 그러니 수령님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더 높이 달립시다!
모두 달리자요, 달리자!
석철 가야 해, 가야 해, 더 좋은 래일을 향해 우리모두 가야 해.
모두 암, 그렇다마다요.
석철 (언덕으로 뛰어올라가며) 아, 우리의 이상, 우리의 희망이 실현되는 래일! 흥해가는 내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이여!
모두 래일이여!(소리친다.)
△ 이 소리가 울림되어 메아리쳐온다.
△ 무대배경이 흐른다. 오늘의 이상촌 펼쳐진다.
△ 모두 희열과 광만에 넘쳐 손을 흔든다.
△ 음악이 고조되는 속에 막이 닫힌다.

- 끝 -

어머니와 하는 말

—비전향장기수를 대신하여—

방금 석

햇빛 따사로운 나의 집
하얀 벽엔
나의 행복한 삶의 순간순간을
굽어보고계시는 어머니의 사진
그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으시다

어릴적 꼴집을 지고 집에 오면
배부터 만져보며 눈물짓던 어머니
풀물든 옷 빨고 지워 입혀주며
애오라지 자신의 행복이 나였던 어머니

총메고 의용군에 입대하여 북으로 떠나올 때
어머니 걱정 하지 말고 어서 떠나라고
등을 떠밀어주시던 그날 그때처럼
공화국의 품 조국의 품으로 떠나던 날
그 걸음 재촉하시던 나의 어머니

수십년세월 나의 옥바라지에
몸은 쯤에 들듯 작아지고
머리의 흰빛은 고생에 타고타신
마음속 재가루인듯

허나 자식에 대한 사랑의 불은
바다도 말리울듯!...

내 공화국품으로 올 때
조국과 어머니
어머니와 조국을 두고
마음의 천평이 흔들릴세라
조국이라는 크나큰 분동우에
자신의 한생 분동되어 성큼 올려놓으신 어머니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나의 어머니시여
어머니의 시신은
불모의 땅 남녘에 묻히였어도
자신을 바친 그것으로 하여
조국의 품에서 이 아들과 함께 만복을 누리나니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이적 아명으로 찾고 부르며
—애야 조국을 위해 바친 삶엔 죽음이 없다
조국이 있어야 어머니 있거니
조국은 장군님의 품임을 꿈에도 잊지 말아라

인민의 총복으로

배 경 휘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 가나 볼수 있는 구호가 있다. 언제나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그 뜻이 아주 친숙해진 혁명적구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평양의 거리를 누비며 달리는 버스들에도 이 구호가 적여있고 인민정권기관의 어느 방에 들어가 봐도 이 구호가 걸려있으며 사회급양봉사망들에 찾아가봐도 이 구호를 볼수 있다.

취재길에서 이 말의 참뜻을 심장에 새기고 일해 가는 한 일군을 만나면서 나는 이 구호의 생명력을 새삼스럽게 그리고 인민의 총복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술일군들과 노동자들의 힘과 지혜를 총발동하여 송배전선로의 계통구성을 새롭게 하고 전압을 올림으로써 몇천키로와트능력의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는것과 같은 예비를 찾아낸 신의주시 송배전소의 일군.

내가 찾아갔을 때 송배전소 속보판에 크게 적여져있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바로 그들의 투쟁내용을 반영하고있었다.

《송배전체계를 개선완비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라!》

그가 지배인으로 온지는 2년도 안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런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고 벌써 상당히 추진시켰었다.

지난해에 그들은 방대한 공사들을 하였다.

남들이 다 쉬는 날에도 칼바람이 우는 전주우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때로는 안전바에 의지하여 전주를 그러안고 즐기까지 하며 새벽 3시까지도 선로를 늘이었다.

넓은 계통구성—선로배치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공사였다. 비가 오건 눈보라가 치건 계획된 일은 끝까지 무조건 해야 했다.

지배인이 앞장서서 이끌었다. 몸이 불편하여 구급차가 오기까지 했지만 그는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올해에도 그는 더욱 완강하게 전투를 벌려나가고있었다.

그가 나에게 하는 말.

《공사를 끝내고 전기를 투입했을 때 집집마다

켜지는 전등불을 볼 때처럼 기쁠 때가 없습니다.》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배전부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지배인은 중도반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겠다고 하면 끝장을 보고야 말지요.》

《끝장을 본다》는 그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일군들의 중요한 자질이 아닐가싶었다. 그러한 지배인의 정신적바탕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싶은 호기심에서 나는 말을 꺼냈다.

《지배인동무는 일단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하던데… 결코 쉽진 않았겠지요?》

그는 잠시 책상우를 응시하다가 심각해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생활은 걸음걸음 자기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말만 하는 허풍선이인지 아니면 시대의 요구에 실천으로 대답하는 인간인지 하는것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인간중의 참인간이시라고 생각하고 우러릅니다.》

그는 벽쪽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벽에는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제판이 모셔져있었다.

쿵, 가슴을 울려주는 뜨거운 충격이 나의 온몸을 휩싸안았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오로지 조국을 위한, 인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인민들을 위한 총복으로 사시는분이 아닌가.

우리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령도의 그 길에 오르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숭고한 애국의 리상을 한결음한결음 빛나는 실천으로 새겨오시었다.

정치가나 령수라고 하여 누구나 력사의 위인으로, 민족의 구성으로 칭송받는것은 아니다.

정녕 령토도 작고 인구도 작은 우리 나라가 분렬의 비운속에서 세계가 무시 못하는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르기까지에는 얼마나 험난한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고있었던가.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 험한 칼벼랑과 풍랑사나운 날바다도 있었다. 가슴저런 희생과 눈물의

대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창조의 예지로 걸음걸음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며 선군령장의 결단이 어떤것인가를, **김일성**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셨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황홀의 극치라고 세상이 찬탄하는 조선의 예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력과 방해로 짓부시며 푸른 창공에 솟아오른 《광명성 2》호에 이어 세계최첨단을 돌파한 CNC의 열풍과 주체철생산의 기적... 그 모든것은 우리 장군님의 리상과 담력이 어떠하며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되는가를 력사우에 영원불멸의 글자로 새기고있다.

실로 우리 인민에게 세상 최대의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는지, 얼마나 간고한 길을 걸으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다만 새해벽두부터 폐년에 없는 강추위를 무릅쓰고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더듬으며 고마움과 죄스러움에 송구함을 금치 못할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잔인하고 악랄한 압력과 봉쇄의 가시덤불을 박차고 이 땅우에 경제강국의 락원을 펼쳐놓으시려고 걷고 또 걸으시는 장군님.

유난히 푸르른 저 하늘로 쏟아져내리는 눈부신 해빛의 따사로움은 다가오는 강성대국의 환희를 느끼게 한다.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장군님이시기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에서는 불바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인민이다.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발자취에서, 세계를 놀래우며 솟구쳐오른 최첨단의 성공탑들에서 우리 인민은 그이의 리상과 지략을 보며 앞에 나뭇기는 투쟁의 가치를 본다. 인민을 위한 복무의 참된 정신과 인간행복의 리상향을 본다. ...

내가 만났던 지배인도 바로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것을 보았을것이다. 그래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속에 새겨안고 인민을 위한 일군의 자세를 가다듬었을것이다.

진정 인민의 총복이란 저 지배인처럼 아니, 장군님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인민의 행복을 쫓피우는 길에서 공민의 자각과 의무를 스스로 마음속에 걸머지고 앞장서나가는 수많은 일군들처럼 진정한 애국자들속에 있는가싶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벽찬 투쟁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려는 지배인의 결심과 의지가 훌륭한 열매를 맺으리라는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의 모습을 꼭 소설에 그리고싶었다, 진정한 인민의 총복을 주인공으로 형상한...

백 시

가을 날 별에서

김 경 남

1

가을같이 한창인 대지
뜨락또르 보습날에 번져지는 흙
거름먹어 거무스레한 흙도 있고
생땅으로 번져져 불그스레한 흙도 있구나
뜨락또르 보습날엔 흙만이 번져지는가
농장원들의 량심도 번져보게 되느냐

2

한이삭 한이삭 오사리를 벗기면
총알같이 박인 강냉이알
금빛으로 빛을 뿌리며
한알같이 통통 여문 알이 박인 이삭
너는 봄내 여름내 기울인 내 정성이 어떤것

반나마 알을 품지 못한 가냘픈 이삭
너는 쏟아붓지 못한 내 정성의 빈구석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 이 가슴엔
바늘끝 들어갈 빈구석도 없어야 하리

3

강냉이를 따는 옥이
짚속에 묻힌 이삭 없나
한번 더 뒤져보오
뜨락또르에 버단을 심는 철이
땅에 떨어진 벼이삭 없나
다시 또 한번 훑어봐주오
걸음걸음 제 한 일 뒤돌아보며
차곡차곡 쌓아가는 인생길엔
한점 후회 없으리오



백 명 길 그림 김 광 석

1

퇴근길에 오른 문상준은 탄광공업품상점앞에서 한참동안 주뭇거리었다.

어쩌다 상점출입을 하자니 별로 점직스런 생각에 도무지 상점안으로 발을 들여놓을수가 없다. 늦은 저녁시간이어서인지 상점을 찾는 사람들도 적었다. 서성거리는 상준을 지나치는 사람들마다가 의아쩍은 눈으로 흘끔흘끔 바라본다.

오늘은 안해의 생일날이었다.

마침 생활비도 탔겠다 상준은 안해에게 생일기념품을 사주고싶어 상점에 들린것이다.

문상준은 별스레 울렁이는 마음을 다잡으며 상점안으로 들어가 매대의 여기저기를 두릿두릿 살폈다.

첫눈에 꽃수건이 안겨들었다.

(저 연분홍꽃수건이 어떨가... 아니, 안해의 나이에 비해 색이 너무 밝아. 화장품은 어떨가. 하기가 그것도 좋지. 누군가 그랬더라, 안해들은 남편이 화장품을 사다주면 더없이 기뻐하며 더 아름다워지려고 애쓴다고...)

판매원처녀에게 어떤 화장품이 좋은가 물어보고 싶은데 멧적은 심정에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벌써부터 숫총각처럼 얼굴이 뜨거워진다.

한동안 주뭇거리며 여기저기 둘러보던 문상준은 한 매대에 눈길이 갔다.

수다스러운 녀인들 몇명이 여러가지 모양의 구두를 들고 서로 들까불며 서있는걸 보니 신발매대인것 같았다.

문상준도 호기심이 부쩍 동해 신발매대로 다가갔다.

신발매대에는 까만색, 밤색, 차색 등 여러가지 색깔의 남녀구두가 진렬되어 구매자들의 눈길을 한껏 끌고있었다. 그중에서도 문상준은 짙은 밤색갈의 녀구두에 눈길이 갔다. 모양도 좋고 색깔도 은근한게 안해에게 어울릴것만 같았다. 평양상표가 붙은 질 좋은 구두여서 더 마음이 흐뭇했다.

그의 머리속에는 연분홍색치마저고리에 저 밤색구두를 받쳐신은 안해의 모습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졌다.

문상준은 마음이 흥그러워져 저도 모르게 히죽이 웃었다. 이젠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문상준은 탄부답게 호기있는 목소리로 판매원을 찾았다.

상점밖을 나선 탄부의 발걸음은 자못 가벼웠다.

문상준이 뒤등 옷섶에 슬쩍 구두를 감추고 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메미는 아직 안 돌아왔다.》

어머니는 80고령이지만 아직도 정정하시다. 며칠전 안해가 머리염색을 해주어서인지 나이에 비해 10년은 더 젊어보였다.

열려진 부엌문으로 두부앗는 냄새가 뽀얀 김에서려 기분 좋게 풍겨왔다.

순두부는 안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생일음식을 위해 제 손으로 망을 갈아 순두부를 앗고있는것이다. 정말이지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는 극성스러운 어머니이시다.

아들은 탄부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탄부가족 돌격대원이다. 그러니 모두가 바쁜 사람들이다. 가정일은 내가 다 도맡아하겠으니 너희들은 탄을 많이 캐고 탄광지원사업을 잘하거라.

이것이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에게 늘 하고있는 당부이고 또 바라는 요구이다.

오상녀어머니가 바라는 뜻대로 아들 문상준은 온 탄광마을이 아는 혁신자탄부로 떠받들리고 며느리 봉윤희도 당당한 탄부가족돌격대원이다.

어머니는 성수가 났다. 그래서 이전보다 부업도 많이 하고 아들이 일하는 채탄막장에 지원사업도 열성껏 했다.

오상녀어머니가 제일 기쁠 때는 아들이 퇴근해 오면서 《어머니, 오늘계획 넘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때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래, 동발목은 모자라지 않더냐.》, 《탄맥은 끊기지 않았겠지.》 하며 아들의 땀배인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표정을 보고도 채탄 1소대의 석탄생산실적을 도표를 보듯이 알수 있었다.

오늘은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저는 자꾸 웃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별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석탄생산이 떨어졌구나. 동발목이 긴장하다 더니...)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안해는 느물느물한 저녁어둠이 탄광마을을 덮을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달려나왔고 아래방문이 열리며 문상준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메미가 왔구나. 수고했다.》

《어머니, 늦었어요.》

봉윤희는 늦어 들어온것이 죄스러운듯이 미안하게 말하며 머리수건을 벗었다.

《됐다, 어서 세면하고 저녁을 먹자. 땀들 오죽고프겠니.》

어머니는 벌써 소랭이에 더운물을 떠들고 며느리앞에 내놓았다. 그 모양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문상준이 수건을 들고 안해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어디 갔댔길래 이렇게 늦었소?》

《예, 우리 가족돌격대에서 탄부들을 위해 염소방목장을 꾸려볼가하고 생각하고있는데 그때문에 대장동무하고 주변산들을 좀 밟아봤어요. 적지를 찾느라고요.》

안해는 세면을 하던채로 얼굴에 물방울을 가득 묻혀가지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렇소? 우리 탄광마을 녀인들이 정말 고맙구만.》

문상준은 안해를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키도 체격도 크지 않은, 탄광마을 어디서나 흔히 찾아볼수 있는 소박한 탄부의 안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숫저운 얼굴표정을 짓는 아련하고 연약한 녀인이었다.

허나 안해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온몸에 짙차있

는 체대군인이다. 그래서인지 탄광지원을 해도 통이 크게 하고 무슨 일이 제기되면 누구보다 앞장에 서고 남먼저 뛰어든다고 한다.

문상준은 이 저녁 안해의 수고에 대해 다시한번 가슴뿌듯이 느꼈다.

저녁상에 마주앉던 안해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순두부를 했군요.》

그러는 안해에게 문상준이 말했다.

《여보, 오늘이 당신 생일이 아니요. 그래서 어머니가 품을 들어 차린 생일상이요.》

안해는 금방 뜨러던 밥술을 놓고 남편과 어머니를 번갈아보았다.

윤희는 이 순간에야 오늘이 자기의 생일날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눈시울을 따갑게 지지며 가슴가득 차올랐다.

《어머니! 고마워요.》

《됐다, 시장하겠는데 어서 먹어라!》

어머니는 어서 밥술을 들라고 재촉한다.

그제서야 모두가 맛나게 저녁식사를 했다.

동발목이 모자라 탄을 앞에 두고도 아쉽게 막장을 나온 문상준도 몇십리를 걸어 산발을 편답한 봉윤희도 이 순간은 만시름 잊고 행복감에 한껏 싸여있었다.

저녁상을 물리자 문상준은 퇴근길에서 사가지고 온 구두를 꺼내놓았다.

《어머니! 제 오늘 생활비를 받았습시다. 그 래 상점에 들러 이 구두를 사왔습시다.》

밤색구두는 밝은 전등빛에 어울려 별스레 반짝 반짝 윤기를 뿜었다.

안해보다 어머니가 더 좋아했다.

《잘했구나. 아메미야, 어서 신어봐라.》

어머니가 며느리앞에 신발을 가져다놓으며 말했다.

봉윤희는 선뜻 신발을 신을수가 없었다. 생각지 않게 남편에게서 생일기념품까지 받고보니 가슴이 짜릿해왔던 것이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선한 녀인의 눈빛에 가득 비꼈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모르겠소. 어서 신어보오.》

문상준이 어쭙은 표정으로 안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제서야 안해는 살며시 일어나 구두를 신어보았다. 박씨처럼 고운 발이 구두에 꼭 들어맞았다.

《꼭 맞아요. 아이, 모양도 곱네.》

안해는 어린애처럼 기뻐했다.

그러던 안해는 옷방에 올라가 꽃보자기에 싼 물건을 가져왔다.

《어머니! 며칠전에 애아버지 구두를 샀어요.》

봉윤희는 구두 한켠레를 꺼내놓았다.

《어서 신어보세요.》

문상준은 한순간 어안이 빙빙했다. 상점매장에서 보았던 남자구두였다. 색깔도 자기가 사온 안해의 구두색깔과 똑같은 짙은 밤색에 끈을 매게 된 형식의 구두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좋구나! 이제 석탄을 많이 캐고 혁신자가 되어 평양전학 가서 극장에도 가고 옥류관에도 가려면 이런 멋쟁이구두가 있어야 할게다.》

문상준은 구두를 신어보았다. 신통히도 꼭 맞았다.

문상준과 봉윤희는 약속이나 한듯 서로가 사온 구두를 신고 어머니앞에 섰다.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애들아, 이 예민 정말 기쁘구나. 탄부들은 마음만은 불처럼 뜨거운지라. 그러니 랑주가 힘 합쳐 석탄을 많이 캐내거라. 그러면 나라도 강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질게다.》

이어 윤희가 발갛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다음주에 상반년도계획을 넘쳐수행한 기업소들을 축하하는 도방송야회가 열린대요. 그때 이 구두를 신고 가시라요.》

《그게 좋겠구나. 아예미 너도 같이 신고나서면 정말 남부럽지 않겠다.》

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날 윤희는 윤기가 반짝거리는 새 구두 두켤레를 신장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이튿날 아침 문상준은 안해와 함께 나란히 출근길에 올랐다.

문상준은 안해의 손을 슬며시 잡아보았다. 안해의 손에 장알이 박혀져있다. 이것저것 힘든 일, 쉬운 일 가림없이 다 하느라고 손이 무척 험해졌다.

(아, 내 이런 안해에게 힘껏 석탄을 캐서 복을 안겨주리라!)

문상준은 안해의 손을 정을 담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여보! 힘들지? 이제 우리 탄부들이 석탄을 많이 캐서 발전소에 보내주면 그 전기가 강철이 되고 천이 될게요. 강성대국의 그날이 오면 내 당신 바라느건 뭐나 다 들어주겠소.》

문상준은 한점 꾸밈도 없는 솔직한 심정을 안해에게 내비쳤다.

안해는 정갈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여보! 난 그날이 오면 당신 팔을 베고 실컷 자겠어요, 만시름을 잊고 말이에요.》

안해의 너무도 소박한 소원에 상준은 그만 코허리가 시큰했다.

문상준은 이 시각 탄부의 본분에 대해 새롭게 자각했다, 안해의 소박한 소원을 위해 더 많은 석탄을 캐리라고...

문상준은 막장으로, 봉윤희는 산으로 헤어져가는 길은 두갈래였어도 석탄생산에 바쳐지는 마음은 하나였다.

2

며칠후 어느 일요일날도 윤희는 몇몇 녀인들과 함께 방목장적지탐사에 나섰다.

솔개골너머 등판에서 마침내 윤희네는 적당한 곳을 발견하였다. 잡관목들을 뽑아내고 군데군데 박혀있는 돌들만 들춰내면 방목장으로서서는 그저그만일것 같다. 옆에 내물까지 흐르고있다.

녀인들은 너무 좋아 힘든것도 가뭇 잊어버리고 아이들마냥 손벽을 쳐댔다. 쌓였던 피곤은 간곳없이 사라져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없이 즐거웠다.

철부지적심정으로 되돌아간 녀인들이 노래까지 부르면서 탄광마을을 가까이할무렵, 산길로 접어드는 굽인돌이에서 승용차 한대가 나타났다.

《윤희동무!》

차가 벗어나서기도 전에 성급한 부름이 울리고 뒤이어 차에서 탄광초급당비서가 뛰어내렸다.

《자, 어서 차에 타요.》

영문을 몰라하는 윤희의 등을 떠밀어 차에 태우고는 누가 붙잡을세라 성급히 차머리를 돌려 떠났다.

승용차의 폭신한 의자에 어쭙은 자세로 앉은 윤희는 당비서를 바라보았다. 여느때같으면 탄부안해들과 룡담도 잘하던 사람이 오늘은 웬일인지 두툽한 입술을 꼭 다물고있다.

그 표정에서 오는 심리적압박감을 느끼며 윤희는 긴장해졌다. 웬일일가?

승용차가 탄광마을에 들어서자 드디어 당비서가 힘겹게 말을 뱉었다.

《윤희동무! 사실은... 문상준동무가 상했소. 지금 병원에 있소.》

《예? 아니, 어떻게 그이가... 그인 오늘 일요일이어서 집에 있었습시다.》

너무도 당혹하여 말마디들이 두서없이 막 튀어나간다.

당비서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윤희동무! 진정하오. 요즘 막장에 동발목이 팔려서 생산에 지장을 주는데 어떻게 쉬겠는가 하고 하면서 상준동문 저 혼자라도 동발목을 끌겠다고 산판에 올라갔다는만. 그런데 발을 헛디더 넘어지는통에 뒤에서 통나무가...

지금 구급대책은 취했는데 아직 의식을 못 차렸소.》

윤희는 어떻게 차에서 내렸고 또 어떻게 병원층계를 올랐는지 알수가 없다. 허탈상태에 빠진 그를 당비서가 부축해주었던것이다.

구급실앞에는 금방 막장에서 나온듯 한 작업복 차림의 탄부들이 가득 모여있었다.

땀배인 봉윤희의 얼굴로 눈물이 줄줄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무작정 구급실로 들어가려는 그를 탄광병원 원장이 붙잡았다.

《진정하오. 상준동문 위험한 고비를 넘겼소. 아직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소.》

《원장선생님! 저의 남편이 많이 다쳤습니까?》

봉윤희는 애끓는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종합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병원이 달라붙어 최선을 다하고있으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마오.》

원장은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급히 가버렸다.

봉윤희는 꼬박 남편곁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밤이 이처럼 길고 깊은지 처음 느껴보았다. 어느때에는 잠간 눈물였다 뜨면 새벽이었는데 이밤만은...

러명무렵에 문상준은 의식을 차렸다.

문상준은 눈앞이 뿌옇고 정신이 가물가물한 속에서도 안해의 손길을 찾았다. 안해는 남편의 거울진 손을 꼭 잡았다.

문상준은 안해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안해의 눈물진 얼굴이 어슴푸레 안겨왔다.

(여보! 당신 울고있지 않소. 왜 우는거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이요. 울지 마오. 당신과 약속하지 않았소. 탄을 많이 캐서 당신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이요.)

문상준은 안타깝게 입이 열려지지 않아 마음속으로 절절히 말했다.

봉윤희도 남편의 마음속 진정을 알아들었는지 눈에는 눈물을 담았으나 얼굴엔 웃음을 담느라고 애썼다.

(여보, 알겠어요. 울지 않겠어요. 어제 밤은 당신이 내 곁에서 영영 떠나는것만 같아 온밤 울었어요. 이제 안 울겠어요.)

봉윤희는 애써 눈물을 거두며 그냥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탄광병원에서는 문상준에 대한 최종협의진단이 있었다.

아침부터 진행된 협의진단은 오후에도 계속되었다.

어머니와 봉윤희는 점심도 잇고 기술부원장방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병력서며 촬영필름을 들고 드나드는 의사들의

얼굴이 밝지 못했다. 두 녀인은 가슴을 조이며 기다렸다.

협의회는 저녁무렵에야 끝났다.

원장선생이 무거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윤희를 사무실로 이끌었다.

《원장선생님! 저의 남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원장방으로 들어서던 윤희가 다우쳐물었다.

원장은 괴로운듯 말없이 보온병을 기울여 더운물 두고뿌를 떠들고 권했다.

《어서 이 더운물을 드십시오.》

두 녀인은 물고뿌를 받아 다시 책상우에 놓았다.

《원장선생! 우리야 그 애의 어머니고 안해인데 뭘 더 숨기겠소. 어서 솔직히 말해주시우.》

《어머님! 여기 앉으십시오. 사실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척추에 변형이 오면서 하반신에 신경이 통하지 않습니다.》

원장은 힘들게 말을 끝맺었다.

휘친하고 몸균형을 잃는 윤희를 어머니가 붙잡았다.

(그러니 하반신마비가...)

금시 봉윤희의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남편에게 내려진 병진단은 그에게나 윤희에게나 사형선고나 같은것이였다.

남편은 이제 갓 마흔을 넘긴 억대우같은 사나이다. 그런 그가 영원히 일어설수 없다니, 이게 어디 될말인가.

어머니의 눈가에도 진액같은 눈물이 고였다가는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윤희는 너무 억이 막혀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 아이처럼 영영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인차 마음을 다잡았는지 윤희의 등을 어루만지며 강인한 어조로 말했다.

《아예미야! 그만 눈물을 그쳐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것을 아애비가 안다면 맥을 놓고 영원히 쓰러질게다. 사람의 인생길에 무슨 일인들 없겠나.》

내 말 들어라. 제비는 작아도 강남에 간다 했다. 우리 힘합쳐 아애비를 일으켜세우자꾸나. 우리야 탄부의 안해고 어머니가 아니냐.》

윤희는 울음을 꼭꼭 삼키며 머리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우려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생활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어려있었다.

그랬다. 어머니는 처녀시절에는 전시석탄생산보장에 한몫을 내뒀고 또 전후에도 석탄생산에 한몫 이바지하여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기

뽕과 슬픔의 고개를 무수히 넘은 년장자였다. 그래서 쓰러지려는 머느리를 부축해 군세게 일어서는것이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던 윤희는 신발장에 신발을 들여놓다가 흠칫 굳어졌다.

일전에 새로 산 두켤레의 구두가 윤희를 올려다 보고있는것이다.

울지 말자고 조였던 마음의 탕개가 풀어지며 또 다시 눈물이 핑— 눈안에 가득 고였다.

남편의 구두를 집어들고 신등을 어루쓸며 윤희는 속으로 말했다.

(여보, 이 신발을 신고 방송야회에 참가하자 하시던 당신이 어찌된 일이에요? 정말 당신은 자신이 구두를 신을수 없어요?... 말해주세요. 탄을 많이 캐서 복을 안겨주겠다던 당신의 꿈이 정녕 이렇게 날개를 접고마는가 말이에요. ...)

아니예요. 절대로 그럴수 없어요. 난 당신이 기어코 대지를 확보하게 하겠어요. 제발로 걸어서 막장에 다시 들어가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내 다시 이 구두를 꺼내놓을게요, 여보!...)

윤희는 남편의 구두를 정히 구두판에 도로 싸넣었다. 그리고 장안에 간수하였다.

나라에서는 문상준에게 영예탄부의 증서를 수여해주었다.

영예탄부, 이는 석탄생산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탄부들에게 수여해주는 값높은 칭호였다.

남편의 영예탄부증서를 수여받던 날 봉윤희는 나라의 혜택이 고마와 눈굽을 적셨다.

탄광당위원회와 가족돌격대에서는 봉윤희에게 남편간호를 잘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윤희는 한시도 남편곁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돌보았다.

어느날 문상준이 안해를 찾았다.

《여보! 창문을 열어주요!》

아직은 초봄이어서 바깥공기가 찼다. 윤희는 창문을 반쯤 열어놓았다. 열려진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결에 탄광의 온갖 동음이 실려왔다.

와르릉— 쿵 하는 탄차전복기의 동음소리며 텅, 텅 빈 탄차에 동발목을 신는 소리며...

《여보! 어서 수첩과 원주필을 주오!》

봉윤희는 영문도 모르고 수첩과 원주필을 가져다주었다.

남편은 탄차전복기의 동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수첩에 무엇인가 적어넣는다.

오후에 남편이 잠간 눈을 붙였을 때 방을 정돈하던 윤희는 펼쳐놓은 수첩장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오전 10시, 낮교대가 20대의 탄차를 끌어냈음.

11시, 12대의 탄차가 저탄장에 도착했음.

※ 탄차대수를 보니 120중단 1호막장의 탄이다.

오후 2시 풍도에 탄이 넘쳐났는지 전차의 뽕대소리가 멎은지 30분이 되도록 탄차전복기가 동작하지 않음. 석탄생산이 높아짐.

...

남편의 수첩장에 적혀진 글줄을 보면서 안해는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창밖에 귀를 강구고 열심히 무엇인가 적는다 했더니 결국은 예나제나 변함없이 남편은 귀로, 온몸으로 약동하는 탄광의 숨결을 느끼고있는것이다. 그 몇줄 안되는 글에 남편이 바라는 소원이 다 적혀있었다.

남편은 석탄을 캐고싶어한다. 펄펄날던 사람이 오금을 못쓰고 누워있자니 속인들 오죽 타랴. 저 탄밖에 모르는 사람을 일으켜세울 명약이 과연 없단 말인가. 자기의 두다리를 바쳐 남편을 일으켜세울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다리뼈도 바쳤을 봉윤희였다.

문상준은 매일 창문을 열고 혁신갱의 석탄생산 실적을 적어넣었다. 그랬다가는 면회온 소대원들에게 자기가 적은 수자를 확인해보았다.

탄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몸은 소대원들과 떨어져 누워있으나 마음속으로 늘 함께 막장길도 걷고 탄도 캐는 소대장의 심정이 눈물겹도록 고맙게 헤아려졌다.

그러던 어느날 문상준은 안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요즘 탄차전복기의 소음이 적어지는 걸 보니 석탄생산이 떨어지는것 같소. 동발목이 모자라 그럴거요.》

문상준의 어조는 무거웠다.

석탄생산이 떨어지는것 같으면 식사량까지도 줄어들곤 하는 그였다.

안해가 그를 부축해 반쯤 앉혀놓았다.

《여보! 난 당신이 나를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을 다 아요. 하지만... 석탄생산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구만. 그러니 당신이라도 가족돌격대에 나가 내 뒤통까지 합쳐 일을 했으면 하오.》

문상준은 며칠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안해에게 말을 비쳤다.

하지만 윤희는 남편의 뜻을 따를수가 없었다.

지금 남편이 고통을 받고있다. 또 마음속 피로움까지 안고있는데 어떻게 그의 곁을 뜰수 있단 말인가.

《여보!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봉윤희는 딱 잘라 말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문상준이 격한 어조로 말을 했다.

《여보! 당신은 내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요? 그게 날 위해주는 길이란걸 모르는가 말이에요. ...》

문상준은 말끝을 채 잊지 못하고 고개를 틀었다. 이때 어머니가 두사람곁으로 다가왔다.

《아애비 말이 옳은것 같다. 며늘애야, 내 생각도 아애비와 꼭같으니라. 아애비시중은 내가 들겠으니 가족돌격대에 나가거라. 우리 가정이야 탄부 가정이 아니냐.》

남편이 외로 틀었던 고개를 돌려 안해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후더운 눈길에 큰 기대를 싣고 안해에게 날아왔다.

누가 말했던가. 눈을 보면 그의 마음을 읽을수 있다고. 진지한 눈빛에 간절한 호소가 가득 담겨 있다.

《여보! 내 당신의 뜻을 따르겠어요.》

봉윤희는 빙긋이 웃으며 떡살이 풀린 나긋나긋한 남편의 두손을 꼭 잡았다.

3

요즘 탄광녀인들은 채탄소대장이 동발목을 끌다 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도나도 자원하여 동발목끝기에 펼쳐나섰다고 했다. 탄부들이 동발목 걱정까지 하지 않게 하자면서...

산판에 윤희가 나타나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마다 남편의 병상태를 다우쳐물었다.

가족돌격대를 책임지고있으며 노래도 잘하고 기라도 잘 치고 익살에도 능한 재간둥이여서 《씨클대장》이라 불리우는 가족돌격대장이 제일 윤희를 다그어댔다.

《윤희동무! 어찌자고 여길 나왔어요. 동무야 우리 뭇까지 합쳐서 상준소대장을 잘 돌봐야 하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어서요.》

등을 떠미는 녀인들의 만류에도 윤희는 《그러지 말아요. 나도 탄부의 안해예요.》 하고 말하고는 동발목끝기에 전념했다. 매 순간마다 남편이 자기를 지켜보며 힘을 주고 떠밀어주는것 같았다. 그 생각에 윤희는 힘든줄도 몰랐다.

철참에는 남편의 병치료에 좋다는 약초를 뜯었다. 녀인들도 합세하였다. 허리힘을 할 생각은 없고 모두가 이 풀, 저 풀 다니며 약초를 뜯어와서는 윤희의 배낭에 다투어 넣어주었다. 잠간새에 한 배낭이 가득차고 저녁이 되자 윤희는 기쁘게 그걸 지고 산을 내리었다. 그리고 도중에 혁신갱에 들려 그날 석탄생산실적을 알아보았다.

어슬넛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와 남편이 마치고 윤희가 먼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길인듯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윤희는 집에 들어서는 참으로 제일먼저 혁신갱의 석탄생산실적을 알려주었다. 그러면 남편의 서글서글한 두눈이 커지고 병색질던 얼굴에 혈기가

도는듯싶었다. 아마도 그 순간이 남편에게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리라.

그런데 다음날 뜻밖에도 산판에 탄광초급당비서가 나타났다.

녀인들은 모두가 그의 출현을 반가와했다.

《비서동지!—》

《씨클대장》이 나서서 익살스레 허리를 너푼 꺾으며 《비서동지, 이렇게 오시길 정말 기다렸습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와— 하하하— 중구난방으로 터치는 웃음소리가 산판을 흔들었다.

가지에 천연스레 앉아 꼬리를 내리드리우고있던 다람쥐가 화들짝 놀라 나무웃초리로 빠르르 사라져버렸다.

녀인들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가득 띄우고 당비서주위에 웅기증기 모여들었다.

《동무의 만담을 들으려고 나왔소.》

《씨클대장》의 노죽을 선선히 받아들이는 당비서의 너부죽한 얼굴에 사람좋은 미소가 빙글서 피어올랐다.

윤희도 웃음을 머금고 녀인들뒤에 가섰다.

《그저 이 비서를 제일 반겨주는건 아주머니들입니다. 그 재미에 난 여길 자주 온다구요.》

비서는 현현히 말하며 녀인들을 둘러보았다. 윤희를 띄워본 그의 얼굴에 언뜻 놀라움이 스쳐지났으나 비서는 형클어지지 않은 자세로 녀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일별하고나서 나무그루터기에 걸터앉았다.

《아주머니들! 앉으십시오.

내 오늘 동무들과 토론할게 있어 올라왔으니 여기 다 둘러앉읍시다.》

비서는 웃음발을 지우지 않은 얼굴로 잠시후에 말머리를 떼었다.

《동무들! 제 오늘 먼저 탄광에 긴장한 동발목 문제를 풀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힘든 동발목끝기를 자원하여 하고있는 녀성동무들께 탄광당조직을 대표하여 사죄하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탄부들의 뒤바라지만 하자고 해도 이것저것 마음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동무들에게 이런 육체적인 부담까지 안겨준 우리 탄광일꾼들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 머리숙여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동무들, 래일부터는 아니, 이제 당장 집으로들 내려가시오. 동발목은 더 걱정말고 말입니다.》

비서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씨클대장》녀인이 벌떡 일어서서 말했다. 그에게서 좀해 볼수 없는 정색한 얼굴표정이다.

《비서동지! 우리 걱정은 마십시오. 우리야 탄부의 안해들이 아닙니까. 남편들이 얼굴이 시꺼매서 걱정하고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가만히 봉양

만 하고있겠습니까? 더우거나 이번에 상준소대장까지 상하고보니…》

당비서는 《아니, 아니!》 하며 손을 뻗뻗 내저었다.

《동무들! 우리는 동무들의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이면 우리 탄광의 석탄생산은 문제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머니들, 내 오늘 여기 올라온 건 한가지 토의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내 동무들의 제기를 받고 엇그제 술개꿀너머 등판에 한번 올라가봤는데 정말 기막힌 염소방목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탄부들을 위한 축산기지를 꾸리는게 좋겠습니다. 거기서 고기도 생산하고 염소젖도 내어 탄부들에게 공급하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어마나?!… 야!》

《야, 비서동지! 좋습니다.》

녀인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손벽까지 쳐대는 축들도 있다.

비서가 잠자코 지켜보느라니 《씨클대장》이 일어섰다.

《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저 남편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아낙네들이 제일인가 했더니 진짜로 우리 남편들을 위해주는 마음은 비서동지가 최곱니다.

축산기지는 넘려마십시오. 우리 녀자들이 못해내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녀인들이 호응해나섰다.

《예!—》

《우리가 합니다, 비서동지!》

하나같이 떠들썩했다. 그러지 않아도 수다스럽다 하는 녀인들이 흥분과 열기로 뿜어오르니 분위기가 그저 와슬렁, 와슬렁 일어났다.

비서가 손을 들어 그들을 누잡했다.

《고맙소, 내 동무들이 이렇게 나을줄 알았소. 그런데—》

갑자기 그는 말꼬리를 길게 늘구었다. 녀인들을 둘러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며칠씩 있겠는데 그러면 동무들이 남편을 보고싶어서 어쩐다?…》

하하하… 호호호…

웃음소리가 또 일어번졌다.

몸집이 풍만한 한 녀인이 이때라고 반죽을 쳐댔다.

《팬찮습니다. 그저 비서동지만 이따금씩 와주시면 우린 세대주들 안 보구됩니다.》

그러자 또 한바탕 일어나는 웃음소리… 뒤이어 녀인들의 합창소리…

《웁습니다. 비서동지만 와주시면 됩니다.》

판이 좀 즘죽해지자 윤희가 조용히 일어서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비서동지! 넘려마십시오. 축산기지 꾸리는 건 우리가 군대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노상 빙글거리고 앉아있던 비서가 짐짓 표정이 엄숙해지더니 한손을 들어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윤희동문 앓소. 동무에겐 내 따로 할 말이 있소. 이따가 좀 보지요.》

딱딱한 비서의 말에 윤희는 그만 기가 질려 그 자리에 앉고말았다.

이어 녀인들은 즐겁게 희희낙락하며 일하던 장소로 흩어져갔다.

당비서의 출현으로 녀인들의 마음에 심어진 즐거움과 랑만의 여운은 하늘에 높이 떠 밝은빛과 열을 내뿜고있는 태양의 눈부심과 더불어 오래오래 산판을 배회하였다.

잠시후 당비서는 윤희를 따로 불렀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않고 윤희의 얼굴만 주시하고있던 그는 심각한 어조로 물었다.

《윤희동무! 동문 당원이요?》

뜻밖의 물음에 놀라 윤희는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그 물음의 의미를 도무지 대중할수가 없었다. 설마 당비서가 그걸 몰라서?… 그러자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털렁 하고 떨어지는것 같았다.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수그리고있는 윤희에게 비서는 재차 물었다.

《동문 당원인가 말이요?》

윤희는 저도 모를 반발심에 또박또박 대답하였다. 《당원입니다.》

《그런데 왜 당적분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소?》

《예? 저… 무슨 말씀인지…》

《난 전번에 집에 찾아가서 동무에게 고정분공을 준것 같은데…》

그제서야 윤희는 당비서가 말하는 의도를 깨닫게 되었다.

《예, 제가 받은 당적분공은 저의 남편 문상준 동지의 병간호를 잘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무의 위치는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집이요?》

숨돌릴 사이도 없이 따져묻는 당비서의 말에 윤희는 몸둘바를 몰랐다.

《저… 사실은 저의 남편이 나만이라도 가족돌격대일을 잘해야 탄광생산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것 같아서 마음이 편할거라고 자꾸 등을 떠밀어서…》

그제서야 당비서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음… 상준이 그 사람이 그런단 말이지… 확실히 팬찮아. 그게 그 동무의 본태지. 하지만 윤희동무, 내 다시 말하는데 날 대신해서 상준동무의 곁에 있어주오. 동무가 남편의 병치료에 전심을 다해서 남편을 일으켜세워주었으면 하는것이 당원

봉유희동무에 대한 당적믿음이고 또 나 개인의 인
간적인 기대이기도 하오.

내 한마디 지나간 애길 할까?...

내가 이웃탄광에서 청년동맹사업을 맡아볼 때였
소. 결혼초기였는데 그때 난 뜻하지 않게 특막염
을 되게 앓았던적이 있소. 진단을 받지 않고 혼자
서 해열제나 몇알씩 주어먹으면서 일에 몰두하다
보니 병을 길렀지. 그러다가 마침내 쓰러졌소. 너
무 험한 형편이어서 의사들도 본인의 의지에 기대
를 걸어볼까 할 때 내옆에 누가 있는지 아오? 안
해였소. 고열속에 해매다가 문득 정신을 차릴 때
면 언제나 처의 사려깊은 눈동자가 나를 지켜 바
라보고있었고 깊은밤에도 처가 내 손을 꼭 잡고
앉아있곤 했소. 그때 본 집사람의 온 얼굴엔 생에
대한 믿음의 빛이 짙어차있었소. 꼭 어릴적에 본
내 어머니갈기도 하고... 변함없이 지켜주는 안해
의 그 눈빛앞에 나는 꼭 일어나고픈 생에 대한 욕
망을 느꼈소.

유희동무! 안해의 힘은 이렇게 큰거요.

그래서 난 동무에게 큰 기대를 걸고있소. 상준
동무가 어떤 사람이요? 우리 탄광의 기둥이 되라
고 우리 당에서 보내준 제대군인탄부가 아니요.

내 동무를 힘껏 도와주겠소. 그러니 가족돌격대
일에는 신경쓰지 말고 전적으로 남편결에 있어주
오.》

비서의 절절한 말을 듣는 유희의 얼굴에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려 편리화 앞코숭이에 툭툭 소리없
이 떨어졌다.

유희는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하고 겨
우 한마디 입밖에 내었다.

그러자 당비서는 허허 하고 웃는것이였다.

《너자들이란 참, 그저 눈물이야... 유희동무!
내 도고려병원에 물어봤는데 유능한 의사선생 한
분이 술개골에서 약초채집을 하고있다는단. 한
번 나와 함께 가보지요.》

유희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였다.

《그렇습니까? 비서동지, 제가 가겠으니 걱정마
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그럼 유희동무! 수고해주오. 자, 이
젠 〈씨클대장〉의 만담이나 들어볼까?...》

당비서는 혼연스레 자리를 일더니 바지영치부분
을 툭툭 털며 녀인들쪽으로 스택스적 다가간다.

잠시후 그쪽에서는 또다시 짹짹그— 웃음소리
가 산판을 흔들었다. 아마 무슨 우스개소리가 또
《씨클대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모양이다.

유희는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
보았다.

마음이 무엇엔지 듄씩 들리는것 같다. 바람도
쌀쌀한 기운이 눅눅해진것 같았다. 봄싸움을 띄우는
태양의 따듯한 빛에, 봄기운을 실어다주는 바람결
에 유희의 마음도 활짝 열려지고 더없이 따뜻해지

는것 같았다.

생활은 절대로 나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생각, 우리 가정의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후더운 믿음이 서리서리 엉켜돌며 그지없이 가슴
이 그들먹해졌다.

그후부터 유희의 생활에는 백배의 용기와 활력
이 흘러들어 지칠줄 모르고 남편의 병간호에 모든
힘을 다하게 되였다.

낮에는 시간별로 의사선생이 지적해준 혈에 뜸
을 몇십장씩 놓거나 전신안마를 해주는가 하면 밤
에는 밤대로 마당에 앉아 약초를 구분하여 퍼놓지
않으면 말리운 약초들을 절구에 찧기도 하였다.

그날도 유희는 별이 오종종한 밤하늘아래서 절
구질을 하고있었다. 그러다가 피곤에 못이겨 절구
공이에 기대채로 솔곳이 쪽잠이 들었다.

그런데 뜻밖에 옆에 남편이 척 서있지 않는가.
도방송야회에 참가한다는 차림인데 유희가 사준
구두를 벗어팽개친다. 《신발이 작소. 너무 작아
서 못 신겠구만.》 《아니, 전번에 신어볼 땐 맞
지 않았어요? 다시 신어봐요.》 유희가 남편의 발
을 꼬잡아당겨 신발을 신기려는데 아니, 남편이 신
경질을 부리며 발을 뿌리친다. 《작다지 않소?》

《아니, 한번 신어봐요.》 유희가 다시 남편의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는데 뻑 남편이 잡아채는
서슬에 그만 유희는 엉덩방아를 찧고만다. ...

펄쩍 놀라며 머리를 드니 그 짧은 잠결에도 꿈
을 다 꾸었다.

호— 하고 한숨을 내쉬며 유희는 눈길을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큰 별, 작은 별, 파아란 별, 희끄무레한 별... 각
종에 각양각색의 별들이 제나름의 빛을 반짝이고
있다.

《어떤 빛을 뿜든 별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존
재예요.

우리 학생들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떳떳이 자기
몫을 해야 합니다.》

이제 누구의 말이었던가. 생생히 들려오는 목소
리... 기억을 더듬느라니 뒤산기슭의 우중충한 밤
그늘속을 헤치며 중학교시절의 담임선생의 모습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당원 봉유희동무의 위치는 문상준동무의
결이요.》

탄광당비서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그래, 그래.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동지들
이 이끄는대로 자기 본분을 다할것이다. 지금은
좀 힘이 들어도 난 견디여낼테야. 그래서 저이가
나와 함께 나란히 서서 저 하늘의 별을 꼭 바라
보게 할테야.)

이런 결의가 마음속에 다시금 바위처럼 들어앉
는것을 느끼며 유희는 절구질을 계속했다.

며칠후 윤희는 10리쯤 떨어진 술개골로 남편을 데리고 병치료를 갈 계획을 세웠다.

전에 당비서에게서 들은적이 있는 술개골에 약 초채집을 나와있다는 유능한 고려의사를 만나보고 싶어서였다. 그가 신경계통마비치료에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얘기도 들었던것이다.

날씨도 쾌청했다.

어머니에게 조용히 의향을 비쳤더니 《네 몸에 꽤 업고가겠니? 여기서 10리길인데...》 하며 걱정만 하신다.

《어머니! 애아버지가 집안에만 누워있으니 더 몸이 쇠약해진것 같아요. 바깥날씨도 좋은데 제 업고가겠어요.》

윤희는 어머니에게 졸라댔다.

《응! 그래라.》

어머니가 응하시자 이번에는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해나섰다. 안해에게 업혀가는데 무슨 꼴이냐 하는 심산이다.

그러는 아들을 어머니가 가볍게 타일렀다.

《아애비야! 어서 아예미 말대로 해라. 술개골로 가는데는 사람들의 래왕도 뜨옴하니 창피하단 생각은 하지 말아. 설사 누가 본대도 어쩔다는거냐. 탄부의 안해가 남편을 업었는데... 날씨도 좋은데 갔다오너라.》

문상준은 더 거절하지 못했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나 같은것이다.

남편을 업고 집을 나서는 봉윤희의 마음은 아릿해났다.

남편이 검불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수 있을가.

윤희는 남편의 허벅다리를 꼬집어보았다. 혹시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였다. 허나 남편은 아무 감각도 없다.

몇번 안해의 이마에 송골송골 내뿜은 땀을 씻어주던 상준은 술개골등판에 오르자 좀 쉬어가자고 했다.

윤희는 너럭바위우에 조심히 남편을 내려놓았다.

탄광마을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봄의 훈향을 담아신고 불어왔다.

봄이다.

봄의 기운과 더불어 윤희의 몸과 마음속에 청신한 삶의 희열과 생기가 무럭무럭 샘솟아오르는것 같다.

바위옆의 작은 노가지나무에는 뽕족뽕족 새파랗고 애어린 바늘잎들이 돋았고 발밑의 이름모를 풀들도 다투어 파란 잎새들을 빼주름히 다투어 펼치고있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삶의 욕망과 환희를 읊조리고있었다.

윤희는 새삼스럽게 자부심을 느끼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날이 참 좋지요?》

《응, 정말 좋구만.》

남편도 안해의 기분에 감염된듯 병글서한 웃음으로 얼굴을 환히 빛내었다.

《이렇게 나서니 난 꼭 당신과 산보나온 기분이예요, 호호.》

윤희는 처녀처럼 마음이 달떠 청높이 웃음을 뽐어내며 말을 이었다.

《여보, 우리 이번 가을에 여기 가족들놀이를 나오자요. 그땐 당신이 제발로 여기까지 걸어올라와야 해요. 내가 꼭 당신을 일으켜세우겠어요.》

문상준은 뜨거운 눈길로 안해의 즐거워하는 모양을 어루쓸었다.

《그래, 꼭 나오지요. 그날엔 내가 당신을 업고올테요.》

《어마, 정말이예요? 좋구나...》

윤희는 손뼉까지 마주쳤다.

그러는 윤희를 보며 상준은 오래간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술개골등판 너럭바위우에서는 탄광마을이 한눈에 안겨왔다.

문상준은 감회깊은 눈길로 탄광마을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탄광마을이 멋있지.》

《예,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보니 더 멋있어요.》

문상준은 안해에게 기대앉아 혁신큁쪽을 점도룩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없이 탄광마을을 바라보던 문상준이 안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지도 10여년이 흘렀소. 당신은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제대된 후에 도시생활의 온갖 미련을 물리치고 이 생소한 탄광에 자원해왔지.》

그 마음이 가뜰해서 난 무턱대고 당신이 마음에 들었댔소. 그런데 이즈음에 와서 나의 선택이 그릇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구만.

정말 난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오.》

《아이참, 당신두. 별스럽게도 말씀하는군요. 우리가 뭐 한두해를 살아왔다구...》

윤희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행복감에 얼굴을 뜨겁게 붉혔다.

둘이 한창 감회에 겨워 정담을 나누고있을 때 저쪽 굽인돌이에서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그들의 앞에 와서 스르르 멎었다. 차문이 열리더니 당비서가 내렸다.

《아니?!》

놀라움과 반가움속에 바라보는데 당비서가 뚜벅뚜벅 다가와 성난 표정으로 마주섰다.

《윤희동무, 내가 오늘 동무를 또 욕해야 되겠

소?)》

황송함에 몸가짐이 웅색해지는것을 느끼며 윤희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닙니다, 비서동지! 그러지 않아도 애아버지 때문에 탄광에서 이모저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거야 제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비서는 성큼 윤희의 말허리를 잘랐다.

《상준동무는 동무의 남편만이 아니요. 우리 당 조직의 한 귀중한 탄부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무심할수가 있겠소. 오늘은 내 이쑤하는데 다신 나에게서 욕먹을짓을 하지 마오.

자, 차에 타오. 같이 갑시다.》

윤희는 다시금 뜨거운것을 삼키며 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살같이 달렸다.

술개팔로 약초채집을 나온 고려의사는 예순고개를 넘긴 리지적인 인상의 사람이였다.

그는 문상준을 성의있게 진찰했다. 맥도 여러번 짚어보고 마비된 하반신에 침도 꽂아보았다.

오랜 시간 진찰을 하고난 의사는 말했다.

《아주머니! 신심을 가지십시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지 않습니까.》

윤희는 크나큰 기대가 실린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의 남편은 채탄공이였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일어나 탄만 캐수 있다면...》

봉유희는 말끝을 채 잊지 못했다. 눈물이 막 쏟아져나올것 같아서였다.

《아주머니! 탄부들이야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로 아끼시는 사람들인데 내 있는 힘껏 다하리다. 우리 힘을 합쳐 꼭 일으켜세웁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4

그 이튿날 고려의사는 탄광병원에 들러 문상준의 병력서를 놓고 의사들과 구체적인 협의회를 진행한 끝에 훈증치료법으로 하반신마비를 풀 치료방안을 내놓았다.

훈증치료는 약물증기에 의한 약침치료방법이다.

최근 의학잡지들에서 훈증치료법이 널리 소개되어 그 도입이 활발히 진행된 결과 치료효과가 대단히 컸다. 특히 하반신마비환자들의 치료에서 효과가 컸던것이다.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문상준의 집 옷방에 훈증치료실을 꾸리게 되었다.

도의 유능한 고려의사가 문상준을 치료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탄광마을이 떨쳐나섰다.

탄광에서는 훈증치료실을 꾸리는데 필요한 자재를 보장해주었고 녀맹조직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수십가지의 약초를 채집하여 문상준의 집으로 보내왔다.

문상준의 옷방에 꾸려놓은 훈증치료실에서는 의사들과 탄광마을사람들의 뜨거운 성의가 고인 알싸한 약물증기가 뽀얗게 떠돌았다.

어머니와 봉유희는 힘든줄 모르고 훈증치료를 도왔다.

봉유희는 낮에는 의사를 도와 남편에 대한 전신 안마를 하였고 여가시간이면 모자라는 약초를 얻으려 범산령의 깊은 산속길을 뚫었다. 밤은 밤대로 약초를 달이고 절구질을 하였다.

이런 나날이 흘러 훈증치료를 받는지 한달째되던 날, 고려의사가 기쁨에 넘쳐 말했다.

《어머니! 아주머니! 이것 보십시오. 수축되었던 팍구멍이 열립니다.》

어머니와 봉유희는 의사가 가리키는 쪽에 눈길을 주었다. 백지장처럼 창백하던 남편의 허벅다리에 불그스레 혈기가 도는게 눈에 확연히 알렸다.

윤희는 얼른 남편의 허벅다리를 세관개 꼬집어 보았다. 온몸이 팍투성이가 되어 훈증치료를 받던 남편의 몸이 움쉴 움직여진다. 그러니 환자가 감각을 느낀게 분명하다.

윤희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어머니! 애아버지의 허벅다리에 신경이 살아났어요.》

왈작 눈물이 쏟아졌다.

《그게 정말이냐?》

윤희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두볼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주름진 두볼로도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도 우셨다.

정말이지 아들의 정상에 잠인들 제대로 잤으랴.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것만 같던 어머니였다.

그날 저녁 윤희는 기쁜 마음으로 깊숙이 건사해 두었던 남편의 새 구두를 꺼냈다. 그리고는 먼지한점 묻지 않은 새 구두를 몇번이고 닦고 또 닦았다.

몇달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구두를 도로 싸넣던 일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이런 날이 오기를 마음속깊이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 남편이 일어서긴 일어설가 하는 회의심이 깃들기도 그 몇번...

하지만 윤희는 그때마다 희망안고 굳세게 일어서곤 했다. 광풍에 휘였다가 곧추 일어서곤 하는 벼랑턱의 나무처럼... 자기 삶의 의의가 남편을 탄전의 길에 다시 세우는데 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윤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않을래야 앓을수 없었다. 그 애라는 모지름과 눈물겨운 노력끝에 오늘 윤희는 남편의 신발을 다시 꺼내게 되었다. 포기할뻔 했던 삶은 다시 약동의 숨결을 띠게 되

였다.

구두를 끌어만지는 윤희의 잔등에 손이 없혀지는 느낌이 들었다.

《며늘에야!》

시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마주앉더니 윤희의 손을 꼬당겨잡았다.

《난 네가 정말 고맙다.

사실 애아범이 허리를 상했을 때 친엄마인 나로서도 앞이 새까맣다. 너에게 제비는 작아도 강남에 간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내자신의 마음을 다 잡기 위해 하는 말이기도 했단다.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젠 안되겠구나, 그저 집에 있는 아들의 뒤바라지나 착실히 해주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접었었는데...

오늘같은 날이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다. 그래서 난 너에게 허리굽혀 절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정말 고맙다, 며늘에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에겐 아들이지만 나에게도 귀중한 남편이 아니냐요. 우리가 무슨 남이라구... 나도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어서 한결 힘이 됐어요.》

뜨거운 진정이 어머니와 며느리사이에 흘렀다.

윤희는 구두를 신발장 맨 옷쪽에 올려놓았다.

다음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탄부의 가정에 찾아들었다.

탄광에서는 탄부혁신자들과 그 안해들인 가족들 격대원들로 금수산기념궁전방문을 조직했는데 봉윤희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상준의 집은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온 가족이 잠들수 없어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문상준도 봉윤희도 어머니도 눈만 감으면 영생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우렁이 안겨와 가슴이 설레었다.

문상준은 안해가 정말 부러웠다. 그도 하반신마비로 자리에 눕지 않았더라면 탄부혁신자가 되어 오늘의 영광을 받아안았을 것이었다. 아, 그런데...

이튿날 아침 윤희는 분홍색치마저고리에 남편이 생일날 사주었던 새 구두를 받쳐신고 나섰다.

남편이 기쁜듯 환성을 터쳤다.

《여보! 당신 꼭 첫날새색시 같구려. 정말 보기 좋소. 그러구...》

문상준은 갑자기 말끝을 채 가무리지 못했다. 그러더니 인차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말을 이었다.

《여보! 나도 인차 가게 될거요. 그땐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므로요. 여보,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린 안해는 정찬 웃음을 보냈

다. 어머니도 한마디 합쳤다.

《그때 둘이 함께 나서면 탄광적으로 아마 제일 멋있을게다.》

문상준은 안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또 말했다.

(여보! 평양가면 나의 마음도 합쳐 어버이수령님께 큰절을 드려주오.)

윤희는 집안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평양으로 떠나갔다.

마비되었던 문상준의 다리신경이 한치두치 살아나 발목까지 풀렸다.

이제 발목만 풀리면 문상준은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었다.

그날도 고려의사는 훈증치료를 끝내고 발목부위 태계혈에 침을 놓고있었다. 의사가 조심히 침을 꽂았을 때 문상준은 《악》소리치며 몸을 떨었다. 그 소리에 어머니와 봉윤희도 화뜰 놀랐다.

문상준은 또다시 태질하듯 소리쳤다.

《선생님! 발목이 잘라지는것 같습니다. 아—》

《아애비야!》

《여보!》

두 녀인은 얼굴이 까맣게 죽어가지고 환자를 붙잡았다.

《하하...》

의사는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통쾌하게 웃었다.

놀란 눈빛들이 의사를 지켜보았다.

《윤희동무! 기뻐하오! 이젠 남편의 다리신경이 완전히 살았단 말ियो, 하하...》

의사는 또다시 웃음을 터쳤다. 이 순간을 위해, 의사는 환자를 위해 자기의 지혜와 모든 정성을 바쳤던 것이다.

고려의사의 기쁨은 두 녀인에게도 전달되었다.

《어머니!》

《며늘에야!》

윤희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둘은 불안고 소리내어 눈물을 흘렸다.

문상준도 소생의 기쁨에 울었다.

아,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이 순간이었던가.

침상에 반년세월 누워 눈물인들 오죽 흘렸고 남 모르는 속인들 오죽 태웠던가.

아, 나는 다시 일어났다. 나는 다시 탄부가 되었다.

문상준은 세상에 대고 막 소리치고싶었다.

며칠후 상준은 드디어 첫걸음마를 떼었다. 하나, 둘...

분명히 발은 땅을 밟고있다. 두다리는 대지를 디디고 일어섰다. 허리를 쭉 펴고 눈길을 드니 아! 이 땅은 푸르디푸른 하늘아래 얼마나 가없이 펼쳐져있는 것인가.

대동강 능수버들이여

송재하

대동강 푸른 물빛에 물들어
그리도 푸르고
그리도 소중한것이나
너 대동강 능수버들이여

언제나 푸른 아지 줄줄이 드리우고
구슬을 꿰여맨듯
해빛에 잎새 번쩍이여도
내 마음 못 잊을 그날로 달려가거니

오늘도 너의 잎새마다
수령님 오셨던 그날이 어련듯
먼 현지도의 길에서 돌아와
온갖 피로 쌓이고쌓이셨건만
환한 웃음 지으시던 수령님영상이여

대동강물결을 정거이 바라보시며
마치 구슬이 흐르는것 같다고
쭉 뻗어간 다리 이름도
《옥류교》로 부르자고 하시던
아 자애로운 우리 수령님

힘겨우시여 오래도록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면서도
대동강기슭에 넘쳐날
인민의 기쁨 그려보시며

그처럼 환한 미소 지으셨나니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는
우리 수령님 사랑의 그 세계가
푸르려 설레는 능수버들이여
너의 잎에도 아지에도 비끼여있구나

그래서 저기
아기들의 맑은 눈동자인양 산원의 창가도
확이 날아가는듯 인민대학습당 지붕도
하늘가에 높이 솟구치는 행복의 요람들도
너의 그 푸른빛으로 물들지 않았느냐

오늘은 선군의 해빛아래
날이 갈수록 더 푸르려지나니
설레여라 대동강 능수버들이여
이 땅 조약돌 하나
나무 한그루에도 어리어있는
수령님 그 사랑 전하고 또 전하며

아, 능수버들 대동강의 능수버들이여
너는 언제나
우리 수령님 헌신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천만심장 뜨겁게 불태워주며
날이 갈수록 푸르고푸르려 설레이리라!



어머니대지는 아들을 일떠세워 믿음직하게 받쳐
주고있다.

금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 같다.
걸음이란 의미가 이렇게 벅차게 안겨질줄은 상
준의 인생에 처음이었다.

걸는다는것은 곧 산다는것이다.
그래, 나는 세상에 나서 두번째 걸음마를 떼는
셈이다. 살리라, 값있게, 보람차게 살리라.
상준은 가슴을 쭉 폈다. 그리고 힘차게 걸음을
내짚었다.

사나이의 눈물로 가득찬 눈을 습벅이는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말마디들이 울리고있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시여!
고마운 나의 안해여! 내 한생 그대를 업고
가리.

×

당은 하루빨리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을 활짝 열
어제끼기 위해 온 나라 인민을 150일전투에로 힘
있게 불렀다.

탄부들은 당의 호소를 심장에 받아안았다. 탄전
이 들끓었다.

문상준은 15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첫 출근
길에 올랐다.

안해가 사준 새 구두를 신고 어머니가 다림발을
세워준 탄부제복을 입고 보폭이 큰 걸음으로 출
근길에 나선 그를 두 녀인이 뜨겁게 바래주고
있었다.

9월 2일 외 2편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그날은
젖아기의 마음처럼
희여진 머리마저 다 잊고
울고웃으며
어머니 품에 안긴 날

천인지 만인지
얼싸안는 가슴마다
혈육의 정 몽클해
낮설은이 하나도 없어

장한 아들들이 온다고
마치도 옛장수들을 맞이하듯
꽃뭍음을 안겨주고 춤노래를 펼칠 때
고향집뜨락에 들어서는 뜨거운 정회에
마음 먼저 똥똥 뜯 그날에

젖은 눈 비비고 다시 보던 글발
장하다! 조국의 아들들!
아 낳아주고 키워주고 믿음을 준 조국앞에
백발을 머리에 이고도
땀땀이 머리들고 웃으며 안길수 있는 생이
지킨 신념과 의지에 있음을 깨우치던 날이여

년년이 이날은 오고 와도
생일보다 먼저
오늘의 순간순간
못다한 전사의 의무를 새겨주며
보답의 걸음을 재촉하는
9월 2일
오, 조국의 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여!

무겁게 내여미는 나의 두손

보조개 고운 두볼에
웃음 가득 재롱 가득
아장아장 나를 향해
손자녀석 안겨들 때

버릇처럼 두손을 비벼보고
마주 펼치는 나의 두손
긴긴 수십년
수갑을 찻던 손이기에
마음 먼저 쓸어보고 펼치는...

아, 꿈같은 인생의 락을

되찾아주신 장군님사랑에
오늘도 무겁게 내여미는 두손이여
조국의 미래 위해 바친것 없다면
량심의 철사에 묶여있을 손이여

아버이사랑에 목이 매여

내 인생에
아득한 그 겨울날
각박한 땅
빼앗긴 땅이 있건만
두리반우에 밀개떡을 빚어놓고
첫돌상을 차려주신 그 어머니 살아계신들

소금내 댐 바다바람 불어불어
먼지 날리던 보리밭이랑에서
첫걸음마 뎨다고 땀젖은 가슴에
덥석 안아주던 그 아버지 계신들

년년이 이어진 세월속에 언제 한번 있었던가
이런 꿈같은 여든똥생일상앞에
내 웃으며 울며 젊음에 넘쳐
태양의 축복을 받을줄이야

기나긴 수십년 감옥에서
동지들이 덧놓아주던 보리밥 한술가락
그 아프던 축하의 마음까지 다 합쳐
지나간 여든해 세월을 다 합쳐
우리 장군님 이렇듯 아름답게
산해진미를 다 놓아 안겨주시니

그저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뿐
당원의 량심을 지켜
조국의 아들된 도리를 지킨
그 세월을 빛내여주시는
아버이의 크나큰 축하여

아버이 그 품에 안긴
전사의 영광에 심장이 울어라
위대한 그 사랑에 목매여
새살이 약동하며 눈물만 샘솟아

백발의 머리를 치여들고
온몸에 용솟는 젊음을 안고
우러러 우러러 아뢰이나니
이 한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시 간 표

림 길 명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표라고 하면 소학교시절에 눈에 잘 띄우는 벽에 곱게 그려붙이곤 하거나 학습장 뒤등에 또박또박 써넣던 작은 시간표를 생각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시간표에 비할수 없는 엄청난 크고 방대한 시간표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언젠가 나는 취재차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난해에만도 두번이나 찾아주신 **홍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공정건설장으로 갔던 일이 있다.

아버이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동행하는 영광을 지녔던 이곳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현지지도로정을 밟아가던 나는 그이께서 보면 볼수록 흐뭇하다고 하시며 완공된 래일의 공장 모습을 그려보신 대형가스화 암모니아합성공정 전경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지난해 2월 가스화공정건설장에 오시여 펼쳐주신 이 전경도야말로 그이께서 이곳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가스화공정 건설시간표》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것이다.

전경도앞에 굳어진 나의 눈앞에는 가스화의 구상을 펼쳐주시고 착공의 그날부터 공사과정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려, 돌려주신 사랑에 대하여 들려주던 지배인의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되새겨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굽은 찢어질 듯이 젖어들기만 하였다.

언땅의 암석처럼 들어박힌 낡은 기초를 까내는 발파소리 드높은 현장을 굽어보시며 이 공장은 인민생활과 련관되어있는 비료생산기지인것만큼 하루빨리 비료를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가스화공정건설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국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자신께서도 그걸음으로 눈길을 헤치시며 락원에 가시여 산소 분리기문제를 풀어주신 장군님!

그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난 마가울에 다시금 홍

남에 찾아오신 장군님께서 그동안 이곳 로동계급이 낡은 기초콘크리트암반을 까내고 그 자리에 대형구조물과 기둥들을 숲처럼 일떠세워 가스화공정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설장을 돌아보시고 계획한대로 공사가 진척되어가고있는데 대만족하시여 건설자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신 이야기는 또 얼마나 눈물겨운것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를 펼쳐주시고 자신께서 몸소 그 앞장에 서시여 인민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고있는 건설장들을 찾으시며 보아주신 대형전경도가 홍남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락원과 희천, 미곡과 동봉 이 땅 그 어디에나 장군님 보아주신 대형전경도가 보란듯이 세워져있거니 그것은 래일을 향해 총진군하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마음속에 안고 살며 일하는 강성대국건설시간표가 아니겠는가.

강성대국건설시간표!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시고 꽃피워주시는 이 시간표의 일정대로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날에 날마다 세기적인 변혁들이 이룩되어 세상을 놀래우고있으니 《광명성2》호가 날아오르는데 이어 성강에서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었으며 비날론 삼천리의 노래가 울리는 속에 남흥땅에서 우리의 비료가 쏟아져나와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것이다.

강성대국의 령마루가 눈앞에 각일각 다가오고있다.

조국은 멀지 않아 강성대국건설시간표대로 행복의 대문을 열고 정시에 들어서게 될것이다.

아, 시간표.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땅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서서 세계를 굽어보며 우리 장군님 설계하신 시간표대로 훌륭하게 가꾸고 창조해갈 래일은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할것인가!

.....

끝까지 지켜갈 전사의 맹세를

아버이 그 품에 안긴 전사
수천만이어도
누구나 하나같이 받아안은 그 은혜에
쓰러지지 않고
늡지 않고
보답의 자욱만을 남기려니

아 백발의 이 전사
오늘 다시 큰걸음을 내짚어
신념을 지켜산 나날을 백배해
위훈의 길 빛나게
의리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영원히 영원히



푸른거목

박 성 보

이 땅이 얼마나 깊고깊은지
나무야 아느냐 정녕 아느냐
말없이 말없이 품어준 땅이 고마워
영원히 내렸네 뿌리내렸네

—노래 《땅과 나무》 중에서—

1

동천하늘에 푸릿한 빛이 배여들기 시작하자 밤새 포릿포릿 빛을 뿌리던 별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낮이 밤을 허리아래로 굽어본다는 하지가 금방 지난지라 새날의 시작이 무던히도 성급해지는 요즘이다.

이날도 여느날과 다름없는 시간에 리순덕은 머리를 비다듬으며 토방으로 나섰다.

녕쿨에서 갓 따낸 오이처럼 생신한 새벽대기가 온몸을 거뿔하게 해준다. 한창 익어가는 여름을 타고 저마끔 성장을 다그치는 온갖 곡식들의 향취가 질게 배여있어 더 정차게 감수되는 새벽공기이다.

리순덕은 천천히 뜨락에 내려섰다. 그리고 토방 모퉁이에 놓여있던 다래끼에 손을 가져갔다. 새벽마다 마을과 별들을 돌아보며 산분이 띄우면 모아 담은 다래끼였다.

나이 일흔이 넘도록 30년나마 여기 배천군 금성리 제9작업반 반장사업을 해오는 리순덕에게 있어서 새벽마다 마을과 별을 돌아보며 어제의 일들을 상기해보고 오늘 하루사업을 다시금 꼼꼼히 따져보는것은 가물칠 찰흙덩이처럼 굳어진 습관이다. 그런데 이런 습관을 따르는것도 며칠 안남았다.

요즘 늘 그러지만 지금도 새날에 들어서니 닷새전 리당비서를 찾아가 마주앉았던 일이 눈앞에 선히 되새겨오른다.

…《그게 진심에서 하는 말입니까? 반장어머니.》

50대 중반의 나이이지만 언제나 깍듯이 《반장어머니》라고 부르곤 하는 리당비서였다.

《진심이웨다. 이제야 반장사업을 봐야지요. 내 나이 몇이우.》

리당비서는 착잡한 눈길로 이윽히 리순덕을 건너다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무슨 말을 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분상한 일이라도 …》

《아, 아니웨다. 우리 반원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리당비서는 이윽도록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물론 우리들도 생각이 많습시다. 일흔나이를 넘어서선 년로한 어머니에게 아직 작업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있으니 어머니의 자식들앞에나 인간적도리앞에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만 한 일군이 쉽지 않기에… 둘러봐야 우리리에 어머니네 작업반만큼 일이 잘되는 작업반이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꼭꼭 넘쳐수행한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또 자체로 농사짓는데서도 모범이고 3대혁명붉은기도 리적으로 제일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누구의 공이겠습니까? 바로 반장어머니가 아글타글 노력해온 덕이지요.

그래서 년로하신 어머니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있는 죄스러움은 있어도 아직 그대로…》

《예구, 우리 작업반에만두 책임자는 얼마든지 있수다. 새 교육을 받은 끝끝한 젊은이들이 수두룩한데… 리당비서동지도 나 못지않게 로파심이 가득하군요.》

리순덕은 가볍게 웃었다.

《물론 시키면 할 사람이야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농사가 중요한 때에 어머니만큼 능숙하게…》

《곡식도 심자마자 제창 돌아앉아 수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수. 그러구 난 이젠 기력두... 예수소리할 때와 껍 다르웨다.》

이 말이 한층 가슴을 저릿하게 한듯 리당비서는 흠칫 눈섭을 떨었다.

《그럼 반장어머니의 의향을 군당에 반영하겠습니다. 부탁하고싶은건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내색을 하지 마시고 여전히 반장사업을 잘해달라는겁니다.》

《그야 어부있을라구요.》...

이렇게 리당비서를 만나 심정을 털어놓았던 리순덕이었다.

사실 반장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그 어떤 절박한 사정에 부딪친것은 아니었다. 기력이 모자라 그런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리당비서를 쉽게 납득시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아직 그 나이 사람들치고 쉽지 않을 정도로 허리가 곧고 걸음새가 성큼 성큼했으며 목소리도 뚱뚱한 그였다.

이런 그에게 해임을 청할 마음을 가다듬게 한것은 자식들이었다.

...나이 일흔이 넘도록 반장사업을 한다는게 뭔가, 이제는 그만 집에 들어앉아 손자손녀들과 어울려 편안히 쉬도록 하자, 모내기나 끝낸 후 반장사업을 인계한 다음 여직 미루어온 일흔뉘살생일을 차리도록 하자... 이것이 일곱자식의 한결같은 요구였다.

리순덕은 자식들의 이 끈질긴 요구에서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기특한 마음과 함께 다른 감정도 감득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제때에 물러날줄도 모르는 체면없고 주책머리없는 늙은이라는 뒤소리를 들을수 있다는 자식들로서의 우려와 불안이었다.

리순덕은 여기에 더 마음이 움직여 리당에 제기했던것이다.

리순덕은 천천히 대문가로 향했다.

그러면서도 불꺼진 방안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손녀애가 아직 새근새근 자고있어 방은 고요했다.

일곱자식모두가 도와 군은 물론 평양에까지 내려살고 몇년전에는 남편마저 돌아가다보니 리순덕은 너털청한 집에서 혼자 살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장연군에서 살던 외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길로 제창 적까지 떼가지고 와 함께 살고있는것이다.

리순덕은 허우룩해지는 마음을 안고 대문을 나섰다. 그러던 그는 무춤하며 옆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다.

《원, 이런 정신이라구야.》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훌쭉한 담배쌈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담배쌈지가 빈걸 모르고 나가려던 자기를 탓하며 그는 돌아서서 옷방쪽 토방에 올라섰다.

순덕은 항상 담배쌈지를 넣고 다녔다. 특히 새벽길에 나설 때는 거둬 판심을 두었다.

신새벽에 나와 논벌을 돌아보는 물관리공들을 만나면 한대 말라고 꺼내놓곤 하는 담배쌈지였다. 수고한다는 말보다 한대 말라는 말이 자기들의 수고에 대한 반장의 더 큰 평가로 여기는듯 그들은 달게 받아 말복때의 살오른 고추만 하게 말아 물곤 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 재미란 참.

옷방에 올라가 담배쌈지를 불룩하게 채워가지고 나온 순덕은 대문을 나섰다.

《반장어머니 아닙니까?》

문득 앞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순덕은 눈길을 들었다. 멀지 않은 큰길가에 웬 사람이 서있는것이 푸릿한 새벽빛에 안겨왔다.

《누군가? 혹시 기술원이 아닌가?》

《예, 제 신은남입니다.》

순덕은 쟁걸음을 놓았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오후 생물농약을 가지러 읍에 갔던 기술원의 일이 어떻게 되었을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던 순덕이었다.

《어제 밤늦어 왔습니다. 곧장 어머니집에 가려다 너무 늦어서 오늘 새벽 만나 보고하자구 이렇게...》

마을사람들치고 순덕이 매일 새벽길에 나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것이다.

《그래 갔던 일은 잘됐나?》

《안됐습니다. 그래서 더 늦었습니다.》

신은남의 어조에는 기운이 꺼져있었다.

《생산량은 제한되어있는데 수요단위는 많지... 며칠전부터 신청하고도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어제 오후에야 간 저로서야 어방있습니까. 그래도 행여나 해서 저녁늦게까지 있어봤는데...》

신은남은 맥이 나는듯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생물농약으로 말하면 군의 어느 한 단위에서 농업과학원의 방조밀에 새로 개발한것이었다. 적은량을 가지고도 효능이 높아 매우 실리적이라는것이다.

《반장어머니, 마음을 늦잡고 기다립시다. 좀 있으면 생산량도 늘고 공급체계도 선다는데...》

《가만있게. 좀 방도를 생각해보자구. 새 농약이 좋은걸 안 다음에야 어떻게 하나 빨리 가져다 써야지. 무슨 일이든 누워서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는격으로 해서는 안되네.》

순덕은 조용히 타이르듯 말하며 자기도 무릎을 꿇고 곁에 앉았다.

《한대 말라구.》

그는 담배쌈지를 꺼내 신은남의 앞에 놔주고는 먼 하늘가에 눈길을 주었다. 이윽히 그러고있던 그는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내 갔다와야겠네.》

《아니, 반장어머니가요?》
 신은남은 눈이 커져가지고 마주보았다.
 《알겠나, 내가 가면 좀 나올런지.》
 리순덕은 움쭉 일어서며 강조했다.
 《오늘 작업조직은 엿저녁 분조장모임에서 다해 놓았으니 그대로 채근하게.》
 《넘려마십시오. 그런데 읍까지 반장어머니가 어떻게...》
 《걱정말게.》
 순덕은 죄스러움과 미안함으로 어쩔줄 몰라하는 신은남의 어깨를 툭 쳐주고 집으로 향했다.
 신은남은 멀어져가는 순덕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안절부절했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아직 늙은 반장어머니를 고생시키다니. 죄스러움이 가슴에 차오르는 한편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이 악성, 농사와 판련해서는 한치도 양보를 모르는 그 이악성만은 나이가 들어도 조금도 잦아들지 않는것이다. 아마 그것은 땅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강렬한때문일것이다.
 신은남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리순덕이 급히 가며 놓고간 담배쌈지에서 두툼히 한대 말아 피워물었다. 느물느물 피어오르는 담배연기속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일들이 살아올랐다.

재작년 이맘때의 어느날 리소재지마울에 불일이 있어 갔던 신은남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오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문득 한곳에서 눈길이 굳어졌다. 멀리 2분조 강냉이밭에서 아직 사람들이 김매기를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신은남은 시계를 보았다. 낮 1시가 지났다.

신은남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해도 2분조원이니 분명 거기에 있을것이었던것이다.

그곳에 다달은 신은남은 깜짝 놀랐다. 파가운 해빛에 땀을 짹짹 흘리면서도 모두 김매기에 여념없는것이 아닌가.

《아니, 정신들이 나간게 아니요? 점심시간이 지난것두 모르구.》

누구에게라없이 소리치는 그의 말에 모두들 허리를 펴고 돌아보았다. 안해가 급히 한손을 내리 그으며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리고는 앞쪽의 한곳을 가리켰다.

그곳으로 눈길을 주던 신은남은 다시한번 놀랐다.

리순덕이 김을 매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서둘러 그곳으로 다가갔다.

《반장어머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식사야 하구 일을 해두...》

신은남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순덕의 노한 눈길과 부딪혔던것이다.

《땅두 굶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밥을 먹겠나.》

《예? 땅이 굶다니요?》

신은남은 또다시 눈이 커졌다.

《보면 모르겠나? 이 밭의 곡식들을 둘러보게.》

신은남은 밭을 휘돌러보았다. 찬찬히 보니 짐작되었다. 다른 밭들에 비해 강냉이대들이 좀 연약하고 색깔이 퍼렇지 못해보였다.

《그래 이게 땅이 굶어서 허기가 졌다는 표적이 아닌가?》

후에 안 일이지만 리순덕은 밭들을 돌아보다 여기 와서 곡식들이 여느데만 못한것 같은감이 들었다. 대뜸 무엇인가 짊이는것이 있어 밭을 파보았다. 흙을 한줌 쥐고 냄새를 맡아보니 아닐세라 냄새가 신통치 못했다. 여러곳의 흙을 파보니 꼭 같았다. 거름을 제대로 안 준것이 분명했다.

그는 2분조장을 불렀다. 그리고 분조의 진거름 생산량이 정확했는가, 제 량을 다 밭에 냈는가 따졌다.

처음에는 어물거리던 2분조장이 반장을 속일수 없다는것을 느꼈는지 솔직히 고백하였다. 생산량이 좀 모자라 다른것을 섞었다고, 그래서 량적으로는 되지만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름을 냈다고...

순덕은 아무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는 집으로 곧장 들어가 호미를 들고나와 고랑을 타고앉았다. 2분조원들이 당황하여 만류하였으나 그는 들은척도 안했다.

어찌할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던 2분조장이 곁에 다가갔다.

《반장어머니, 제가...》

《긴말할새가 없다. 허기진 땅에서 풀 한대라도 빨리 없애 집을 덜어주는게 급한 일이야.》

순덕은 결눈 한번 보내지 않고 호미뿔 손을 놀렸다. 반장이 그러니 분조원들도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12시가 되고 1시가 지났다. 그런데도 반장이 밭을 뜨지 않으니 어떻게 점심을 먹겠다고 집으로 걸음을 땔수 있겠는가.

신은남은 순덕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생각에서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반장어머니, 잘못은 고치면 되는거구 점심까지 굶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기술원은 그래 제 자식이 굶어있는걸 뵈히 알고서도 집안에 맘편히 앉아 밥술을 뜰텐가.》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도 가슴이 찌릿했다. 하여 신은남은 군말없이 집으로 가 호미를 가지고 다시 나왔다.

오후 3시경이 되자 분조원들은 아예 녹초가 되었다.

잠시 허리를 펴고 그들을 둘러보던 순덕은 한 처녀를 조용히 불렀다.

《애 혜옥아, 너 이제 우리 집에 갔다오너라. 가면 우리 금선(손녀)이가 뭘 보낼게다.》

얼마후 혜옥이가 밭머리에 나타났다. 그는 머리에 불룩하게 보를 썩은 버치를 이고 한손에는 빨

간 비닐바게뜨를 들고있었다.

그를 본 순덕은 2분조장을 찾았다.

《이젠 좀 쉬세나.》

밭머리로 나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버치에는 주먹같은 삶은 고구마가 무뎡하고 바게뜨에는 잘게 썬 파가 웃면을 쪽 덮은 랭국이 가득한것이 아닌가.

순덕은 아무 일도 없었던듯 소탈한 어조로 2분조원들에게 말했다.

《어서 한개씩 쥐게. 랭국은 아직 햇오이가 팔만한게 없어 파랭국을 타왔으니 곁들라구.》

그는 이미 호미를 가지러 집에 갔을 때 손녀에게 준비하도록 이르고 왔던것이다.

반장의 소탈한 이 말에 분조원들은 너도나도 고구마를 한개씩 쥐었다.

《그래 배에 기별이 좀 갔나?》

순덕이 누구라없이 둘러보며 물었다.

《어이구, 배가 불러요. 반장어머니.》

《정말 배가 고팠다 먹어 그런지 일등 진미예요. 호호호...》

《배가 부르니 살것 같네. 호호호...》

분조원들은 웃고 떠들었다.

순덕은 느슨한 미소를 짓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것 보라구. 그제 배가 불러야 힘두 나구 웃음도 나오지 않나. 땅두 같애. 배가 불쑥하게 잘 먹이구 투실투실 살찌워야 힘을 써서 곡식을 잘 자래우거던. 사람도 먹어야 힘을 쓰는것처럼 먹은 것만큼 힘을 쓰는게 땅이야. 그래서 땅은 속이지 못한다는거네.》

조용히 울리는 그의 말이나 분조원들은 커다란 충격속에 받아들이고있었다.

《땅을 제 자식처럼 귀히 여기면서 잘 먹이는데 농사군한테 첫째야.》...

신은남은 그날 리순덕의 진실한 농사군의 품성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꼈었다.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은것을 꼽자면 끝이 없었다.

그러한 추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것이어서 신은남은 선뜻 자리를 뜨지 못했다. 오늘따라 왜 이리도 유별나게 그 추억들이 진하게 되살아오르는지.

2

아침상을 물리자 리순덕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жат은 걸음으로 마을끝에 이른 그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그루 서있는 나지막한 둔덕에 올랐다. 느티나무밑에 이른 리순덕은 급해진 숨을 잡히느라 잠시 섰다. 그러면서 나무에 눈길을 주었다.

жат 떠오른 아침해빛에 우람한 동체를 한껏 드러낸 나무가 오늘따라 더 정차게 안겨왔다. 아름다

리로 자라도록 아직 구새먹은 자리 하나 없는 둥구질의 이 느티나무는 리순덕이 무척 애착을 가지고있는 나무였다. 나날이 싱싱하게 자라온 나무가 꼭 년년이 성장하여온 고향마을을 상징하는듯 싶어 더 정이 갔던것이다.

리순덕은 천천히 돌아서 마을에 눈길을 주었다. 둔덕아래로 한눈에 안겨오는 아담한 마을과 그앞의 푸르게 펼쳐진 작업반포전들이 유별난 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안겨왔다.

자기가 태를 묻은 땅, 수십년간 반장사업으로 온갖 넋과 심혈을 기울여온 땅, 이 땅과 함께 흘러온 자기의 보람찬 삶이 되새겨졌다.

배천땅은 조국해방전쟁전까지만 하여도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 있었다. 그러다 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에 의해 해방돼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해빛을 받아안게 되었다.

리순덕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오막살이 삼작문으로 언제 한번 스며든적 없는 눈부신 채광을 앞세우고 제일먼저 비쳐든 은혜로운 해빛은 토지분여라는 엄청난 사변이었다. 세 식구의 가정에 논 2 000평과 밭 1 000평, 대대로 내려오며 자기 땅이라고는 단 한뼘도 몰랐던 그의 집안에 3 000평의 체당이 그저 생겼으니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꿈같은 현실이었다.

온 집안식구가 분여된 땅에서 떠나지 못했다. 달빛도 유정한 밤, 안해와 딸자식을 량견에 두고 밭가운데 퍼더앉은 아버지는 흙 한줌을 손에 쥐고 껌껌 흐느꼈다.

《체당이 없어 자식 넷을... 잃었지. 첫째, 둘째는 굶어죽구 막내가 다섯째는 병만나 죽구, 셋째는... 셋째는 이 흙 한줌때문에 매맞아... 죽구...》

순덕은 눈물이 좌르르 흘렀다. 8년전 6살때의 일이지만 손우오빠가 매맞아죽던 그 참혹한 일이 어찌 풀수에 새겨지지 않았으랴. ...

《아버지, 우린 왜 맨날 풀을 뜯어다 죽을 썬먹나?》

《난알이 없어 그렇구나.》

《난알은 왜 없나? 아버지랑 엄마랑 계속 밭에 나가 일하지 않나.》

《그 밭은 우리 밭이 아니다. 우리 땅이 없어 우리 난알두 없구나.》

《땅? 우리 집앞에 맨 땅인데두?》

《그게 다 강지주네 땅이다. 저 토방밑에 손바닥만 한 프락두.》

《그럼 음... 우리가 사는 이 집안에 강냉이를 심자마. 우린 바싹 좁혀 자구.》

《너석두, 곡식은 땅에서만 자라지 이런 구들에선 못 자란다.》

이것이 참변이 있기 며칠전의 일이었다.

《아버지, 나 난알 만든다.》
 《난알을 만들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불래?... 자!》
 《허, 네 주먹만 한 흙덩이... 가만, 무슨 싸이 나오누나.》
 《강냉이싸이야. 저 밭에 있는데서 한알 주었던 것 심었지 뭐. 맨날 물뿌려주구 햇빛을 쬔어줬더니 인차 싸이 나왔어. 이거 이제 크면 내 팔만 한 강냉이 열리겠지?》
 《허, 녀석두...》
 그런데 그 한줌의 흙덩이가 화근이 될줄 어찌 알았으랴.
 마름놈의 집에서 오후내껏 술추렴을 하고 해질 녘 개화장을 휘두르며 비칠비칠 마을돌이를 하던 강지주놈이 순덕이네 집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굴뚝모퉁이에서 흙덩이에 지는해를 비쳐주며 앉아있던 셋째는 그것을 등뒤로 돌리며 뒤걸음쳤다.
 《요녀석, 뒤에 감추는 그게 뭐냐?》
 《...》
 《이보게, 조녀석이 무얼 감추는지 보게.》
 마름놈이 와락 달려들어 흙덩이를 빼앗았다.
 《허, 별게 아니올시다. 흙덩이를 가지구...》
 《가만, 거기에 무슨 싸이 트지 않았나?》
 《달라요. 강냉이를 심은 흙이야요.》
 《강냉이를 심었다? 호호, 미련한 녀석.》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요녀석, 풀죽두 못 먹는다는 집안에 강냉이는 어디서 났어? 흙쳤지?》
 《흙치지 않았어요. 저 밭있는데서 한알 얻은거야요.》
 《그 그럼 이 흙은 어디서 났어? 흙쳤지?》
 《흙두 흙치나요? 저 길옆에서 한줌 가져왔어요.》
 《요녀석, 그것두 다 내 땅이야. 여기 있는 땅은 어느것이나 다 이 강민상의 땅이란 말이야.》
 《난 흙치지 않았어요. 흙치는거야 몰래 가지는 것이 아니나요. 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낮에 가져왔어요.》
 강지주놈은 씩씩거리며 눈을 희번덕했다.
 《달라요. 어서 달라요.》
 셋째가 동동 발을 구르며 다가붙었다. 그통에 강지주의 하얀 구두가 셋째의 짚신에 밟혔다. 발자리가 난 구두를 내려다본 강지주의 상통이 무섭게 이지러졌다.
 《요놈의 자식!》
 눈을 홑뜨며 입술을 감쳐문 강지주가 술기운까지 한껏 뽀쳐 개화장을 번쩍 쳐들었다. 이어 그것이 획— 소리를 내며 셋째의 정수리에 떨어졌다.
 《악!》
 셋째는 머리를 싸쥐고 땅에 나동그라졌다. 그에는 아랑곳없이 강지주는 흙덩이까지 땅바닥에

내리치고는 《가세나.》하고 돌아섰다.
 부엌문앞에 서서 무서움에 오돌오돌 떨며 바라보고있던 순덕이 《오빠야—》하고 울음을 터치며 달려갔다.
 한참만에야 이것을 알고 밭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달려왔을 때는 정통을 맞은 셋째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절통하고 통분했지만 부모들은 가슴만 찼다. 흙 한줌 제 것이 없는 그들이 권세가 하늘같은 그놈들을 어찌한단 말인가. ...
 순덕은 신바람이 났다. 땅을 가꾸고 곡식을 가꾸는데서 온갖 열성을 다했다. 일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그는 마을의 어른들이 무은 소겨리반, 품앗이반에도 남먼저 들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적은 힘이나마 아끼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농업협동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혁까지 거치자 순덕은 의식정도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느모로든 짝지지 않는 미끈한 처녀로 숙성하였다.
 키가 늘씬하고 얼굴이 환하고 성미가 활달한, 그러면서도 농사에 더없이 근면한 그를 탐내어 이곳저곳에서 소개자들이 나섰다. 여기에 덩달아난 부모들이 어서 혼처를 정하고싶어 몸달아했다. 하지만 순덕은 아직 이성에 대한 감정과 멀리 떨어져있었다. 오직 농사에 대한 애정만이 짝차 있는 그의 가슴속에는 이성이 비집고 들어설 자그마한 틈바구니도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협동화가 끝난 이듬해 봄 어느날이었다.
 조합에서는 며칠간을 말미로 조합내 청년들을 모아 어느 한 자드락밭정리작업을 조직했다. 밭가운데 있는 바위들을 뽑아내고 돌들을 추어내야 했다. 첫날 작업이 끝난 저녁이었다. 어느덧 일이 끝나 떠들썩하던 작업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둘 자기 마을로 돌아갈 가는것이였다.
 순덕은 밭가녁 돌우에 앉아 잠시 다리쉬를 했다. 어서 돌아가자는 같은 마을의 처녀들에게 어디 들렀다 갈데가 있으니 먼저 가라고 보내고 떨어진 순덕이였다.
 이윽고 작업장엔 순덕이 혼자 남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밭에서 뽑아낸 바위들을 내다놓은 곳으로 다가갔다.
 순덕은 첫돌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허리에 들었던 밥보자기를 풀었다. 밥곽은 따로 내놓고 보자기만 옆에 폈다. 그는 돌에 붙은 흙들을 한줌, 두줌 긁었다. 울퉁불퉁한 흙타기들에 차 있는 흙들도 긁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기에 담았다.
 사실 그는 낮에 일하면서 이것들이 몹시 아까웠다. 땅속에 묻힌 바위들을 뽑아낼 때마다 그 짚새기들에 무뎡뎡 묻어있는 검소한 흙, 그것을 그대로 바위와 함께 내다버리기에는 너무도 아깝게 생각되였다. 저 흙 한줌때문에 셋째오빠는 생죽음

을 당하지 않았던가. 골수에 새겨진 그때의 일이 자꾸 살아오르면서 자기의 살점이 묻어나가는 것처럼 아프게 여겨졌다.

순덕은 꼬챙이를 집어 들고 작은 흠타기의 흠도 모두 긁어내었다.

아, 이 한줌 흠때문에 오빠는 갔어. 억울한 생 죽음을 당했어. 이 한줌, 이 흠 한줌이 없어서... 랑볼로 눈물이 좌르르 흘렀다. 감쳐문 입술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버릴수 없어! 이 한줌에 씨앗 한알이 묻힐수 있는데, 이 한줌에 생명도 없었는데 귀중한 이걸 어떻게 버려!

잠간사이에 보자기가 무뎌졌다.

순덕은 보자기의 네귀를 잡고 일어났다. 발으로 들어가 우묵해보이는 곳에 쏙고 다시 나온 그는 다음 돌앞으로 옮겨앉았다.

일에 정신이 팔린 순덕은 날이 어두워지는것도 감각 못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득히 실린 지계를 진 총각이 자기를 이윽도록 지켜보고있는줄은 더욱 몰랐다.

날이 무척 어두워 이제는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순덕은 허리를 폈다. 따져보니 절반나마 일감을 축냈다.

가벼워지는 마음으로 무심히 주위를 둘러보던 순덕은 깜짝 놀랐다. 저만치 둔덕진 곳에 웬 사람이 앉아있는것이 거뭇하게 눈에 띄었던것이다.

《어마! 누구예요?》

대답이 없었다.

《사람이에요, 뭐예요?》

순덕은 다시 소리쳤다.

그제서야 머뭇머뭇한 말소리가 울려왔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인데... 무서워하지 말고 어서 가오.》

여기서 일하던 사람? 그럼 누가 아직 있었는가?

순덕은 못할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멧적은감이 들었다. 그래서 흠보자기를 급히 발에 쏙고는 도망치듯 황황히 걸음을 놓았다.

《저, 밥곽...》

그 소리에 순덕은 멈춰섰다. 돌아서서 처음 시작하던 곳으로 달려간 순덕은 밥곽을 손에 쥐자 다시 쟁걸음을 쳤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낮에 함께 일하던 남자들속에서 본 기억이 나는 청년이었다. 오후 칠참 오락회때 지명을 받고도 선뜻 나서지 못해 한참 시가슬림을 받던 총각, 마지못해 나서서 머뭇거리다 겨우 《발갈이노래》의 첫운을 떼고는 제 멧에 쭉스러워 고개를 틀어 박으며 황황히 들어가았던 그 총각이었다.

《음, 무슨 남자가 저렇니.》

《형편없는 쫄난이구나!》

《우리 모래동 남잔데 부모없이 누이네 집에 얹혀살아, 조형우라구.》

등뒤의 처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었다.

이튿날 작업이 끝난 후에도 순덕은 혼자 남았다. 어지간히 시간이 흐른 후 순덕은 큰 바위와 맞닿았다. 드러난 부분의 흠은 다 긁어내고 뒤집어야 밑부분의것을 걷어내겠는데 떡판만 한 그것은 들썩거릴뿐이었다. 모두숨을 쉬고나서 다시 한번 용을 쓰려 허리를 굽히는데 불쑥 웬 사람이 곁에 나타나 손을 들이미는것이였다. 순덕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또 그 《쫄난이》였다.

처녀의 시선에 눈둘 곳을 몰라하던 조형우는 제 혼자 끄 힘을 썼다. 순덕이도 서둘러 힘을 보탰다. 바위는 쉽게 뒤집혔다.

《아이, 동문 저녀마다 흥길동이가 되는게 아니예요?》

순덕은 고맙다는 말대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조형우는 그저 병긋 웃고는 둔덕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을 바라본 순덕은 다소 놀랐다. 지계가 작시미에 버티어져있었는데 무엇인가 무드기 담겨져있는것이 아닌가.

순덕은 호기심이 나서 그를 따라갔다.

《이게 뭐예요? 어마나! 거름이 아니예요?》

지계로 다가간 순덕은 대번에 알아보고 놀라와했다. 짚이 잘 썩은 거름이었던것이다.

《이걸 어디서 가져와요?》

《저 뒤골짜기에서...》

《뒤골짜기요?... 아니, 거기에 어떻게 이런 거름이 있어요?》

《아마 오래전에 골짜기에 들어가 부대기를 일쿠던 사람들이 살던 집갈소. 그 집이 무너져있는데 이영으로 썩었던 짚이 잘 썩었더구만.》

《그런데 언제 그걸 알아두었댔어요?》

《우연히 알았소.》

《그래서 이렇게 일 끝나군 집에 가면서 한지게씩 지고 가는군요.》

《집에까지야 뭘. 여기 가까운 발에 뿌려주면 되는거지. 여기두 다 조합밭이 아니요.》

순덕은 조형우를 다시 보게 되었다. 어질기만해보이는 이 청년의 가슴에 그렇듯 소중하고 깨끗한 마음이 들어있었는가? 외딴 곳에 무쳐있는 거름이 아까와 스스로 쳐나르는, 그것도 제집 밭이 아니라 조합밭으로 가져가는 청년.

《아직 많아요?》

《뒤지계는 뭘것 갈소. 그런데 더 좋은것이 있더구만. 구들골을 헤쳐보니 재가 짝 차있소. 그걸 다 굵으면 몇가마니는 뭘것 같은데 그것까지 저와야겠소.》

조형우는 평시의 그 어진 성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흥분에 떠있었다.

순덕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 해왔다. 이 청년이야말로 진짜배기농사꾼이구나! 거름 한줌, 퇴비

한줌 귀해하는 진짜배기농사꾼...

《동문 정말 쉽지 않은 동무군요.》

순덕의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감동에 젖어있었다.

《내가 무슨 ... 난 오히려 동무가... 어제 저녁 내려오다 돌에 묻은 흙 한줌도 귀해하는 동무를 보고 정말 놀랐소.》

순덕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단순히 자기에 대한 찬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청년의 그 진정이 뜨겁게 느껴져서였다.

《이젠 돌아가야 하지 않소? 날도 새까맸는데...》

《거긴...》

《난 몇집 더... 오늘루 거름을 모두 저와야겠기에...》

《그럼 나두... 근방에 사람이 있으면 무섭지 않는데요 뭐.》

다음날 저녁에도 그들은 함께 그곳을 뒀다.

별많은 하늘을 이고 형우와 함께 걷는 순덕의 마음은 사뭇 즐거웠다. 자기스스로도 이상스러웠다. 여직 그 어떤 남자와도 가까이 해본적 없는 자기가 이 청년과는 불과 이틀사이에 이토록 자연스럽게 어울리다니. 별많은 봄밤 흙냄새 구수한 들길로 공감되는 청년과 호젓이 걷느라니 순덕은 기분이 상쾌하기만 했다.

《저, 동문 노래를 좋아 안해요?》

《노래? 뭐 별루... 그러나 〈밭갈이노래〉는 좋아하오.》

《그런데 왜 요전 오락회때 시작하다말구 쫓나서 그랬어요?》

《난 사람들이 많은데선 혼자 나서서 못 부르겠소.》

《호호호... 그럼 래일 오락회때 내가 함께 불러줄게 다시 불러요.》

《함께? 아니, 동무야 너자가 아니요?》

《너자지요!》

《남자가 어떻게 너자하구 단들이 사람들앞에서서 노래를 부른다는거요.》

《어쨌든 래일 함께 불러요. 동문 그러니까 자꾸 〈쫓난이〉라는 소릴 듣지요.》

하지만 이튿날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를수 없었다. 밭정리작업을 오전중으로 끝내고 각기 자기작업반으로 헤쳐가게 되었던것이다.

작업반에 돌아와 일하면서도 순덕은 조형우를 잊지 못해하였다. 순박하고 고지식한, 땅처럼 성실하고 근면한 그의 성품에 대한 달콤한 매혹이 온몸을 파악 휘감고 취할듯 한 즐거움을 뿜어주는것이였다.

어느날 점심때 순덕은 상을 물린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나 맘드는 남자가 있어요. ...》

《뭐?》

아버지는 꿈쩍 놀랐다.

《그래 어디 있는 총각이냐?》

《모래동에 있어요. 조형우라구...》

《?!...》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순덕을 불러앉혔다.

《내 아가 해질녘 모래동에 건너갔다 왔다. 조형우를 보러 말이다. 누이네 집에서 사는 젊은이 더구나. 어머니는 3살때, 아버지는 7살때 잃고 불쌍하게 자란 총각이더라. 그래 그런지 성격이 온순하구 농사일엔 직심스런 젊은이라더라. 이웃들에 알아봤는데 평이 좋더구나. 보아하니 넌 그 젊은이의 직심스런 농사군성품에 마음이 끌린것 같은데... 그대로 하자꾸나. 너야 그런 남잘 배필로 정할 성격인걸 할수 있나.》

순덕은 눈물이 쿵 솟았다. 딸자식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아버지가 이때처럼 고마와본적이 없었다.

한달후에 그들은 가정을 이루었다. 정지문을 헤친 두칸방이 터져나가게 모여앉은 동네사람들앞에서 그들은 《밭갈이노래》를 불렀다.

두 마음이 하나로 되어서인지 모든 일이 잘되였다. 로력공수에서도 그들부부는 언제나 앞자리였고 가정살림을 꾸리는데서도 마을의 본보기였다. 천리마의 발구름에 실려 나날이 통성해지는 나라의 현실과 더불어 그의 가정살림도 풍성해졌다.

자식들도 늘어갔다. 아들 다섯에 딸 둘...

그렇게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순덕의 농사에 대한 남다른 열성과 이악한 노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신임에 의하여 반장사업을 하면서부터는 그 성미가 더해졌다.

어느해 가을걷이때였다.

농장원들속에 섞여 벼가을을 하던 그는 점심시간이 되어 허리를 뒀다. 조금전에 농장원들은 모두 집에 들어가고 혼자 남아 벼를 베던 그였다.

며칠전부터 아예 점심밥곽을 싸가지고 나온 그는 잠간 밥을 먹고 하려고 논머리로 나왔다. 그런데 논두렁밑에 놓았던 밥곽이 없었던것이다. 조화였다. 분명 집에서 넣었었는데... 어쨌든 점심밥이 없으니 집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다래끼끈을 어깨에 메고서도 선뜻 밭갈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집에 들어갔다 나오느라면 한시간은 나마 걸릴것이였다. 물론 기껏 10분이면 될 가까운 거리이지만 일단 집에 들어가면 이것저것에 손이 잡혀 인츰 나오게 되지 않는것이였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입술을 웅쳐물며 다래끼를 내려놓았다. 한끼쯤 참자. 벼 한줌이라도 빨리 베는것이 급선무야.

리순덕은 낫을 쥐고 논가운데로 다시 들어갔다.

리순덕이 한창 벼를 베는데 불쑥 남편이 곁에 나타났다.

《허, 짐작이 틀림없지.》
 그의 손에는 꽤 큼직한 보꾸레미가 들려있었다.
 《아니, 양희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이 안 들어올것 같드라니 나왔소.》
 《내 점심밥박이 집에 있던가요? 분명 아침에
 넣구 나온것 같은데...》
 《넣고 나갔지. 그런데 그것이 걸어서 다시 집
 에 들어왔더구만.》
 《예? 그건 무슨...》
 《당신이 점심시간에나마 좀 허리를 펴게 하겠
 다는거지. 허허...》
 남편은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탈곡장보수정리를 끝내느라 밤을 새우고 아침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생각이 많았다. 요즘 점심밥
 까지 싸들고 벌에 나가곤 하는 안해의 얼굴이 몹
 시 축간것이 무척 마음에 걸렸던것이다.
 생각던 끝에 집에서 키우던 큰 토끼 한마리를
 잡았다. 자기 손으로 성의껏 고기요리를 한 다음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를 시켜 벌에 나가 몰래 밥
 박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면 안해는 별수없이 집
 에 들어올것이라고 타산했던것이다. 그런데 남
 들이 다 들어온지도 퍼그나 시간이 되었으나 안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안해의 성미를 상기고난
 남편은 음식을 싸들고 벌로 나왔던것이다.

《자, 앉소.》
 남편은 마른 논바닥에 보를 펴놓고 음식그릇들
 을 놓았다.
 배고픔을 참는다 하고있을 땐 그닥 몰랐는데 정
 작 음식을 보자 시장기가 못 견디게 살아올랐다.
 순덕은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곁에 앉아 그러는 안해를 이윽히 바라보던 남편
 이 입을 열었다.
 《밥을 꼭 싸가지고 나와야겠소? 집이 멀지도
 않은데.》

《어찌됐어요. 할일은 많지, 날은 제한되어있
 지. 생각던 끝에 날자를 만들어 쓰려구 했어요.》
 《날자를 만들다니?》

《가만 타산해보니 하루중에 제일 짜낼수 있는
 시간은 점심때더군요. 벌에서 집이 아무리 가깝다
 해두 집에 들어가면 어쩔수없이 한시간나마 시간
 을 바쳐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점심을 싸가지고
 나오면 기껏 십오분정도 뺏겨요. 그러니 하루 한
 시간씩만 시간을 얻어내두 열흘이면 열시간, 웅근
 하루 일하는 시간이 생겨요. 바쁜 농사철에 하루
 가 어디예요.》

순덕은 불쑥 생각키우는것이 있는지 미안한 기
 색으로 말을 이었다.

《양희 아버지에게 정말 미안한것이 많아요. 내
 가 이렇게 나와 살다싶이하니 양희 아버지가 집
 에서 짐승먹이그릇두 더 많이 들어야 하구 아이들
 뒤거둬두...》

《허, 그만하오. 내 이제는 습관된걸 뭐. 당
 신을 위해서두 내가 <거름> 이 돼야지. 허허...》
 《저도 앞으로 안해구실, 어머니구실을 하는
 데 더 관심을 두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어쩔수없
 이 그럴 때두 있게 될거예요. 그래두 앞으로 자식
 들이 다 리해하리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그런 안해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기
 만 했다.
 이때부터 리순덕은 해마다 모내기때나 가을걷이
 같이 바쁜 계절이면 항상 점심밥박을 허리에 차고
 벌에 나가곤 했다. 그것은 먼 후날까지 그의 몸
 에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졌다.

문득 리순덕은 머리우에서 울리는 못새들의 울
 음소리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느티나무의 우거진 가지들에 새들이 날아와 앉
 아있었다.

풍만한 나무의 자태가 마음을 끌어서인지 하 많
 은 못새들이 즐거이 날아들어 보금자리를 틀거나
 서느러운 그늘속에 앉아 쉬고가곤 했다.

그 모든것을 탓하지 않고 너그러이 받아주면서
 자기를 기꺼이 바쳐 헌신하면서 나무는 잎새들을
 사랑대고있었다.

그런 나무를 이윽히 올려다보며 리순덕은 고개
 를 끄덕이었다.

(인간도 그런 멋에 사는거지. 마감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고말구.)

이어 그는 큰길쪽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3

리순덕은 이렇게 빨리 목적을 이룰줄은 몰랐다.
 점심녘 돼서야 읍에 당도하여 곧장 생물농약을 생
 산하는 단위에 갔었는데 기술원 신은남의 말이 조
 금도 그르데가 없었다. 생산량에 비해 예약단위가
 많았던것이다.

하지만 그곳 책임자는 순덕의 말을 듣자 딱해하
 면서도 가능한껏 노력해주었다. 할머니작업반장으
 로 군내에 소문난 리순덕이 년로한 몸으로 먼길을
 온데 대하여 무척 감심되었던것이다. 그래서 먼저
 예약된 사람들에게 사정을 하고 적지 않은 량의
 전표를 떼주었다.

순덕은 마음이 날듯이 가벼웠다. 리에 전화를
 해서 차를 불렀다. 더우기 그를 기쁘게 한것은 작
 업반자체로 생물농약을 생산할수 있게 된것이였
 다. 사실 그는 이곳으로 오면서 이 문제에 많은 생
 각을 두었었다. 들은 말에 의하면 농촌에 흔한 식
 물이 기본원료로 된다는데 그렇다면 크게 걸릴것
 이 없지 않겠는가. 전문과학자들의 방조를 받으면
 가능성이 충분할것이였다.

그래서 리순덕은 농업과학원에서 내려와있는 연

구사를 만났었다. 그는 그러지 않아도 농장들에게 나가 생산기지를 꾸려줄 계획이었다고 하면서 순덕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주었다. 수일내로 내려오겠다는 약속도 굳게 해주었다.

리순덕은 젊은 사람들처럼 무릎을 쳤다. 인츰 작업반사업을 놓겠지만 마지막으로 작업반을 위해 큰일을 해주게 된다는 만족감을 누릴수 없었던 것이다.

해질무렵 리순덕은 작업반에 돌아왔다.

그가 탄 자동차가 마당에 들어서자 사무실에서 기술원 신은남을 비롯한 초급일꾼들이 뛰어나왔다.

《반장어머니 오셨군요!》

《수고했습니다!》

리순덕은 무척 반가와하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느슨한 웃음을 보였다.

마당옆에 농약을 부리는 동안 리순덕은 신은남에게 연구사와 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신은남은 좋아 어쩔 줄 몰라했다.

한동안 그러던 신은남은 비로소 생각난듯 말했다.

《참 반장어머니, 리당에서 찾습니다.》

《리당에서?》

《예, 군당책임비서동지가 내려왔답니다. 한 40분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마침 오셨군요.》

순덕은 왜서인지 가슴이 후두둑했다. 군당책임비서동지까지 내려와 찾는다면 심중팔구 자기가 제기한 그 문제때문이라.

순덕은 돌아서서 집으로 걸음을 뚫다. 옷을 갈아입고 어서 리당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외출옷을 갈아입고난 순덕은 잠시 방안에 섰다. 이런 시각이 오리라고 예감은 하고있었지만 정작 부닥치고보니 마음이 설뚱해졌다.

그는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 그 자리에 앉으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래일부터는 고요하고 한적해질 생활, 인생에 전혀 처음인 낯선 그런 생활이 이 집에 깃들리라. 따져놓고보면 그런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번 이 집의 문앞에까지 다닿곤 했었다.

맨처음 와닿은것은 십오년전이었다. 나라에서 녀자들이 일할 나이를 제정한 그 계선에 이르렀을 때 순덕은 자기도 남들처럼 조용히 집에 들어앉으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순덕은 상상할수 없었던 커다란 심리적 충격에 의해서 일손을 놓을수 없게 되었다. 민족사에 있어보지 못한, 있어서는 안될 대국상이 그의 가슴에 커다란 타격을 주며 안겨들었던것이다. 흠 한줄 없던 자기 집안에 묵숨처럼 귀중한 땅을 주시고 인간의 진정한 삶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 만가지 곡식이 태양이 있어 생장하듯이 이 나라 천만백성도 그이 계시여 복된 삶을 누려왔는데 아, 그이께서 가시다니.

줄도하여 쓰러졌던 순덕은 강심을 먹고 일어

났다. 생전에 나라의 농업문제로 하여 그토록 마음쓰신 수령님, 80고령의 나이에도 우리 연백벌을 찾으시였던 수령님, 그대 우리 연백벌농사를 기어 이 올려세워야 해, 그것이 수령님을 영원히 받드는 길이야! 천세만세 모시는 길이야! 리순덕은 자신을 자책하며 작업반농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리순덕의 눈길은 무심중 옷담뱃으로 갔다.

거기에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전국 농업대회사진들을 비롯한 평양에서 진행된 큰 대회의 사진들 그리고 여러 중요국가행사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대표증들이 벽 한면을 꽉 채우고 있었다.

리순덕은 눈굽이 확 달아올랐다.

자기만큼 복되고 긍지로운 삶을 누린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 칠순이 넘도록 나라의 농업생산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지만 받아안은 행복과 영광은 그 나이의 몇십곱을 산대도 다 갚지 못할 참으로 크나큰 것이었다.

리소재지에서 읍으로 향한 큰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리당사무실뜨락을 벗어난 승용차는 전조등빛을 앞세우고 큰길에 들어섰다.

승용차에는 리순덕과 군당책임비서가 타고 있었다. 리순덕의 해임문제가 제기되어 내려왔던 책임비서였다. 돌아가는 길에 순덕이를 갈릴길까지 태워다주고싶어 그를 차에 오르게 한 것이었다.

리순덕과 나란히 뒤좌석에 앉아있는 책임비서는 여전히 착잡한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과연 리순덕의 해임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책임비서는 왜서인지 그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특 짝어말한다면 서운한 감정, 자기에게서 귀중한 그 무엇이 없어질 때 느끼는 그런 서운한 감정이 강렬하게 솟구쳐 해임제의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보기에 리순덕은 아직 정정했으며 모든 면에서 미흡한 점을 느낄수 없었다. 농촌의 초급일군으로 사업하는데서는 아직 손색이 없을 녀인이었다.

농사일이 힘든 일이고 따라서 육체적조건이 필수적인것만은 사실이지만 일군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것이 전부로 될수는 없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 농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바로 이것이 농촌초급일군에게 있어서 선차적이며 나이와 육체를 평가하는 위력한 수단이 아니라.

책임비서는 군당에 올라가 다시 심중히 토의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굳히었다.

《전 내리겠습니다.》

승용차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자 리순덕은 몸을 들썩했다. 피곳 차창밖에 눈길을 주었던 책임비서가 그한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가만 앉아계십시오. ... 운전사동무, 마을에 들

어갔다 잡시다.》

《어이구, 그러지 마십시오. 제 내려서 걸어 가겠습니다.》

리순덕은 필쩍 놀라며 문손잡이에 손을 가져갔다.

《허, 가만 앉아계시라는데 그러합니다. 밤길에 년로한 반장동무를 떨구어놓고 홀 달아나면 제 마음이 편안할라구요, 허허...》

소탈하게 껄껄 웃는 그앞에 리순덕은 더 할 소리가 없어 그저 느슨히 웃고말았다.

승용차는 잠간사이에 마을입구의 나지막한 둔덕을 가까이 하였다.

《저기 웬 사람들입니까?》

앞시창에 눈길을 주고있던 책임비서가 다소 놀라며 물었다. 그 소리에 리순덕은 운전사의 옆으로 고개를 기웃하며 앞을 바라보았다. 둔덕의 아름답디 느티나무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있는것이 거뭇하게 안겨왔다.

가까와지는 승용차의 전조등빛에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자 리순덕은 놀랐다. 기술원과 분조장들을 비롯한 술한 마을사람들이 웅기중기 몰려서있는것이 아닌가.

승용차가 멎기 바쁘게 리순덕은 급히 문을 열고 나섰다.

《무슨 일인가?》

그는 첫눈에 띄우는 기술원앞으로 성급히 다가갔다.

《무슨 일이 생긴건 아니구... 아니?...》

말을 떼던 신은남은 반대편으로 내리는 책임비서를 보자 입이 떡 굳어졌다. 이어 머리를 굽석하며 인사를 했다. 사람들도 따라 인사했다.

《안녕들 하십니까?》

책임비서도 마주 인사하며 차앞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 생긴건 아닙니까?》

신은남이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그런건 아니구, 저... 반장어머니 일이 걱정돼서...》

《반장동무의 일이라니?...》

책임비서는 의아한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데 한 로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나섰다.

《책임비서어른, 사실 우린 반장이 해임받으러 갔다기에 속이 좋지 않아서 나와있수다.》

《...》

《그 소릴 들으니 마음이 설통한게 어디 집안에 앉아있을수가 있어야지요.》

다른 한 로인이 하는 말이였다.

책임비서는 속이 쿵— 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나와있습니까?》

《그렇수다. 다 같은 심정이다나니 결국 온 마을사람들이 다 모인셈이 됐수다.》

신은남이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히 물었다.

《저... 책임비서동지, 우리 반장어머니가 반장사업을 그만두게 됩니까?》

《...》

1분조장이 나서며 입을 열었다.

《우리 작업반이 잘 안된것이 있다면 그건 반장어머니탓이 아닙니다. 우리 분조장들이 일을 쓰게 못해 그런것입니다.》

《반장어머닌 아직 반장사업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젊은 사람 열맞잡이입니다!》

《순덕어머니가 꼭 반장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서며 말했다.

한편 순덕이한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머니, 반장을 계속해줘요.》

《정 힘드시면 가만히 앉아 지시만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힘껏 일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반장을 그만두면 그 구수한 잎담배도 못 얻어피우지 않습니까.》

리순덕은 그러한 젊은이들을 그윽한 눈으로 둘러보기만 했다.

한 로인이 그한테로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반장, 동네사람들의 심정을 외면하지 말라구.》

《원, 순희 아버지두...》

《마을사람들한테 반장이 너무 정들었네. 집안에서 자식이 제 에미에게 들어있는 그런정과 같은것이. ...》

리순덕은 목이 짹 메여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책임비서는 이 뜻밖의 광경앞에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리순덕이 이렇듯 작업반원들, 마을사람들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었던 말인가. 평범한 농촌녀인에 불과한 그가, 이제는 년로한 몸으로 늙은이에 불과한 그가 든든한 기둥처럼, 집안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굳건히 자리잡고있는것이 아닌가. 꾸밈없고 진실한 마을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너무도 충분히 증명하고있지 않는가.

그래 저들에게서 그 혈육같이 진실하고 뜨거운 정을 떼버릴수 없지. 그렇게 하는것이 마을사람들을 위해서도, 리순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 오랜 농촌일군의 삶을 더 빛내주고 그의 인생을 더 가꿔주는 일인것이다.

책임비서는 문득 얼마쯤 떨어져있는 느티나무가 눈에 띄우자 천천히 그리로 다가갔다. 아름이 벌게 자란 느티나무, 모름지기 백년은 훨씬 넘게 자랐을 거목이였다.

잃어버린 심장

김려(1766-1821)는 1806년 10월에야 비로소 여러해의 류배살이에서 풀려나 고향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와보니 밭과 집은 모두 남의 소유로 되어버렸고 비바람도 가리기 힘든 달팽이 껍질같이 작은 두칸짜리 초가집만이 남아있어 서러움을 자아냈다. 그야말로 넋이 달아나버릴 지경으로 억이 막혔고 앞길이 막막했다.

다행히도 후원이 꽤 넓어서 과수와 화초를 가꾸기에는 넉넉했다.

그는 여러가지 나무와 풀, 과일과 남새, 꽃 등을 가꾸면서 이를 두고 시를 즐겨 지었다.

그의 집에는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홍매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에 대해서도 김려는 이런 시를 지었다.

우리 집 홍매나무는
이름난 품종이 절륜하나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병들어 마른 비늘처럼 되었네

풍설중에 몸을 부지하여
몇가지 홀로 봄을 지녔네
붉은 꽃 아릿답고 묘하여
옥색빛꼭지는 맑은 정기 영킨듯

산들바람에 그윽한 향기 풍기며
정정히 미인처럼 빛나네
열매는 살구보다 작으나
동그랗게 한알같이 영글었네

...

시의 구절구절은 마치도 험난한 인생행로에 지칠대로 지쳤으나 뜻과 지조를 버리지 않고 꺾끗이 살아가는 김려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듯싶었다. 이러한 속에서 날과 달이 흐르던 어느날 김려

는 마음속 한구석에 항시적으로 차있던 불안감을 더는 견디어낼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창작한 소설들을 수집정리하지 못한것이였다.

1792년에 이미 창작한 소설들을 추고하여 《우초속지》를 엮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 부령과 진해로 류배되면서 태반은 잃어버렸다. 류배중에도 짬 시간을 내어 수십건의 작품을 썼으나 목여 김희천이 가져가는 바람에 남은것이 없게 되었다. 김희천이 가져간 작품들을 찾아오려고 생각을 하고있었으나 시간을 얻지 못하여 하루이를 미루는중에 1813년에 희천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

(이제 더 미루다가는 그 작품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빨리 가서 찾아오자!)

더는 늦잡을수 없다고 생각한 김려는 드디어 시간을 내어 희천의 집을 찾아갔다. 생각했던대로 그의 집에서는 자손들이 살고있었다.

《너의 부친이 내가 그전에 쓴 수십편의 작품들을 가져갔는데 찾아서 돌려다오.》

그런데 자손들의 대답이 기가 막혔다.

《그럭저럭 없어져서 이제 남아있는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시 심장이 멎는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하여 분풀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자손들의 무식을 원망할수밖에 없었다. 김려는 무거운 한숨을 쉬고나서 탄식 비슷이 말했다.

《그건 심장을 뺏은것과 같은 일이다. 난 심장을 잃었구나. 가석한 일로다! 신의중의 첫째 신의는 뜻을 존중하는것인즉 너희들이 이미 그것을 어기고 잃었으니 어찌 신의가 있다고 하겠느냐.

하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나도 신의없는 놈이라 너희들을 탓할것도 못되노라.》

자신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온 김려는 남아있는것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두권으로 묶고 하나는 《고향옥소사》, 다른 하나는 《단량패사》라고 이름지었다. 묶어놓은 책들을 보니 그제야 마음도 한결 개운해졌다.

책임비서는 나무에 한손을 짚고 고개를 젓혔다.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스라하게 자란 나무는 호합지게 펼쳐진 가지들에 잎새들을 빼죽이 달고 여름밤의 서늘로운 미풍에 조용히 설레이고있었다. 빛밝은 낮에 보았다면 줄기차게 뻗어오른 가지들과 무성한 잎새들로 하여 웅건하면서도 청청한 자태를 자랑스레 드러내고 서있을것이다.

이 거목은, 청청한 이 푸른 거목은 어떻게 이렇듯 류다른 생장을 지닐수 있는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비옥한 토양과 거기에 깊이 박은 뿌리에 의해서일것이다. 든든한 뿌리로 자양을 줄기차게 빨

아올려 아지를 살찌우고 잎새의 푸름을 돋굴것이다. 년년이 세월과 더불어 그 생장과정은 더더욱 기운차고 활발해져 이렇듯 생존의 한계가 없는듯 푸르기만 할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리라. 고마운 조국에 대한 보답과 헌신, 사랑과 애정을 인생의 든든한 밑뿌리로 삼고 그것을 우리 제도라는 이 《비옥한 토양》에 깊숙이 박을 때 그 인생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색을 모르고 푸르리라! 그러니 결코 나이가 인생의 현재를 표징하는것이 아니였다.

책임비서는 더욱토록 푸르른 거목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리익의 《성호악부》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실학파는 량반사대부들의 부패성과 공리공담,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개탄하고 〈실사구시〉의 구호밑에 사회적인보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인민이 창조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에는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시기와 고려시기를 거쳐 리조말기까지 창작 발전되어온 악부시도 있다. 그가운데는 실학파의 중견인물의 한사람인 리익에 의해 창작되어 18세기 우리 나라 악부시의 대표작의 하나로 된 《성호악부》도 있다.

리익(1681—1763)의 자는 자신이고 호는 성호이며 출생지는 평안북도 운산이다.

1705년에 과거시험에서 낙방된 후 형 리잠이 당파싸움의 희생물로 로론파에게 죽자 부패한 정계와 담을 쌓은 리익은 경기도 광주의 침선촌에서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다.

리익은 자기의 주요저서인 《성호새설》과 《곽우록》을 통해 당시의 사회제도를 분석비판하고 여러가지 정책적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악부》는 《성호집》의 제6, 7권에 100여수 수록되어있는데 리익은 그저 《악부》라고 한것을 연구자들이 다른 악부시작품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성호악부》라고 불렀던것이다.

악부는 한자로 기록된 시가작품의 한 형태로 이르는 말인데 원래의 의미에서 《악부》는 봉건사회에서 음악관계를 말아보는 관청을 의미하였다.

악부에서는 궁정음악의 장악과 민간가요의 수집정리를 위주로 하였다. 민간가요의 수집정리는 인민대중의 사상동향의 장악과 함께 민간의 아름다운 노래를 채집하여 궁중연회나 제사에 리용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악부에서 수집정리한 가요작품을 《악부》 혹은 《악부시》라고 불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악부시라는것이 원래 민간에서 불리우던 노래를 한시형식으로 정리한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

중세기 문인들은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일정한 교훈을 주는 력사적사건, 사실들을 한시형식으로 노래하고 그를 《악부시》라고 하였다.

이러한 악부시창작의 대표적인물들은 김종직,

심광세와 함께 이 글에서 론하려는 리익이다.

김종직(1431—1491)이나 심광세(1577—1624)와 마찬가지로 리익의 악부시들도 단지 민간가요의 수집정리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창작품이다. 그것은 리익의 악부시 《정읍사》와 《악학궤범》에 있는 《정읍사》를 대비해보면 잘 알수 있다.

《악학궤범》의 《정읍사》는 다음과 같다.

달아 노피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쳐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전저재 녀러신고요
어기야 존대랄 드디울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는대 점그랄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이렇듯 《악학궤범》의 《정읍사》는 한 녀인이 전주시장에 가있는 남편이 진창길을 밟지 말도록 달에게 높이 떠서 비쳐달라고 하는 내용을 세 절에 나누어 조흥구까지 붙여서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성호악부》의 《정읍사》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정읍은 전주에 붙어있는 고을이다. 전주사람이 행상을 하였는데 오래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그 안해가 산의 바위우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길을 걸다가 해를 입지 않을가 걱정되어 진창물에 더럽혀지는데 비기여 노래하였다. 세상에 전하기를 산에 올라가 망부석이 되었다고 한다.

가을 샘물 주절대는데
산에도 강에도 달은 밝구나
달은 밝으나
쓸쓸한 바람부는 비속을
몇해째 떠다니나

속절없는 단풍도 시절을 알리는데

진랑길 아득하고 길손들 끊쳤구나
 길손들 끊쳤으니
 넓은 넓은 바다속
 호화로운 궁궐을 날고있으리》

이 두편의 시를 살펴보면 님을 기다리는 너인의 심정을 노래하는데서는 일치하나 리익의 《정읍사》가 민간가요 《정읍사》에서 그 상만 취하였음을 잘 알수 있을것이다.

리익의 《정읍사》에 나오는 가을샘물, 밝은 달, 비바람, 단풍잎, 길손, 바다속 등은 다 《악학궤범》의 《정읍사》에는 없는 내용들로서 이것만 보아도 리익의 《정읍사》가 철저히 작자의 의도에 맞게 그 이름만 빌어서 지은 개인창작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악부에 대한 리익의 견해를 아는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에 대한것이 작품집에서 정면으로 제기된것이 없으므로 작품분석을 통해 찾아볼수밖에 없다.

리익은 민간창작을 매우 중시하였는바 《성호악부》의 《만파식가》, 《파경사》, 《도술가》 등 많은것들은 당시까지 민간에서 널리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은것들이다.

창작방법에서도 리익은 사실주의적경향을 가지고 당시의 무너져가는 봉건왕조의 도덕적부패상과 정치의 암흑상을 력사이야기를 빌어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악부시 《화왕가》가 당시의 부패한 정사에 대한 비판이라면 《락화암》은 통치배들의 사치한 생활에 대한 비판이며 《성충의 탄식》은 망국의 위험에 대한 경고로 된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고 외에도 리익은 《통치랑》, 《서압록강의 노래》에서처럼 사회의 정치적폐단을 개변할 방도를 제시하였는가 하면 재능있는 인재를 등용할데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다시말하여 리익은 실학파로서 《실사구시》의 정신을 악부시를 통하여 강하게 제시함으로써 자기의 작품들을 정치개혁과 사회비판의 무기로 삼았던것이다.

리익은 악부시는 어디까지나 노래와 관련된다고 보았기때문에 《성호악부》에는 제목에 노래와 관련된 글이 들어있는것이 적지 않다. 《도술가》, 《회소곡》, 《무고악》, 《고청음》 등을 비롯하여 제목에 노래와 련관된 글이 들어간 작품은 65수로서 《성호악부》의 절반을 넘는다.

한마디로 말하여 리익은 자기의 창작을 통하여 악부시란 웅당 민간에서 불리우는 노래이고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린것이여야 하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귀감으로 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악부시에 대한 리익의 이러한 견해는 《쓸모있

는 학문》을 연구하고 《실사구시》를 지향하는 당시 실학파의 립장을 악부시의 창작으로 체현한 것이었다.

《성호악부》는 제주범위도 대단히 넓다.

《성호악부》에서는 우선 당시 사회제도의 암흑상과 도덕적부패상에 대하여 날카롭게 풍자비판하였다.

《화왕가》에서 작가는 《천하일색 하루속히 작별하소서/ 어진이 많은것이 색보다는 나으리라》라고 하여 임금의 사치한 생활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포석정》에서는 부화방탕한 생활로 하여 나라를 망친 통치배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명활성밖에 높은 다락 지어놓고 천백관리 모여들어 백주에 술판을 벌리더니》 갑자기 《정자밖에 천군만마가 풍우인양 물러드니 물을 잃은 룡인듯 임금은 갈광질광》하고 《얼굴 싸쥔 미인들은 통곡하며 달아나 세 성씨가 다스리던 천년의 임금터전 연기인양, 백설인양 가뭇없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포석정에서 화려한 놀음에 빠져있다가 끝내 망국을 빚어낸 신라의 경애왕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이 비판의 예봉을 경애왕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시의 마지막부분에서 당대의 통치배들에게로 돌리고있다.

《성호악부》에서는 사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 견해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있다.

악부시 《도술가》에서 리익은 백성을 중시할데 대한 견해를 보여주었으며 《서압록강의 노래》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할데 대한 진보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성호악부》에서는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의를 다한 인물들을 높이 찬양하였다.

악부시 《성충의 탄식》에서는 한목숨을 바치면서도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성충을 높이 찬양하였으며 《주근의 노래》에서는 마한의 장수였던 주근이 나라가 망하자 우곡성에 들어가 싸우다가 끝내 자결한 력사적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나라위해 충의를 다한 그의 지조를 높이 격찬하였다. 당시에 주근을 《역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것을 상기해볼 때 리익의 이 작품이 그의 진보적인 사상을 보여주는것임은 더 말할것도 없다.

리익은 력사인물평가에서도 반침략투쟁에서 목숨바친 사람들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동태부 기생 김섬에 대한 악부시 《김섬의 노래》와 임진조국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마련한 리순신장군에 대한 악부시 《죽음을 숨기고》, 구주전투에서 거란침략자들을 크게 쳐이긴 고려명장 강감찬에 대한 악부시 《금화팔지가》 등이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성호악부》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오랜 세월 고이 간직해온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도 높이 자

랑하였다.

악부시 《회소곡》이 우리 인민의 근면한 로동 생활과정을 잘 보여주었다면 《파경사》에서는 남녀간의 진실한 애정 관계를, 《리전대》, 《오관산》에서는 부모자식간의 인정과 의리, 부모에 대한 자식의 참된 효도를 폭넓고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성호악부》에서는 또한 작품에 반영된 사상주제적내용들을 높은 문학적기교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리익은 력사이야기들을 취급하면서 서술방식에서 서사시적인것을 많이 리용하였다. 작품의 첫머리에서 악부시를 창작하게 되는 동기로 밝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 사실을 노래하였다. 대체로는 악부시창작에서 작가들이 해당 력사적사건에 대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를 사색의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밝혀주고있는데 비해 리익은 그런 평가는 주지 않고 해당 사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작품을 통해 독자가 작가의 견해를 알도록 하고있다.

리익은 악부시의 끝부분에서 대조의 수법을 쓰거나 혹은 개괄력이 강한 언어로 작품의 사상을 명백히 드러내기도 하고 창작동기를 밝히기도 하였다.

리익은 《성호악부》에서 사상주제를 살리기 위해 서술과 논리의 결합, 반복과 라렬 등 다양한 문체론적수법의 활용, 한자를 리용한 시가의음악적률동의 보장, 조선고유어와 고대명칭 그대로와 지명, 인명사용, 작품창작에서의 속담활용들을 사실주의적창작방법으로 자유롭게 리용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성호악부》는 력사적사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노래하면서 높은 예술적기교를 발휘한것으로 하여 실학자로서의 리익의 정치적견해와 주장을 잘 보여준 민족성이 강한 16세기 악부시가작품의 대표작이다.

시대적, 계급적제한성과 작가의 세계관상 제한성으로 하여 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의 도수가 보다 날카롭지 못하고 제거나 권고로만 그친 일련의 부족점은 있으나 《성호악부》는 《실사규시》의 구호밑에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창작으로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한 실학자들의 사상미학적, 정치적견해와 실학파문학을 연구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작품집의 하나이다.

리 원 희